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 농촌 삶의 행복과 우정

—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 *Carmina* I~III 연구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김진식

# 농촌 삶의 행복과 우정

—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 *Carmina* I~III 연구 —

지도교수 이 종 숙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김 진 식

김진식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표는 호라티우스가 제시한 행복한 삶으로서 농촌 삶의 원리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기원전 23년 출판된 초기 서정시(*carmina* I~III)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호라티우스가 농촌 삶의 원리를 ‘가난’, ‘은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정’ 등 세 가지로 나누고, 농촌 삶을 구성하는 이런 원리들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원리라고 시인이 가르치고 설득하고 있음을 그의 초기 서정시들에서 살펴본다. 특히 논문의 중심이 되는바 ‘초대시’로 분류되는 시들을 토대로 ‘우정’의 원리를 검토하는 데, 여기서 우정은 농촌 삶에서 행복한 삶의 원리들을 묶는 구심적 원리임을 입증한다.

호라티우스의 『풍자시』와 『비방시』는 내전(內戰)의 격동기를 살았던 시인의 작품들이며, 무엇보다 행복한 삶에 대한 철학적 물음이 깊게 각인되어 있다. 여기에서 호라티우스는 행복한 삶을 향한 도시의 ‘노동’이 결국 ‘불행한 노동’으로 귀결되었다는 것과, 다시 불행한 노동으로의 귀결을 피하려는 노력이 무노동의 행복이라는 몽상으로 귀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는 건강한 노동이 생명을 제공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농촌 삶을 제시한다. 시인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발견하는 공간은 마에케나스가 선물한 시골 영지 사비눔이었다. 사비눔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벽지로 보이는 농촌이며, 도시의 화려함이 없기에 가난하게 보이는 시골이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잔치를 베풀며 노래하는 사비눔의 농촌 삶은 시인에게 쾌활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다.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carmina* I~III)는 『풍자시』와 『비방시』에서 발견된 이런 행복의 원리들을 이전과는 다른 문학 장르에서 설득하고 가르치려는 시도였다. 『서간시』 제2권과 『미학』 등 호라티우스의 후기 작품은, 서정시 장르가 윤리적 도덕적 교육 매체이어야 하며, 서정시를 노래하는 시인이 공동체를 위해 이런 교육자의 역할을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가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이념의 설득과 가르침이었다. 호라티우스는 초기 서정시를 통해 ‘은둔’과 ‘가난’과 ‘우정’을 원리로 하는 농촌 삶의 행복을 가르치고 설득한다.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에서 농촌 삶의 행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흔히 ‘로마 송가’라고 불리는 『서정시』 III 1~6에 이르는 여섯 편의 작품이다.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로마 사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로마 송가’는 불행한 노동으로 빚나가지 않는 건강한 노동이 농촌 삶에 있다고, 미래의 로마 시민으로 성장할 소년 소녀들에게 행복의 원리 혹은 행복의 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농촌 삶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농촌 삶을 통해 행복의 원리로서 젊은이들은 ‘가난’과 ‘은둔’을 배우는바, 호라티우스는 이것들이 행복의 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을 제시한다.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에서 가난과 은둔의 농촌 삶이 이룬 행복한 삶의 순간은 주연(酒宴)의 노래로 표현된다. 이때 호라티우스는 사비눔의 주연(酒宴)으로 친구들을 초대한다. 친구와 어울려 펼치는 술잔치는 사랑과 노래가 어우러진, 에피쿠로스학파의 의미에서 쾌락의 정점이 되는 아름답고 찬란한 삶의 한순간을 상징한다. 가난해 보이지만 부족할 것 없는 농촌 삶은 자족을 누리는 삶이며,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궁벽한 농촌 삶은 욕망과 갈등과 고통을 벗어난 삶이자, 사랑하고 노래하는 즐거운 삶인바, 이런 행복한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정’이었다.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에서 분명 새로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대해 기대가 드러나며, 국가에 평화와 안정과 질서가 찾아오리라는 낙관적 전망과 미래의 희망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삶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이 실현되지는 않는다. 행복한 삶의 실현은, 국가적 사회적 감시와 규율과 별개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에 좌우되고 결정된다. 호라티우스는 개인적 사적 영역에서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농촌 삶의 모습에서 발견한다. 그리하여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는, 아우구스투스가 이끄는 평화와 안정

과 질서라는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한편, 동시대를 살아가는 로마인들에게 우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행복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설득하려 하였던 ‘현자-시인 *vates*’ 호라티우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요어 : 호라티우스, 농촌 삶, 가난, 은둔, 우정, 훌륭한 시인

학번 : 97131-801

## 목차

1. 서론 .....	1
1.1 호라티우스 초기 서정시의 수용과 연구 .....	3
1.2 연구 목표와 연구 대상 .....	13
1.3 행복한 삶에서 우정의 역할 .....	21
2. 초기 서정시 전후의 현실 비판과 시인론 .....	28
2.1 훌륭한 시인과 현실 참여 .....	29
2.2 현실 비판과 행복한 농촌 삶의 발견 .....	45
3. 초기 서정시에서 행복한 농촌 삶의 원리 .....	72
3.1 농촌 삶: 『서정시』 III 1~6 .....	74
3.2 가난: 『서정시』 II 16 .....	87
3.3 은둔: 『서정시』 I 22 .....	94
4. 주연(酒宴)으로의 초대 .....	100
4.1 주연(酒宴): 『서정시』 I 32과 I 38 .....	102
4.2 도시의 주연(酒宴): 애욕 『서정시』 I 13 .....	111
4.3 농촌의 주연(酒宴): 우정 .....	119
4.3.1 튠다리스 초대시: 『서정시』 I 17 .....	120
4.3.2 마에케나스 초대시 I: 『서정시』 I 20 .....	129
4.3.3 마에케나스 초대시 II: 『서정시』 III 8 .....	137
4.3.4 마에케나스 초대시 III: 『서정시』 III 29 .....	145
5. 결론 .....	165

참고 문헌 .....	169
Abstract .....	181



#### 일러두기

1. 여기에 인용된 고전 번역들은, 달리 표시가 없는 한, 대부분 천병희의 번역이다.
2. 여기에 인용된 호라티우스 작품은 필자의 번역이다.





## 1. 서론

소크라테스는 법정변론에서 무죄 방면된다 해도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는 만나는 아테네인마다 덕(德)과 탁월함을 목표로 자기 자신을 검토하라는 질책과 권고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다. “더없이 훌륭한 사람아, 그대는 지혜와 힘에 있어 더없이 강력하고 명성이 높은 도시 아테네의 시민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그리고 명성과 권력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반면 사려와 진리와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없이 훌륭해질 수 있을까는 걱정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네.”<sup>1)</sup> 여기서 강력하고 명성이 높은 도시를 로마로 바꾼다면, 이는 행복한 삶과 관련하여 소크라테스의 삶을 실천한 ‘현자-시인 *vates*’ 호라티우스가 로마인들에게 던졌던 질책과 일맥상통한다.<sup>2)</sup> 이탈리아의 수도를 넘어 지중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력으로, 더없이 화려하고 더없이 풍요로운 거대 도시로 성장한 로마와 로마시민들에게 시인은 행복한 삶에 관해 현재의 자신을 검토하도록 가르친다.

호라티우스는 행복한 삶을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찾았다. 호라티우스에게 농촌 삶은 달리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행복의 공간이다. 농촌 삶의 행복은 다른 무엇보다 우정을 중심으로 하는바, 우정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의 구심점이었다. 농촌 삶의 행복은 다양한 장르의 호라티우스 작품들 가운데 특히 그의 초기 서정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의 『풍자시 *sermones*』 II와 『비방시 *epode*』은 도시 삶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물론 농촌 삶이 행복한 삶의 대안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풍자시』 II와 『비방시』에서였다.

---

1) Platon, *Apologia* 29d7 이하(인용자 번역).

2) 호라티우스, 『시학』 309행 이하 “맑은 지혜가 올바른 시의 시작이며 원천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책은 바른 사태를 보여줍니다.”

농부의 노동을 토대로 한 농촌 삶을 제시한 이래, 호라티우스는 초기 서정시에서 농촌 삶에 나타난 행복이 절정에서 내뿜는 찬란한 빛을 묘사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았다. 초기 서정시에서 건강한 노동의 공간과 부지런한 농부의 농촌은 들추어 언급하지 않아도 언제나 배경으로 전제되었다. 『비방시』와 『풍자시』 II를 거쳐 『서정시 *carmina*』 I~III에 이르기까지 호라티우스는 서사시 운율에서 서정시 운율에 이르는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결국 한 가지 생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고 설득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가르치고 설득하는’ 시인의 역할을 호라티우스가 문학 활동의 목표로 삼았음은 후기 저작 『서간시 *epistulae*』 II와 『시학 *ars poetica*』에서 확인된다.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는 『비방시』 II와 『풍자시』에서 품었던 행복한 삶의 모습을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하여 ‘가르치고 설득하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현자-시인 *vates*’ 호라티우스가 행복한 삶의 대안으로 농촌 삶을 제시한 것은 기원전 30년(『풍자시』 II)에서 기원전 23년(『서정시』 I~III)의 일이다. 이때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이후 아우구스투스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 만들어지던 시기였으며, 오래 끌었던 내전이 궁극적으로 평화와 질서를 되찾던 때였다. 행복한 삶은 내전 시대의 공통 관심으로 누구에게나 간절한 소망이었으며, 내전 종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안녕과 질서 가운데 드디어 행복한 삶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때 시대적 역사적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검토하고 다시는 불행과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다각적으로 ‘가르치고 설득하였다.’

이런 가르침과 설득의 하나인 초기 서정시에서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체제의 도래와 함께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행복 시대의 찬사와 선전을 읽어냈다. 아우구스투스는 ‘조상들의 모범 *exempla maiorum*’을 새롭게 부활하는 공동체 회복을 꾀하였고 공동체 구성원에게 ‘덕 *virtus*’을 요구하였다.<sup>3)</sup> ‘정치가-통치자’ 아우구스투스가 국가적

---

3) Augustus, *Res gestae Divi Augusti* 8.5, “*legibus novis me auctore latis multa exempla maiorum exolescentia iam ex nostro saeculo reduxi et ipse multarum rerum exempla*

정치적 평화와 안정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충직 *pietas*’, ‘자비 *clementia*’, ‘정의 *iustitia*’ 등의 덕을 강조하였다.<sup>4)</sup> 하지만 이와 달리 ‘현자-시인 *vates*’ 호라티우스는 국가 공동체적 ‘도시 삶’을 떠난 개인적 윤리적 행복을 추구하였고 이것의 가능성을 농촌 삶에서 발견하였다. 호라티우스의 농촌 삶은 당대 아우구스투스가 수립한 새로운 질서와 공동체 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기꺼이 함께하고 환영하면서도, 때로는 이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행복 공동체를 꿈꾸었다.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는 행복 공동체 혹은 행복한 삶으로 농촌 삶을 제시하며, 행복한 삶의 원리로 가난과 은둔을 표방한다. 이는 도시 삶이 가져온 불행과 고통, 노고와 근심을 치료하기 위해 시인이 내린 처방이었다. 이때 가난한 은둔의 삶이 도시 삶의 불행과 근심을 벗어난 건강하고 명량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호라티우스는 주연(酒宴) 혹은 술잔치의 순간을 노래한다. 그리고 마침내 호라티우스는 소중한 친구들을 주연의 순간으로 초대하는데, 농촌 삶의 행복은 우정을 통해 완전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1.1 호라티우스 초기 서정시의 수용과 연구

우리는 행복한 삶의 시인이자 ‘현자-시인’으로서 호라티우스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

*imitanda posteris tradidi.*” 최병조(1995) 80쪽 이하. Wallace-Hadrill(2005) 67쪽 이하. Cooley(2009) 143쪽과 188쪽 등의 설명을 따르면, 여기서(RG 8.5) 언급한 법률 제정은 기원전 18년 이후의 일이지만,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은 기원전 31년 페레트리우스 유피테르 신전의 재건(RG 19.2)에서 시작되었다.

4) Galinsky(1996) 80쪽.

하며, 그의 초기 서정시를 중심으로 시인이 제시하는 행복한 삶과 그 원리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호라티우스에게 사회 정치적 현실의 시대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호라티우스가 목격한 내전시대의 잔혹함과 고통,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평화와 안정이 그의 작품에 반영되었다. 카이사르 암살에서 시작되어, 카이사르파와 반대파의 대결, 카이사르의 상속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격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와의 몰락,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은 시인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우리는 호라티우스가 초기 서정시를 통해 행복한 삶의 대안으로 농촌 삶을 제시하였음을 주장한다. 그간의 연구는 초기 서정시에 그려진 농촌 삶이 호라티우스가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대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고, 주목하더라도 현실 도피 혹은 서정시론으로 해석하였다. 호라티우스 문학의 사회 참여적 성격은 세상 풍속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 『풍자시』 II와 『비방시』에서 보이는데, 이런 사회 참여적 노력은 그대로 이어져 초기 서정시의 농촌 삶도 노력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초기 서정시는 도시 삶에 대한 신랄한 공격과 조롱 대신 농촌 삶이라는 대안과 처방이 가져온 행복을 묘사한다.

고대와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까지 호라티우스는 단테가 말하는바 풍자시인이었다.<sup>5)</sup> 기원후 1세기 퀸틸리아누스는 그를 로마 최고의 풍자시인으로 보았다.<sup>6)</sup> 퀸틸리아누스는 루킬리우스의 풍자시에서 “진흙”<sup>7)</sup>을 털어내야 한다고 말한 호라티우스의 말을 인용하며, 호라티우스가 많이 정돈되고 깔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보기

---

5) 단테 『신곡』 “지옥편” 제4곡 89행, “풍자가 호라티우스”.

6) Quintilianus 10.1.94 “*multum est tersior ac purus magis Horatius et, nisi labor eius amore, praecipuus.*”

7) 『풍자시』 I 4, 11 행 “*lutulentum*”는 정도 이상의 신랄한 조롱과 비판 등의 공격을 가리킨다.

에 “웃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한다”<sup>8)</sup>라는 호라티우스의 풍자 원리를 염두에 둔 평가다. 여기서 호라티우스의 “진실”은 사회적 현실을 가리킨다.

퀸틸리아누스가 로마의 서정시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호라티우스만이 읽을 만하다고 평가한 것은 서정시의 형식에 대한 관심으로 탁월한 운율 활용과 언어적 유려함에 주목한 것이다.<sup>9)</sup> 기원후 3세기 이후 15세기까지 호라티우스 서정시가 노래하는 주제와 가치, “자족, 내면적 충족, 죽음과 위험 앞에서의 용기” 등이 주목받았는데,<sup>10)</sup> 호라티우스의 서정시는 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되었고,<sup>11)</sup> 사람들은 호라티우스를 모방하여 세속적 권력과 부가 초래하는 위험을 노래하였다고 보았다.<sup>12)</sup>

르네상스 시대의 페트라르카는 호라티우스의 서정시에 따라 자기 초상을 완성하였다. 기독교인 페트라르카는 아주 적은 물질적 요구, 우정을 위한 선물, 사회적 출세의 거부, 도시 생활의 거부, 은거 생활의 향유 등을 과시하였다.<sup>13)</sup> 15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호라티우스 강의가 피렌체와 로마와 베로나 등지에서 시작되었고 같은 시기에 호라티우스 서정시의 모방자들이 유럽 각지에서 두루 나타났다. 이런 모방은 기독교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sup>14)</sup> Ben Jonson을 비롯하여 17세기와 18세기의 모방자들은 호라티우스의 작품에서 도덕적 가르침을 중시하였다. 이 시기 독일에서는 호라티우스

---

8) 『풍자시』 I 1, 24행 “*ridentem dicere verum*”.

9) Lefèvre(1993) 14쪽. Quintilianus 10.1.96 “*At lyricorum idem Horatius fere solus legi dignus. et insurgit aliquando et plenus est iucunditatis et gratiae et varius figuris et verbis felicissime audax*”.

10) 이상 Tarrant(2007) 277~290쪽.

11) Quint(1988) 24쪽, Lefèvre(1993) 15쪽, Friis-Jensen(2007) 292쪽 이하.

12) Lefèvre(1993) 16쪽. 사실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호라티우스는 주로 풍자시인 호라티우스로 유명하였고, 서정시는 도덕적 주제에 한하여 단편적으로 읽혔을 뿐이다.

13) McGann(2007) 305쪽.

14) Lefèvre(1993) 17쪽.



의 사랑과 포도주와 즐거운 인생을 모방하는 시인들이 등장하였다.<sup>15)</sup> 19세기 중반에 호라티우스 해석은 허무주의적 향락적 경향이 주를 이루었는데, 예를 들어 1859년 Edward Fitzgerald가 펴낸 『루바이야트』는 ‘오늘을 즐겨라’의 이념이 남긴 커다란 흔적이다.<sup>16)</sup>

이렇게 호라티우스의 『풍자시』 II와 『비방시』에서 서정시로 이어지는 현실 참여적 ‘현자-시인 *vates*’을 도외시하고, 서정시에서 향락주의적 목가적 성향과 학문적 교양을 뽑내는 호라티우스를 찾아내어 포도주와 사랑과 여인들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그렸던 흐름이 있었다고 할 때,<sup>17)</sup> 이를 거슬러 서정시에서 역사적 정치적 현실 참여 경향을 ‘적극적으로’ 읽어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다.<sup>18)</sup>

1889년 Mommsen은 로마 송가(『서정시』 III 1~6)를 두고 호라티우스가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며 아우구스투스 이념을 묘사한다고 평가하였는바, 단순한 아부 문학이 아닌 진심을 담은 시라고 보았다.<sup>19)</sup> 1935년 Schröder는 ‘정치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개념으로 호라티우스의 서정시들에 나타난 정치 참여적 모습의 호라티우스를 보여 주었다. Schröder는 역사적 흐름과 정치적 현실을 도외시하는 시인이 아닌 역사에 참

---

15) Lefèvre(1993) 20쪽.

16) Harrison(2007) 335쪽 이하.

17) Schröder(1972) 40쪽.

18) Harrison(2007) 339쪽 이하. “*At the zenith of the British Empire, Horatian imitation was natural vehicle for nationalistic poetry.*”

19) Amundsen(1972) 111쪽 이하와 Fraenkel(1957) 240쪽. Mommsen은 1889년 강연에서 “아부 문학의 생산 *Die Produkte der Schmeichelliteratu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여타 아부 문학은 곧 잊히지만, 호라티우스의 문학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읽히는 것은 거기에 담긴 진심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Syme의 주장을 따르면, 아우구스투스의 내각 수반 마에 케나스는 원래 다른 유력자들과 문학적 피호관계를 맺고 있던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 등을 아우구스투스의 선전에 동원하기 위해 영입하였다고 한다.

여하는 호라티우스를 밝혀냈고, 더불어 아우구스투스의 개혁과 복구에 대한 호라티우스의 강한 지지를 드러냈다. 1939년 Syme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마 혁명사』에서 “아마 그(호라티우스: 인용자)의 『송가』(頌歌, *Carmina*)에서는 사회 재건을 위한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에 대한 가장 고상한 표현,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가장 화려한 주석(註釋)이 발견될지도 모른다.”<sup>20)</sup>

이런 아우구스투스 선전관 이론은 마에케나스와 호라티우스의 피호관계를 전제하였는데, 1957년 Fraenkel은 호라티우스가 동원되어 비자발적으로 애국적 서정시를 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21)</sup> 그는 호라티우스의 초기 정치시가 단순한 아부 문학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가 회복한 질서와 안녕의 ‘환영과 응원’이었다고 보았다. 물론 이런 환영과 응원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칭송과 감사’에 이른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서정시』 IV에서다.<sup>22)</sup> Dohlhofer의 연구사 보고에 따르면 Fraenkel 이후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분명한 지지라는 정치적 해석의 영향력이 확대된다.<sup>23)</sup> 2013년 Günther

---

20) 로널드 사임(2006) 제2권 157쪽 이하.

21) Fraenkel(1957) 240쪽과 260쪽. Fraenkel은 Mommsen의 의견을 따라 “시인의 바르고 진정한 감정”을 찾으려 하였다.

22) Fraenkel(1957) 452쪽.

23) Dohlhofer(1993) 37쪽 이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적 아우구스투스 칭송’(K. Eckert, *Der Wandel des Augustusbildes bei Horaz*, 1959년), ‘서정시 제4권의 아우구스투스 선전’(J. M. Benario, *Book IV of Horace's odes: Augustan propaganda*, 1960년), ‘초기 서정시들을 통해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를 노래함’(K. Büchner, *Horaz: Studien zur römischen Literatur*, 1962년), ‘후기 작품을 통한 아우구스투스 찬양’(C. Becker, *Das Spätwerk des Horaz*, 1963년),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이룩된 공공안녕의 칭송과 개인 행복의 성공적 종합’(G. Lieberg, *Individualismo ed impegno politico nell'opera di Orazio*, 1963년과 J. M. André, *L'Otium dans la vie morale et intellectuelle romaine des origines à l'époque augustéenne*, 1966년), ‘점차적인 변모를 통해 아우구스투스의 추종자이자 아우

는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를 분석하면서, 이것들이 아우구스투스의 정책 선전과 시인의 개인적 소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초기 서정시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칭송을 의도하였다고 보았다. 정치 문학과 선전 문학이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 내에서 중요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마에케나스의 ‘친구’로 발탁된 이래 호라티우스는 기원전 23년 서정시들을 출판하면서 정치적 경력의 정점에 이르렀고 정치적 서정시들을 통해 아우구스투스 통치를 지지하고 선전하였다는 것이다.<sup>24)</sup>

이렇게 호라티우스 서정시의 현실 참여 경향을 읽어낸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고, 마

---

구스투스 정치의 문학적 후원자가 됨’(G. Williams, *Tradition and Originality in Roman poetry*, 1968년), ‘원수정의 자발적 추종자이자 아우구스투스 체제의 대변인’(H. Earl, *Augustus und seine Zeit*, 1969년), ‘공화정 지지자에서 아우구스투스 당파의 자발적 지지자로 변모하여 동료 시민들에게 정치적 도덕적 영향을 끼침’(G. Wille, *Horaz als politischer Lyriker*, 1972년), ‘호라티우스의 개인적 정치적 이념이 아우구스투스의 개인적 정치적 이념에 영향을 미침’(G. A. Tourlides, ἡ ἐπεκτατικὴ πολιτικὴ τῆς ‘Ρώμης καὶ ‘Οράτιος, 1976년), ‘신화적 외형을 덧붙이지 않는 직접적 옥타비아누스 칭송’(D. Romano, *Orazio e i Giganti*, 1980년), ‘아우구스투스의 도덕적 종교적 개건 사업에 대한 시인의 지지’(V. Cremona, *La poesia civile di Orazio*, 1982년),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영도 아래 옛 가치들이 회복되니 이에 대한 시인의 무조건적이고 진심 어린 지지’(D. Little, *Politics in Augustan poetry*, 1982년), ‘아우구스투스 선전의 도구로 트로이아 계보를 사용한 호라티우스’(J. R. Toohey, *Politics, prejudice and the trojan genealogies*, 1984년).

24) Günther(2013) 57쪽, 211쪽과 360쪽 이하. Günther는 호라티우스의 첫 번째 『풍자시』는 오히려 친구 마에케나스와의 사적 관계에 집중하며 ‘정치’를 외면하고, 『비방시』는 상당한 정치적 실망을 표출하는 데 반해, 이후 대중적 여론을 담아낸 『서정시』 I 2나, 사적인 감정을 표출한 『서정시』 I 12과 III 14는 아우구스투스 찬양과 함께 정치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분석한다.

에케나스와 호라티우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후 다시 아우구스투스와 호라티우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라티우스의 현실 참여 경향을 조명한 것은 부분적으로 옳았다. 하지만 『풍자시』와 『비방시』에서 초기 서정시로 이어지는 ‘현자-시인 *vates*’ 호라티우스의 현실 참여 경향을 아우구스투스 선전으로 국한하고 서정시의 호라티우스를 대변인으로 만든 것은 잘못이었다. 호라티우스가 제안하는 행복한 농촌 삶은,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의견을 달리하여 정치가가 제안한 미래의 로마가 아닌 현자 시인이 제안하는 로마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 선전관 이론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마에케나스와 호라티우스의 피호관계를 문제시하였다. 1950년 Meister는 마에케나스가 시인들을 모아 이들로 하여금 공식적 언론기관의 역할을 맡겼다는 견해를 부정한다. Meister에 따르면, 마에케나스가 호라티우스를 도운 것은 마에케나스의 문학적 애호와 온화한 성격 때문이며, 호라티우스가 마에케나스의 곁에 머물렀던 이유는 베르길리우스와 바리우스, 플로티우스 투카 등 시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인정을 즐겼기 때문이다. 나아가 호라티우스의 서정시들은 로마 사교계를 위한 새롭고 놀라운 선물이었다. 그것은 “우정, 사랑놀이, 포도주”를 노래하며, 쾌활하고 한가한 시간의 향유 등 인생을 즐길 것과 절도와 절제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을 권할 뿐이다. 비슷한 시기에 악티움 해전을 배경으로 지은 『비방시』 I에서조차 호라티우스의 관심은 오직 친구 마에케나스뿐이었으며, 바로 그 때문에 마에케나스와 동행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여타 서정시들을 보아도, 마에케나스가 호라티우스를 정치이념의 선전을 위해 동원하고, 예를 들어 ‘로마 송가’를 짓게 하였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는 것이 Meister의 견해다. 또 1959년 Reckford도 호라티우스의 독립을 강조함으로써 로널드 사임의 견해와 달리, 마에케나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여론 담당관으로 활약한 적도, 호라티우스를 정책 선전에 동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마에케나스는 기원전 29년 이래로 건강 문제로 아우구스투스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뿐더러, 마에케나스는 호라티우스에게 무언가를 쓰도록 강요하지 않

았고, 호라티우스 역시 문학적 독립을 지켰다. 호라티우스의 로마 송가 등은 다만 마에케나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 때문이었을 뿐, 그는 서정시에서 정치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고 권하는 등 마에케나스의 행복을 염려하는 “정신적 두호인 *spiritual patronage*”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sup>25)</sup>

아우구스투스 선전관 이론의 이런 반론을 “사비눔 시골의 호라티우스” 이론이라고 이름 붙인다면,<sup>26)</sup> 이 이론은 오히려 전통적인 호라티우스 해석인바, 19세기 말에서 시작되어 20세기에 확대된 아우구스투스 선전관 이론에 반대하여 전통적인 해석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였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해석의 한계는 독립과 도피, 자유와 향락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도시 삶의 비판하고 농촌 삶을 칭송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쾌락주의적 태도의 강조는 호라티우스 본인이 자초한 것인데, 농촌 삶의 행복을 가르치고 설득하기 위해 쾌락을 부각하였기 때문이다. 실로 그가 말하는 쾌락은 다만 가난과 은둔의 삶이 오히려 행복함을 역설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

“아우구스투스의 선전관 호라티우스” 이론과 “사비눔 시골의 호라티우스” 이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호라티우스 서정시의 모호한 절충론이 끼어든다.<sup>27)</sup> 농촌 은둔

---

25) Reckford(1959) 204쪽.

26) Dohlhofer(1957) 6쪽. “사비눔 시골의 호라티우스”을 주장하는 이탈리아의 유력 연구자들은 호라티우스의 마음이 아우구스투스 송가가 아닌 사적 노래에 있었다고 보았는바, 이 경향의 연구자들이 Dohlhofer(1957) 36쪽에 열거된다. ‘『서정시』 III 14를 증오와 역설이 가득한, 아우구스투스의 거절로 해석함’(S. Jannaccone, *Il segreto di Orazio*, 1960), ‘진정한 호라티우스의 모습은 사적인 삶에 보임’(F. Taeger, *Charisma. Studien zur Geschichte des antiken Herrscherskults*, 1960), ‘호라티우스는 결코 절대적 아우구스투스주의자가 아님’(S. Commager, *The Odes of Horace. A critical study*, 1962), ‘정치시의 진정성에 나타난 것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신앙고백이 아닌 로마적 자부심’(E. Castorina, *La poesia d'Orazio*, 1965).

27) Solmsen(1947) 340쪽. 그는 호라티우스를 “vates”라고 부르며 이를 “선전관 *propagandist*”

과 정치 참여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호라티우스의 본심을 찾을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1956년 Pöschl은 모순되는 두 측면이 긴장을 유지하며 개인 호라티우스에게 공존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sup>28)</sup>

Pöschl의 절충론은, 호라티우스의 생애를 사적 단계와 정치적 단계, 에피쿠로스적 단계와 스토아적 단계, 비(非)로마적 단계와 로마적 단계로 나누는 등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의 전회와 전향이 있었다는 가설은 호라티우스의 서정시를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런 두 단계가 나란히 서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며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Pöschl의 모호한 병존 이론은,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주의자로 은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호라티우스의 모습을 불변의 인생관으로 놓고, 현실 참여적 정치시를 단순히 비자발적 창작으로 보는 해석을 배제한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칭송시의 화자를 호라티우스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호라티우스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때 호라티우스는 개인이 아닌 시대적 여론의 대변자라는 것이다. 『백년제 찬가』와 같은 아우구스투스 칭송시의 창작에서 ‘계관시인’ 호라티우스의 지분은 크지 않았고, 그도 다만 과거의 전범에 따라 예식과 칭송 문학의 형식적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시인 개인적 소신과 확신이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았다. 호라티우스는 시대적 대세를 전달하는 전령이었으며, 당시 대중의 마음에 가득한 감정의 대변자였다. 특히 공적 임무 앞에 사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로마적 행동 규범에 속한다고 할 때, ‘계관시인’으로서 호라티우스 역시 이런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sup>29)</sup> 그리하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대립은 호라

---

으로 이해한다.

28) Pöschl의 주장 이후 호라티우스의 시를 정치시로 해석하는 연구자들은 호라티우스의 서정시가 자발적 참여에 기인한 적극적 아부와 칭송시인지, 시인 개인의 생각과 구별되는 사회적 정치적 안녕과 질서 회복에 대한 공적 대변으로서의 시인지의 논쟁을 이어간다.

29) Pöschl(1956=1979) 145쪽, “Die Kerntatsache der horazischen Panegyrik liege darin, dass

티우스 문학의 근본적 긴장이 되며, 정치적 현실의 어둠과 대치되는 “문학과 지혜의 땅”, 종교적으로 승화된 순수하고 경건하고 좀 더 행복한 ‘시인의 세계’라는 상징 세계가 나타난다.

Pöschl의 절충론은 농촌 삶의 의미를 향락주의적 목가적 전원을 넘어 예술 창작의 영감과 원동력이라는 미학적 관점에서 호라티우스의 전원(田園)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현자-시인 *vates*’ 호라티우스의 농촌 삶이 궁극적으로 『풍자시』와 『비방시』에서 초기 서정시로 이어지는 호라티우스 창작의 힘은 행복한 삶을 설득하고 가르치려는 의지였음을 간과하고, 다만 이를 서정시 장르에 대한 시인의 문학관으로 이해한 것은 잘못이다.

한편 20세기 말에는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호라티우스가 부정적이었음을 강조하는 시각들도 등장하였다. 1993년 Lefèvre는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호라티우스의 태도에 서는, 몇몇 서정시들에서 지지의 모습이 발견되고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정적 칭송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모습”이 우세하다고 평가한다.<sup>30)</sup> 또 1995(2007)년 Lowrie는 아우구스투스가 초기 서정시들의 주요 동기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술잔치, 사랑 등 ‘오늘을 잡아라’의 정신이 지배한다고 본다. 호라티우스는 아우구스투스를 직접 호명하지도 않았고 시편 하나를 전부 그에게 헌정하지도 않았는바, 예를 들어 『서정시』 III 25를 보면, 시작에 “위대한 카이사르의 영원할 위

---

*sich in dem Preis des Soter Augustus der Dichter tatsächlich zum Wortführer einer Zeitströmung und zum Dolmetsch von Gefühlen macht, die die Herzen damals bewegten: der Sehnsucht nach Entsühnung von schwerer Schuld, nach Befreiung von dem Sündenbewusstsein, das auf der Generation lastet, die die Greuel der Bürgerkriege erlebt und verschuldet hatte, und dem Glauben, in Augustus den Erlöser und Befreier gefunden zu haben.”*

30) Lefèvre(1993) 164쪽. 한때 호라티우스도 다른 많은 사람처럼 아우구스투스가 옛 공화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점차 상황이 왕정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음이 분명하다.

업”(4행)을 노래할 것처럼 변죽을 울리지만 결국 전체의 이야기는 시적 영감에만 집중된다. Lowrie는 이런 사적 영역의 강조가 오히려 호라티우스의 정치적 입장이라고 본다.<sup>31)</sup>

근본적으로 이런 회의적 태도는 아우구스투스 개혁 정치의 한계를 호라티우스가 간파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지 모른다. 나아가 호라티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사회적 정치적 개혁과는 별개로 로마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할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였던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호라티우스의 서정시가 농촌 삶의 행복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아우구스투스주의자라는 정치적 해석에 경도된 호라티우스의 인물상에 일종의 균형추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는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에서 중요 주제로 등장하는 기쁨과 행복, 평온과 안녕, 놀이와 사랑 그리고 우정이 호라티우스가 그린 행복한 삶으로서 농촌 삶의 구성요소이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시인의 사회 참여 경향을 보여줄 것이다.

## 1.2 연구 목표와 연구 대상

이 논문의 목표는 호라티우스의 서정시에서 농촌 삶과 행복, 그리고 우정의 이념, 시인이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원리들이 가진 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호라티우스가 기원전 23년에 발간한 초기 서정시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논문의 중점은 전기(傳記)적 관점에서 호라티우스의 개별 우정 사례들을 다루는 데 있지 않고, 다만 호라티우스의 작품 내적으로 행복한 삶의 실현과 우정의 위상을 확인하는 데 있다. 『서

---

31) Lowrie(1997) 75~76쪽, Lowrie(2007) 82쪽 이하. 초기 서정시 중에서 제일 칭송 문학에 가까운 『서정시』 III 14를 놓고, Lowrie는 호라티우스가 칭송받을 대상자인 승리자 아우구스투스를 향해 시를 이끌어가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시』 I~III에 포함된 88편의 서정시들을 가난, 은둔, 우정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의 원리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정의 삶을 검토할 때는 소위 ‘초대시’라고 불리는 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초대시’는 주연(酒宴)을 노래하는 서정시(*sympotica*)에 속하는 것으로, 술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으로의 합류를 원하는 초대시의 노래다. 호라티우스의 초대시(招待詩)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연(酒宴)의 노래가 농촌 삶의 행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행복한 삶의 술잔치로 친구를 부르는 초대시는 농촌 삶의 행복을 지탱해 줄 우정을 칭송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속하는 초대시로 우리는 가수 툰다리스에게 보낸 시(『서정시』 I 17), 아우구스투스 통치기에 최고 권력자의 측근으로 활약한 막강한 정치가 마에케나스에게 보낸 시(『서정시』 I 20, III 8, III 29) 등을 검토할 것이다.<sup>32)</sup> 이로써 우리는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에서 우정이 여타 행복한 삶의 원리들 가운데 정점에 위치한다는 점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시인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sup>33)</sup>는 로마 내전이 한창일 때 청년기를 보냈고,<sup>34)</sup>

32) 우리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후기 서정시들에 포함된 초대시로는, 무용수 펠리스에게 보낸 시(IV 11), 상인 베르길리우스에게 보낸 시(IV 12)도 있다.

33) 김남우(2016) 『카르페 디엠』 163~166쪽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Fraenkel(1957) 1~23쪽을 보라. 호라티우스의 생애는 특히 『서간시』와 『풍자시』와, 수에토니우스(Suetonius, 기원후 70~140년)의 시인 전기와, 포르피리우스(Porphyrus, 기원후 3세기)의 호라티우스 작품 주석을 근거로 재구성할 수 있다.

34) 호라티우스는 기원전 65년 12월 8일에 태어났다. 『서간시』 I 20, 26~27행 “나는 롤리우스가 레피두스를 동료 집정관으로 뽑은 해에 딱 찬 44번째 12월을 맞았다. *me quarter undenos sciat implevisse Decembris / collegam Lepidum quo dixit Lollius anno.*” 롤리우스가 레피두스의 동료 집정관인 해는 기원전 21년이다. Suetonius의 기록을 보면 “루키우스 코타와 루키우스 토르콰토스가 집정관이던 해 12월 8일에 태어났다 *natus est VI Idus Decembris L. Cotta et L. Torquato.*” 생년 생월은 호라티우스의 기록과 같다. 생일에 관해서는 다만 수에

아테네 유학 도중 군사대장으로<sup>35)</sup> 42년 말까지 브루투스 밑에서 아우구스투스에 맞서 싸웠다.<sup>36)</sup> 아우구스투스의 사면을 받고 귀국한 호라티우스는 재산을 잃고<sup>37)</sup> 재무관 서기로 일하면서 시를 썼고 베르길리우스와 바리우스 등과 교제하였다.<sup>38)</sup> 그들은 기원전 38년 겨울 호라티우스를 마에케나스에게 소개하였고 그의 피호민이 되었다. 기원전 34년 마에케나스는 시골 사비눔 영지를 선물했고, 호라티우스는 경제적 안정을 찾은 직후 기원전 30년에 『비방시』와 『풍자시』 II를 발표하였고 기원전 23년 『서정시 *Carmina*』 I~III을 출판하였다. 『서정시』 I~III에 담긴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는 호라티우스의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서정시’<sup>39)</sup>였다. 이후 기원전 20년 『서간시』 I을 출판하면서 호라티우스는 서정시 문학 장르를 쓰지 않고 철학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sup>40)</sup> 이런 선언이 무색하게도, 기원전 17년 『백년제

---

토니우스가 전하는 것뿐이다. Fraenkel (1957), 22쪽 이하 참조.

35) 『풍자시』 I 6, 46~47행 “예전 로마 군단이 군사대장인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olim quod mihi pareret legio Romana tribuno.*”

36) 『서정시』 II 7은 필리피 전투에서 같이 싸운 친구 폼페이우스에게 바치는 시다. 『서간시』 II 2, 46 이하 “허나 험난한 시절에 나는 사랑스러운 그곳을 떠나, 군사의 문외한이면서 내전에 휘말려 군대에 들어갔고 우리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 훨씬 열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필리피 전투에서 패하여 쫓겨나게 되어”

37) 『서간시』 II 2, 50행 이하 “동전 한 닢 없이 비참한 꼴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과 시골 땅도 잃고 *decisis humilem pennis inopemque paterni er Laris et fundi*”.

38) 『풍자시』 I 6, 55행 이하 “예전에 위대한 베르길리우스, 또 바리우스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하였고 *optimus olim Vergilius, post hunc Varius dixere quid essem.*”

39) 『서정시』 III 1, 2행 이하 “전에 없던 노래 *carmina non prius audita*”.

40) 초기 서정시와 후기 서정시는 약 10년 정도 출판 시차를 보이는데, ‘서정시 포기 선언’(예를 들어 『서간시』 I 1, 10행 이하) 이후, 호라티우스는 문학의 사회 공동체적 역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서간시』 II라 하겠다.

찬가』, 기원전 13년경 다시 『서정시』 IV를 출판한다.<sup>41)</sup>

철학을 탐구하겠다는 공개선언 이후 서정시 장르로 돌아가기 전에 호라티우스는 철학적 탐구를 진전시켜 문학론을 발전시키는데, 기원전 14년경 『시학』과 『서간시』 II를 통해 호라티우스는 문학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친다.<sup>42)</sup> 하지만 『시학』과 『서간시』 II에서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그의 문학론은 초기 서정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서정시들’이라고 자신의 서정시에 대해 그가 가진 강한 자부심은, 나중에 출판되는 문학론이 미리 반영된 ‘새로운 서정시’에 대한 긍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행복과 우정의 노래라 할 수 있는 호라티우스의 서정시가, 그가 문학론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회적 공동체적 기여를 반영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내전(內戰)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호라티우스는<sup>43)</sup> 초기 서사시 운율의 작품

---

41) 극단적으로 『서정시』 IV를 기원전 10년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Nisbet(2007) 17쪽 이하.

『서정시』 IV 15, 6~9행 “우리 유피테르에게 파르티아의 신전 문설주에 걸렸던 빼앗긴 군단기를 찾아주었고, 전쟁을 없애고 퀴리누스 언덕의 야누스 신전을 닫았다.” 기원전 29년과 25년에 야누스 신전 문이 닫힌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Nisbet은 이 구절을 『서간시』 II 1, 255행 이하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11년 야누스 신전 문을 닫고자 하였던 시도와 연관한다.

42) 시학 304행 이하 “나는 솟돌이, 스스로 벨 수는 없는, 칼을 버리는 게 되려 합니다. 직접 쓰지는 않고 시인 과업과 의무를 가르칩니다.”

43) 호라티우스가 기원전 44년 이래 내전에 참가한 기록은 『풍자시』 I 6, 46행 이하, “예전 로마 군단이 군사대장인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그리고 『서간시』 II 2, 46행 이하, “허나 험난한 시절에 나는 사랑스러운 그곳을 떠나, 군사의 문외한이면서 내전에 휘말려 군대에 들어갔고 우리는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에 훨씬 열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필리피 전투에서 패하여 쫓겨나게 되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서정시』 II 7은 필리피 전투에서 같이 싸운 친구 폼페이우스의 귀향을 기념하는 축하연에서 부른 시다.

에 무엇보다 행복한 삶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매우 깊게 각인하였다.<sup>44)</sup> 이는 호라티우스 본인이 로마 풍자시 전통의 선배로 자주 언급한 루킬리우스와 크게 차별되는 측면인바, 둘의 개인적 취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차이의 주된 원인은 둘이 살았던 시대에 기인한다.<sup>45)</sup> 호라티우스는 오랫동안 이어진 내전으로 고통받은 세대에 속하며, 본인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시대적 격동과 갈등, 잔혹한 격돌과 다툼이 시인을 이런 철학적 물음에 천착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가벼운 마음의 장난스러운 사랑의 다툼을 다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서정시 장르를 깎아내리는 듯한 호라티우스 본인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기 서정시에서도<sup>46)</sup> 이어진다. 물론 시인은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도 행복한 삶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sup>47)</sup>

우선 ‘제2장 초기 서정시 전후의 현실 비판과 시인론’은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

---

44) 호라티우스는 그의 초기 풍자시들을 “*sermones Bionicos*”(『서간시』 II 2, 60행)라고 불렀다.

45) Kiessling-Heinze(1967) 17쪽 이하.

46) 『서정시』 I 6, 17행 이하 “우리는 잔치를, 우리는 날 세운 손톱으로 청년들에게 덤벼드는 여인들의 전투를 노래하지요. 불탈 때나 아닐 때나, 언제나 그렇듯 가벼운 마음으로.” 『서정시』 II 1, 37행 이하 “허나 짓궂은 무사여! 장난을 멈추지도, 케오스 장송곡을 연주하지도 마시고, 저와 함께 디오네의 동굴 속에서 가벼운 비파의 노래를 부르소서.” 하지만 흔히 서정시의 이런 성격 규정은 ‘거절 *recusatio*’의 문맥에서 등장한다. 『서정시』 I 6은 서사시 장르에 대한 거절이며, 『서정시』 II 1은 역사 장르에 대한 거절이다. 따라서 호라티우스 본인이 서정시를 ‘장난’이나 ‘놀이’로 부르는 경우는 대개 자조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47) Fraenkel(1957) 308쪽 이하는 호라티우스의 『서간시』 I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What is certain is that he felt an urgent need to give his time and thought to clearing his mind about the central problems of our conduct of life and the attainment of that wisdom which he had once defined as quod magis ad nos pertinet et nescire malum est and which he now defines as quod aequè pauperibus prodest, locupletibus aequè.*” 따라서 『서간시』 I의 중심 문제는 『풍자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근본적으로 현실 비판의 『풍자시』Ⅱ와 『비방시』에서 이어지는 현실 참여 문학임을 살펴본다. 이는 『시학 *ars poetica*』와 『서간시』Ⅱ를 검토함으로써, 호라티우스가 초기 서정시 창작 당시에 품었던 서정시 창작의 의도를 밝히는 것으로 가능한바, 호라티우스의 ‘훌륭한 시인 *poeta bonus*’의 이념을 확인하는 일이다. 초기 서정시 출판 이후 ‘서정시 포기’를 선언하고 서간시 장르로 전향하면서 호라티우스는 ‘유익함’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는데, 이에 따르면 서정시는 오로지 ‘즐거움’ 때문에 썼다고 주장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훌륭한 시인론에 따르면 서정시 장르에서도 이미 ‘즐거움’에 보태어 ‘유익함’을 추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우리는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가 노래한 농촌 삶이 문학적 현실 참여의 시도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계속해서 초기 서정시 이전의 작품들을 검토함으로써 내전의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하였던 호라티우스가 희망하던 행복한 삶으로서 농촌 삶을 발견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시기적으로 호라티우스가 『비방시』와 『풍자시』Ⅱ를 출판하던 때인데, 이를 통해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바, 호라티우스가 초기 서정시에 담긴 농촌 삶이 이전 작품에서 발견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있다. 여기서 중심 개념은 ‘노동 *labor*’이다. 호라티우스의 관점에서, 행복한 삶을 향한 도시의 ‘노동 *labor*’, 행복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되던 명예와 권력과 재산 등을 향한 도전과 쟁취는 처음의 의도와 달리 결국에 ‘불행한 노동 *mali labores*’과 ‘걱정 *negotium*’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마침내 끔찍한 죽음의 분열을 이끌고 왔다고 할 때, — 적어도 호라티우스가 살았던 내전 시대는 그러하였다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람들은 또 다른 극단, 이를테면 아무런 노동도 없으며 고통도 없는 황금시대의 어떤 곳, 현실과 정반대 극단에 위치하는 행복의 섬을 찾겠지만,<sup>48)</sup> 만일 행복한 삶을 향한 노력이 이런 곳을 향한다면 그 또한 공허한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48) 예를 들어 『비방시』 XVI 41행 이하, “우리를 행복의 섬을 감싸 흐르는 오케아노스가 기다린다. 행복의 섬을 우리는 찾아간다. 풍요로운 섬을”을 보라.

도피적 몽상의 중간에 놓인 호라티우스의 농촌 삶은 건강한 ‘노동 labor’이 인간 모두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삶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제3장 초기 서정시에서 행복한 농촌 삶의 원리’는 행복이 실현되는 농촌 삶의 원리들을 고찰한다. 『비방시』와 『풍자시』의 농촌 삶은 초기 서정시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비방시』와 『풍자시』 II를 거치면서 그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행복의 원리, 다시 말해 농촌 삶의 행복과 원리를 호라티우스가 서정시 장르를 통해 설득하고 가르치려 하였음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로마 송가(『서정시』 III 1~6)다. 로마 송가에서 농촌은 아우구스투스가 제시한 ‘조상들의 모범’이 요구하는 덕목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드러난다. ‘조상들의 모범’과 관련된 덕목들을 아우르는 농촌 삶의 덕목은 다시 ‘가난’과 ‘은둔’의 덕으로 집약된다. 가난해 보이는 농촌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평온과 고요 가운데 자족을 누리는 삶이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궁벽해 보이는 농촌 삶은 사실 세상의 욕망과 갈등과 고통을 벗어난 삶이었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운 삶이었다. 농촌 삶의 가난과 은둔의 원리들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가난으로 행복하나니”(『서정시』 II 16), “죄는 티끌만큼도 없는 삶”(『서정시』 I 22)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주연(酒宴)으로의 초대시(招待詩)들을 분석하고자 하는바, 제3장에서 다루는 ‘가난’과 ‘은둔’의 농촌 삶에서 행복이 실현되는 순간인 술잔치로 시인은 친구를 부른다. 이때 마지막 행복한 삶의 원리인바 ‘우정’이 실현된다. 술잔치는, 농촌 삶이 가져다준 절제와 중용을 토대로 우정이 실현되는 기회이며 궁극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순간을 나타낸다.<sup>49)</sup> 먼저 ‘가난’과 ‘은둔’의 행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

49) 『서정시』 II 3은 술자리가 펼쳐지는데, 절제와 중용의 덕을 권고한다. “힘겨운 일에도 평상심을 굳게 지키고, 감당치 못할 즐거움은 좋다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 절제하라. 필멸의 델리우스! 종일을 슬픔을 살아갈 때거나, 멀리 풀밭에 누워 축제의 날을 보내며, 표를 달아 안에 넣어둔 팔레르눔을 가져다 즐길 때라도. 거기 큰 소나무와 하얀 포플루스는 나뭇가

주연(酒宴)을 노래한 “세상 멀리 나무그늘 아래”(『서정시』 I 32)와 “아이야, 페르시아 산”(『서정시』 I 38)를 살펴볼 것이고, 시인이 떠나온 도시의 주연, 그 애욕과 욕망에 고한 작별인사를 노래한 “뤼디아야, 네가”(『서정시』 I 13)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초대시로 뽑은 “날랜 걸음의 파우누스가”(『서정시』 I 17), “누추한 사비눔”(『서정시』 I 20), “삼월 초하루”(『서정시』 III 8), “그대를 위하여”(『서정시』 III 29)를 살펴볼 것이다. 삶이 가져오는 온갖 슬픔과 시련에 흔들리거나 온갖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버리는 일 없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기우는 일 없이, 늘 한결같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농촌 삶이 주연의 노래를 통해 제시된다. 그곳으로 사랑에 상처 입고 시름을 잔뜩 품은 여인, 혹은 정치와 국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권력가를 초대한 뜻은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가르치고 설득하려는 우정에서 기인하는데, 친구와 함께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농촌 삶이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술잔치는 우정과 노래가 어우러진, 에피쿠로스학파의 관점에서 호라티우스에게 쾌락의 정점이 되는 아름답고 찬란한 삶의 한순간이다. 초대시는 행복의 절정으로 친구를 초대하는 노래인바, 이런 쾌락의 순간에 친구들과 함께함의 우정이 빠질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지를 함해 손님 맛을 그늘을 드리우고 굵이쳐 흘러가는 맑은 강물은 도망치듯 길을 재촉한다. 이리로 포도주와 향유, 금방 시드는 아름다운 장미를 가져오라 명하라.” Voit(1975) 425 쪽, “*Horaz kennt aber sehr wohl die Zufriedenheit mit wenigem(contentus parvo, sat. II 2, 110), die nicht messbar ist nach Scheffeln und Litern, die ihm aber sein Sabinum —wie erstmals den Menschen des goldenen Zeitalter —reichlich vermittelt, vorausgesetzt, dass der Mensch selber die rechte temperies besitzt, die aequa mens, die selbst im Glück, ab insolenti temperata laetitia, die rechte Mitte wahrt.*”

### 1.3 행복한 삶에서 우정의 역할

사회 정치적으로 정의(正義)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의 축이라고 할 때, 호라티우스는 초기 서정시를 통해 사적 영역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우정(友情)을 통한 행복의 실현을 가르치려 하였음을 이 논문은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자면, ‘애정 *amor*, φιλεῖν’에서 유래하는 ‘우정 *amicitia*, φιλία’은 호의와 호감에 따른 개인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생사를 함께한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가 우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희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사람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까지도 ‘우정 φιλία’에 포함된다.<sup>50)</sup> 또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학문적 생활 공동체를 우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희랍의 ‘우정 φιλία’과 달리, 가족 관계 등은 로마의 ‘우정 *amicitia*’에 포함되지 않는데, 로마의 우정은 정서적 연대만큼이나 상호 호혜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sup>51)</sup> ‘친구 *amicus*’는 로마와 친교를 맺고 있는 외국 정부나 그 수장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또 문학적 후원자인 부유한 유력인사들과 그들의 호의를 받은 시인들의 관계를 흔히 우정으로 이해하였다. 마에케나스는 해방노예의 아들 호라티우스를 ‘친구 *numerus amicorum*’로 받아주고, 호라티우스는 마에케나스의 ‘동거인 *convictor*’이 되었는데,<sup>52)</sup> 마에케나스와 호라티우스의 관계는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호혜적 관계에서 정서

---

50) 아리스토텔레스(2011)의 번역자들은 ‘우정 φιλία’을 ‘친애’로 번역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용어 통일을 위해 일단 ‘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1) *Georges Handwörterbuch*, *amicus* 항목을 보라.

52) 『풍자시』 I 6, 45행 이하. Fraenkel(1957) 15쪽 이하는 수에토니우스의 언급을 인용하여, 마에케나스와 아우구스투스가 호라티우스와의 우정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준다. “*ac primo Maecenati, mox Augusto insinatus non mediocrem in amborum amicitia locum*



적 친밀함과 애정의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sup>53)</sup> 키케로가 제시한 우정의 대표 사례는 라일리우스와 스키피오의 경우이며,<sup>54)</sup> 키케로는 라일리우스와 스키피오처럼 선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여, 진정한 우정을 “의지와 열정과 생각의 완벽한 일치 *voluntatum studiorum sententiarum summa consensio*”라고 정의한다.

우정이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그것이 곧 행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 고유의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sup>55)</sup>이라고 정의하고, 개인의 윤리 도덕적 문제 차원에서 용기, 절제, 온화, 정의 등과 함께 탁월성의 하나로서 우정을 행복의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하며,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두 권(제8권과 제9권)을 할애하여 매우 비중 있게 논의한다.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는 삶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sup>56)</sup>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행복은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바, 그것은 동시에 도시 국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회 정치적 문제이며, 따라서 올바른 시민을 교육하는 일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sup>57)</sup>

헬레니즘 시대의 희랍세계에서, ‘국가 질서의 몰락’으로 인해 행복은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축소되어, 행복은 덕의 문제나 쾌락의 문제로 다루어졌다.<sup>58)</sup> 스토아주

---

*tenuit.*”

53) 나중에 다루는 『서정시』 I 20, 5행 “소중한 마에케나스 *care Maecenas*”.

54) Cicero, *Laelius* 4, 15. 그리고 17, 61에서는 “따라서 규정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는바, 흠잡을 데 없는 두 인물이 친구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매사에 의견과 의지의 일치가 있다.”

55) *EN* I 13, 1102a5 이하, 아리스토텔레스(2011) 46쪽 이하.

56) *EN* VIII 1, 1155a5 이하, 아리스토텔레스(2011) 277쪽 이하.

57) *EN* X 9, 1179b33 이하, 아리스토텔레스(2011) 379쪽 이하.

58) Forschner(1982) 170쪽 이하, “*Die hellenistische Ethiken sind (nach der Zerstörung der Polisordnung) gekennzeichnet durch den Versuch, den Begriff des Glücks so bestimmen,*

의자들은 덕을 강조하였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도 개인 덕성의 도야를 중요시하였는바, 인간 덕성을 온전히 지켜낸 현자로서 그는 시대의 불안과 고통을 견뎌내는, 근심과 걱정애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다지도록 설파하였다.<sup>59)</sup> 세네카에게 행복한 삶은 고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을 지켜 흔들리지 않는 항덕(恒德)에서 생겨나는 “평정과 영

---

*dass seine Realisierung unter allen äußeren Umständen für jeden überlegung- und entscheidungsfähigen Menschen möglich erscheint. Dies führt zu einer Verinnerlichung des Glücksbegriffs.”* Holzberg(1994) 29쪽 이하, “*Glück, so lernte das Individuum jetzt von den hellenistischen Moralphilosophen, könne es angesichte der zahlreichen Widrigkeiten des Daseins nur finden, wenn es sich vollkommen freihielt von Affekten, die durch das Streben nach dem Unverfügbaren —z. B. Macht und Reichtum —entstünden.”*

- 59) 세네카도 물론 우정을 중요시하였다. 세네카(2016) 275쪽, 『평상심에 관하여』 7, “참되고 진심 어린 우정보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도 알고 있음이 당신 혼자만의 앎보다 두려울 것이 없으며, 그들과의 대화로 고독은 가벼워지며, 그들의 의논으로 계획이 생겨나고, 그들의 활기로 슬픔이 달아나며, 그들의 얼굴은 위안이 됩니다.” Sen. Epist. 81.12 “*solus sapiens scit amare. solus sapiens amicus est.*” Sen. Epist. 9. 3 “*Illud nobis et illis commune est, sapientem se ipso esse contentum. Sed tamen et amicum habere vult et vicinum et contubernalem, quamquam sibi ipse sufficiat.*” Sen. Epist. 9.5 “*Ita sapiens se contentus est, non ut velit esse sine amico, sed ut possit. et hoc quod dico >possit< tale est: amissum aequo animo fert.*” 하지만 『행복한 삶에 관하여』에서 우정이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네카는 우정을 행복한 삶의 필수적 사항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네카(2016) 218쪽, 『행복한 삶에 관하여』 3, “행복한 삶은 자신의 본성에 맞추는 삶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정신이 건강하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으로 정신이 강하고 힘이 있으며, 또한 훌륭하게 참아내고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며, 자신의 몸과 그 주변을 돌보되 과하지 않으며, 삶을 이루는 여타 것들에 관심을 두되 추앙하지 않으며, 운명의 선물을 이용하되 끌려다니지 않을 때 만나게 됩니다.”

원한 평은 *securitas et perpetua tranquillitas*”이었다.<sup>60)</sup>

한편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행복을 ‘쾌락’으로 환원하였고, 쾌락을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선(最高善)으로 놓았다.<sup>61)</sup> 그들에게 최고의 쾌락은 육체적 고통의 해방과 정신적 불안의 해소(*atraxia*)를 의미하였다.<sup>62)</sup> 철학은 고통과 불안의 원인인 어리석음을 몰아내기 위한 처방을 의미하였다.<sup>63)</sup> 이를 지키는 가장 확고한 보루는 우정이었다.<sup>64)</sup> 우정은 일단 쾌락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을 두고 친밀감이 쌓이면 유용성과 상관없이 유지된다.<sup>65)</sup> 이로써 그들은 궁극적으로 학문적 생활 공동체인 정원(*kepos*)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키케로의 말을 빌리면 “현자들의 공동체 *foedus quoddam sapientium*”인바, 행복한 삶을 위해 이보다 적합한 것은 없다.<sup>66)</sup> 우정은 지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마련하였던 모든 것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풍성하고, 무엇보다 즐거운 것이다.<sup>67)</sup> 에피쿠로스는 메노이케우스에게 보

---

60) Seneca, *Ep.* 92.3.

61) Epicurus, *Men.* 128 “διὰ τοῦτο τὴν ἡδονὴν ἀρχὴν καὶ τέλος λέγομεν εἶναι τοῦ μακαρίως ζῆν.” Cicero, *De finibus* I 29 “*hoc Epicurus in voluptate ponit, quod summum bonum esse vult, summumque malum dolorem...voluptatem appetere et dolorem aspernari.*”

62) Epicurus, *Men.* 122 οἰᾶ. *KD* 3 “ὁρος τοῦ μεγέθους τῶν ἡδονῶν ἢ παντὸς τοῦ ἀλγοῦντος ὑπεξαίρεσις.”

63) Cicero, *De finibus* I 43 “*sapientia est adhibenda, quae et terroribus cupiditatibusque detractis et omnium falsarum opinionum temeritate derepta certissimam se nobis ducem praebeat ad voluptatem.*”

64) Epicurus, *KD* 28; Cicero, *De finibus* I 68.

65) Epicurus, *GV* 23.

66) Cicero, *De finibus* I 70.

67) Epicurus, *KD* 27. Cicero, *De finibus* I 65 “*De qua(Sc. amicitia) Epicurus quidem ita dicit. omnium rerum quas ad beate vivendum sapientia comparaverit nihil esse maius amicitia,*

낸 편지를 마무리하며, 행복의 원리를 깊이 생각해볼 것을 권하면서 이런 철학을 친구와 함께할 것 역시 당부한다. “그러므로 이것들, 또 이것들과 관련된 사안들을 밤낮으로 심사숙고하라. 그대 홀로, 그리고 그대를 닮은 그대 친구와 함께 πρὸς τε τὸν ὅμοιον σεαυτῷ.”<sup>68)</sup>

에피쿠로스는 그와 그의 친구들이 영위하는 우정이 가져온 최고의 쾌락과 가장 완벽한 안전이 깃든 곳으로 은둔한다. 우정은 에피쿠로스 공동체를 구성하고 단단히 묶어주는 원리였다.<sup>69)</sup> 사람들은 사방에서 에피쿠로스를 찾아왔고 정원(kepos)에서 함께 살았다.<sup>70)</sup> 이렇게 모인 친구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sup>71)</sup> 정원에서 에피쿠로스 현자들의 삶은 마치 신들의 회합과도 같았는데, 그들은 신적인 평온과 자유를 누렸다고 전한다. 정원에 머문다면, “당신은 결코 깨어서든 잠이 들어서든 혼란에 빠지지 않으며 인간들 가운데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sup>72)</sup> 에피쿠로스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성과 쾌락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다. 에피쿠로스에게 쾌락으로 가득한 삶이란 이성적으로 살아감과 같은 것을 의미하였다.<sup>73)</sup> “우리는 웃으며 철학을 하며 집안을 돌보고 여타의 일들을 돌보되, 진정한 철학의 토론이 집에서 울려 퍼지도록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sup>74)</sup>

---

*nihil uberius, nihil iucundius. nec vero hoc oratione solum, sed multo magis vita et factis et moribus comprobavit.”*

68) Epicurus, *Men* 135. “친구”를 “ὁ ὅμοιος σεαυτῷ”로 설명하는 것에 관해서는 플라톤 『뤼시스』 213e 이하를 참조하라.

69) Cicero, *De finibus* I 20 “*quam magnos quantaque amoris conspiratione consentientis tenuit amicorum greges!*”

70)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철학자들의 생애』 X 10.

71)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철학자들의 생애』 X 9.

72) Epicurus, *Men* 135.

73) Epicurus, *Men* 132; KD 5 = GV 5을 보라.

로마 공화정 말기를 살았던 키케로를 보면, 물론 그는 국가가 행복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대와 근간임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sup>75)</sup> 말년의 많은 철학적 대화편의 배경으로 한적한 시골 별장에 모인 친구들의 모임을 택하였다는 점은 키케로 역시 우정을 행복한 삶과 연관시킨다는 인상을 준다.

키케로의 다음 세대인 호라티우스가 살아간 국가는, 과거보다 더 뚜렷하게 원로원 중심의 공동체가 붕괴하고<sup>76)</sup> 과거보다 더 확실하게 한 개인의 위엄과 권위에 종속된 국가였다.<sup>77)</sup> 물론 아우구스투스는 평화와 안정을 로마에 되찾아주었고 ‘국가 재건’에

---

74) Epicurus, *GV* 41.

75) 대략 기원전 51년 이전에 쓰인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을 보라. 키케로가 기원전 45년 쓴 『최고선악론』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이 다룬 행복한 삶의 문제를 논하는 철학적 대화편으로, 우리는 이 대화편이 국가 소멸이라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행복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키케로가 행하는 헬레니즘 철학의 검토라고 평가할 수 있다.

76) 우리는 이런 모습을 키케로가 기원전 46년부터 카이사르 앞에서 행한 세 개의 연설문, 즉 『퀸투스 리가리우스 변호』, 『마르쿠스 마르켈루스 변호』, 『데이오타루스 왕 변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카이사르 연설이라고 불리는 이 연설문들은 카이사르가 내린 사면조치에 감사하는 칭송연설 혹은 사면을 청하는 탄원연설로 분류될 수 있다. 키케로의 카이사르 연설문들은, 국가가 한 개인의 품성과 성격에 의지하게 될 로마 공동체의 운명을 예언하는 듯하다. 실제로 카이사르의 자비와 관용, 엄정함과 공정함이 국가 통치의 핵심동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77) 호라티우스 『서간시』 II 1, 1~4행 “당신이 홀로 떠맡아 많은 일을 수행하시니, 이탈리아를 군대로써 지키며 윤리로써 단련시키며 법률로써 바루시니, 긴 편지로 당신의 시간을 빼앗아 공익에 해를 끼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카이사르여!” 이 편지는 기원전 14년경에 출판된 것으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에 호라티우스가 일종의 반감이나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치적에 감사하는 마음이 깃들어있다고 해석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아우구스투스의 권위에 따라 국가가 통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력하였다. 그런 일환으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18년 두 법률을 통과시킨다. “방종을 규제하고 도덕성을 확립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 덕성의 기초를 회복시키려고” 신분 간의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과 간통에 관한 율리우스 법이 개정되었다.<sup>78)</sup>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는 드디어 국가적 정치적 차원을 넘어 개인의 도덕과 윤리로 확대되었다. 기원전 17년 아우구스투스가 주관한 백년제에서 부른 『백년제 찬가 *carmen saeculare*』에서 호라티우스는 정치적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이룩한 아우구스투스의 공로를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호라티우스 초기 서정시들은 기원전 23년에 출판된 것으로, 권력자 아우구스투스가 국가적 정치적 안정과 평화에 이어 사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정치적 규율과 통제를 시작하기 이전이다.<sup>79)</sup> 그리고 사실 초기 서정시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호라티우스는 행복한 삶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것은 미래의 아우구스투스인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는 악티움 해전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아우구스투스가 평화가 깃들기 이전부터 호라티우스는 『풍자시』와 『비방시』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행복한 삶을 그려보았으며, 이것은 그의 초기 서정시들에 그대로 반영된다. 호라티우스는 국가적 정치적 영역과 멀리 떨어진 농촌 삶에서 행복을 찾았는데,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행복한 삶을 의미하였다. 도시적 탐욕이 사라진 농촌에서 호라티우스에게 행복한 삶을 지켜주는 보루는 우정이었다.

---

78) 로널드 사임(2006) 제2권 131쪽 이하.

79) 김덕수(2013) 228쪽 이하.

## 2. 초기 서정시 전후의 현실 비판과 시인론

호라티우스는 『풍자시』와 『비방시』에서 현실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비판하며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현실의 대안적 삶으로 농촌 삶을 발견하였다. 호라티우스는 행복한 농촌 삶은 로마 내전의 혼란과 고통으로 각인된 현실을 ‘노동 *labor*’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발견한다. 행복을 향한 도시의 ‘노동 *labor*’, 행복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되던 도전과 쟁취는 처음의 의도와 달리 ‘불행한 노동 *mali labores*’으로 귀결되고 끔찍한 시련과 죽음이라는 분열을 이끌고 왔다는 것이 호라티우스의 현실인식이고, 적어도 호라티우스가 살았던 내전 시대는 그렇게 볼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람들은 아무런 노동도 고통도 없는 황금시대, 현실과 정반대 극단에 위치하는 행복의 섬을 찾는다.<sup>1)</sup> 고통의 현실과 몽상적 도피의 중간에서 호라티우스는 행복한 농촌 삶을 발견한다. 농촌 삶에는 ‘노동 *labor*’은 인간 모두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힘으로 드러난다.

초기 서정시는 『풍자시』와 『비방시』에서 발견된 농촌 삶을 진지하게 — 그렇다고 심각하지도 무겁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 가르치고 설득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현자-시인 *vates*’이라는 시인 호라티우스의 자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농촌 삶의 발견(『풍자시』와 『비방시』)에 이어 농촌 삶으로의 설득과 초대(초기 서정시)는 시인의 현실 참여적 연속성을 보여준다. 물론 초기 서정시의 현실 참여적 모습은 문학 비평적 후기 저작인 『서간시』Ⅱ와 『시학』에서 천명된 ‘훌륭한 시인 *poeta bonus*’ 이념을 다시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에 투사할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 초기 서정시에서 호라티우스는 서정시 장르를 술잔치와 사랑의 노래라고만 말하였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의 서정시

---

1) 예를 들어 『비방시』 XVI 41행 이하, “우리를 행복의 섬을 감싸 흐르는 오케아노스가 기다린다. 행복의 섬을 우리는 찾아간다. 풍요로운 섬을”을 보라.

2) 『서정시』 I 1, 35행 “*quod si me lyricis vatibus inseres*”.

에 현실 참여적 ‘유익함’을 보태려 하였음은 ‘훌륭한 시인 *poeta bonus*’ 이념을 통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 2.1 훌륭한 시인과 현실 참여

『시학 *Ars poetica*』<sup>3)</sup>을 포함하여 『서간시』 II의 편지들은 호라티우스의 시인론과 문학론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인 *poeta bonus*’ 이념을 보여주는 후기 작품이다. 운문의 서간시이긴 하지만 시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에 대해 호라티우스가 가진 생각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다.<sup>4)</sup>

이 편지들은 키케로의 연설가론처럼 논증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데, 연설가로 이름을 떨친 키케로는 수사학 저작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설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였다. 연설술은 때로 국가를 건설하고 전쟁을 끝내고 인간 사회를 굳건히 하고 더없이 경건한 우정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 더없이 심대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sup>5)</sup> 이에 키케로는 진정한 연설가

---

3) 이런 명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퀸틸리아누스로 보인다(*Institutio oratoria* VIII 3, 60).

4) 첫 번째 편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서간문은 아르메니아 원정을 떠난 티베리우스를 수행한 율리우스 플로루스에게 보내는 것이며, 『시학』은 피소 부자에게 보낸 것이다. 세 편의 편지는 통치자와 시인, 로마의 문학 열풍, 희랍적 전통과 로마적 수용, 로마의 시인 전통, 훌륭한 시인의 덕목, 시를 쓰는 기술, 시인의 임무와 사회적 역할 등을 논의한다.

5) *De Inventione* I 1 “*Saepe et multum hoc mecum cogitavi, bonine an mali plus attulerit hominibus et civitatibus copia dicendi ac summum eloquentiae studium.*” Brittain(2001) 298 쪽 이하를 따르면, 기원전 2세기 후반의 모든 철학 유파는 수사학에 대해 공통으로 적대감



혹은 “완벽한 연설가 *perfectus orator*”<sup>6)</sup> 이념을 천명하고, 연설술이 변호와 변론 이상의 더 큰 사회적 책무를 짊어져야 함을 밝혔다. 진정한 연설가는 개인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연설술은 국가 이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철학자들도 공동체의 보편적 선과 지혜를 탐구하지만, 철학자들의 사변만으로 보편적 선이 실현되지는 않는다.<sup>7)</sup> 키케로가 보기에, 철학자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과 연설로써 공동체의 보편적 선을 지향하는 연설가가 완벽한 연설가라고 할 수 있으며,<sup>8)</sup> 완벽한 연설가는 철학과 수사학, 내용과 형식, 실질과 언어를 통일시키는 사람이다.<sup>9)</sup>

---

을 가졌으며, 이는 플라톤의 수사학 비판과 맥락을 같이한다(*De oratore* I 45~47 참조). 하지만 점차 철학 유파들의 수사학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는데, 심지어 아카데미아 학파에서도(*ex Academia rhetor*) 그러하였다(*De oratore* III 75). 아카데미아 학파의 일원으로 미트리다테스 전쟁 중 로마로 망명한 필론도 수사학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가졌는데, 그는 『투스쿨룸 대화』 II 9에 따르면 키케로의 스승으로 수사학과 철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Brittain(2001) 342쪽 “*Carneades had considered philosophy a form of rhetoric; Philo took rhetoric to be a popular form of philosophy.*”

6) Cicero, *De Oratore* I 33 등.

7) Cicero, *De re publica* I 2 “덕은 그 실제적 발휘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덕의 발휘에 있어 최고의 것은 국가의 통치인바, 저들(철학자들)이 방구석에서 외쳐대는 것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하는 데 있다.”

8) Bees(2010) 202쪽 이하 참조. Cicero, *De Oratore* III 59 “*Sed quod erant quidem eique multi, qui aut in re publica propter ancipitem, quae non potest esse seiuncta, faciendi et dicendi sapientiam florent.*”

9) 이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래로 소피스트들에 대해 제기된 수사학과 도덕의 연관성 문제이며, 키케로의 입장은 이소크라테스 이래로 진작부터 확인된 수사학의 사회적 역할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키케로는 소크라테스가 철학과 수사학을 분리한 점에 대해 비판적이다(*De Oratore* III 61). 이소크라테스는 *Antidosis* 67에서 “모든 연설은 덕과 정의를 지향

‘완벽한 연설가’에서 보이는 ‘연설술 *copia dicendi*’와 ‘철학 *sapientia*’의 조화와 결합을 주장하는 키케로의 수사학 전통을 반영하여,<sup>10)</sup> 『서간시』 II와 『시학』에서 호라티우스의 훌륭한 시인 이념은 ‘말의 능력 *copia dicendi*’와 ‘지혜 *sapientia*’의 통일을

---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Jaeger, *Phaideia* III, 110쪽 “플라톤적 의미의 철학이 아니라 수사학이 이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정치 사회적, 도덕적 시대 이념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여 이를 인민 대중의 상식으로 만들 수 있는 정신적 형식”이었다. ‘최고 연설가’의 교육과 관련하여 연설술은 ‘인간 *Humanitas*’을 이해하는 모든 학문과 관련된다. 키케로, *De Oratore* III 127 이하 “*nec solum has artis, quibus liberales doctrinae atque ingenuae contineretur, geometriam, musicam, litterarum cognitionem et poetarum atque illa, quae de naturis rerum, quae hominum moribus, quae de rebus publicis dicerentur*”. *De Inventione* I, 1 “*Ac me quidem diu cogitatem ratio ipsa in hanc potissimum sententiam ducit, ut existimem sapientiam sine eloquentia parum prodesse civitatibus, eloquentiam vero sine sapientia nimium obessen plerumque, prodesse numquam*.” *De Oratore* I, 33 “*perfecti oratoris moderatione et sapientia non solum ipsius dignitatem, sed et privatorum plurimorum et universae rei publicae salutem contineri*.” *De Oratore* III 19 “*Nam cum omnis ex re atque verbis constet oratio, neque verba sedem habere possunt, si rem subtraxeris, neque res lumen, si verba semoveris*.” *Orator* 14 “*sine philosophia non posse effici quem quaerimus eloquentem*.”

- 10) 키케로의 ‘*orator perfectus*’ 이념을 호라티우스가 수용하였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Grant-Fiske(1924)는 키케로와 호라티우스의 여러 공통점을 입증하였는데, 이런 공통점은 키케로와 호라티우스의 연관성을 추론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Brink(1975) 101쪽 이하 “*There is no sign that it is he [=Horace] who is transforming Cicero’s or indeed any rhetorical theory into a poetic one*.” Brink는 호라티우스와 키케로의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키케로의 『연설가』와 호라티우스의 『시학』이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Brink(1963), 43쪽 이하는 『시학』의 *poema* -*poesis* -*poeta* 삼분 구성을 근거로 호라티우스가 파로스의 네오프톨레모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제시한다.<sup>11)</sup>

호라티우스가 ‘훌륭한 시인 *poeta bonus*’ 이념을 검토한 것은 『서간시』 II<sup>12)</sup>와 『시학』에서인데, 이는 『서간시』 I 1의 서정시 포기 선언과 연관된 일이었다. 호라티우스는 서정시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sup>13)</sup> 문학 장르를 바꾸어 서정시 창작을 그

---

11) Brink(1963) 15쪽 이하. “*A reading of the commentaries of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even of the eighteenth, readily shows that the Aristotelian background and the rhetorical affiliation of the Ars were then commonplaces.*” 예를 들어 수사학의 *inventio*, *dispositio*, *elocutio*, *memoria*, *actio* 가운데 *inventio*, *dispositio*(=*ordo*), *elocutio*(=*facundia*)가 시학의 앞부분에서 다루어지며, 또 *docere*, *delectare*의 문제도 그러하다.

12) 플로루스는 티베리우스의 원정에 참여하여 기원전 19년 10월 로마로 돌아온다. 따라서 플로루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기원전 19년 이전에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고, 플로루스에게 보낸 편지와 『시학』은 『서간시』 II 1보다 먼저 세상에 나와 있었다. 수에토니우스가 전하는바 아우구스투스가 호라티우스의 편지들(*sermones*)를 읽고 자기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언짢아하였다는 것이다. “*sermones*”를 Fraenkel(1957) 383쪽은 플로루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시학』이라고 보았다. Rudd(1989) 1쪽은 다른 어떤 편지들이며 『시학』은 아마도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Nisbet(2007)은 『서간시』 II 1, 255행 이하 “평화의 수호자 야누스 신의 문을 잠근 문고리를 당신을 선두로 파르티아를 겁주는 로마를 내가 원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래하였을 겁니다”를 기원전 11년 제안되어 이후 투표로 부결되었는바, 야누스 신전 문을 닫고자 하였던 시도와 연관한다.

13) 우리는 『서간시』 II와 『시학』에 언급된 ‘서정시 포기 선언’을 『서간시』 I 1에 언급된 ‘서정시 포기 선언’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서간시』 II 2, 24행 이하(*non mittam carmina*)와 『시학』 306행 이하(*nil scribens ipse*) 등은 서정시 포기 선언이다. 예를 들어 Günther(2013, 48쪽) 등 일부 학자는 이를 근거로 『서정시』 IV가 이들보다 먼저 쓰였다고 보는데, 이 경우 『서간시』 II와 『시학』이 호라티우스의 마지막이 작품이 된다. Rudd(1989) 21쪽은 적어도 『시학』은 『서정시』 제2권보다 나중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원전 20년의 서정시 포기 선언이 — 기원전 17년의 『백년제 찬가 *Carmen saeculare*』은 포기 선언의 번복이지만 이를 예외로

만두고, 다시 옛 풍자시와 같은 운율로 돌아가 발표한 『서간시』 I 1의 초입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시와 나머지 장난을 그만두렵니다. 무엇이 바르고 옳은지 나는 그것만을 묻고 따지렵니다.”<sup>14)</sup> 호라티우스는 지금까지 그가 노래한 ‘시’를 ‘장난 *ludicra*’ 혹은 장난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그만두고, 앞으로 올바른과 옳음 등의 철학적 도덕적 문제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철학적 도덕적 문제에 전념한 결과물이 바로 최초의 서정시 포기 선언의 담긴 서간시를 포함한 첫 번째 서간시집이다. 사실 호라티우스의 초기작인 풍자시들도 웃음과 비판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도덕적 훈계를 다루었고, 도덕적 흠결을 질책하고 비방하던 비방시들도 근본적으로는 철학적 도덕적 성찰을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서정시라는 문학 장르의 시도 이후, 다시 호라티우스는 그에게 익숙한, 그를 유명하게 하였으며, 그를 마에케나스에게로 이끌었던 일상 어투의 문학 장르로 돌아온 것이다.

사실 초기 서정시들에서 보면, 실제로 호라티우스는 서정시라는 문학 장르를 ‘장난’이라고 부르고 있다.<sup>15)</sup> 그런데 이런 서정시 장르를 ‘장난’이라고 명명하는 경우를 보면 ‘거절의 변명 *recusatio*’에서였다. 아우구스투스를 돕는 아그리파의 업적을 노래하는 서사시를 지으라고 부탁하는 마에케나스에게, 혹은 카이사르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역사를 쓰라고 부탁하는 마에케나스에게, 혹은 필리피 전투를 포함하여 내전사를 기록한 폴리오에게, 호라티우스는 자신을 가리켜 ‘장난’의 서정시를 쓰는 자이며

---

한다면—『서간시』 II와 『시학』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호라티우스는 『서간시』 II와 『시학』 출판 이후 포기하였던 서정시 장르에 다시 시도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14) 『서간시』 I 1, 10행 이하.

15) 『서정시』 III 3, 69행 “장난을 일삼는 뉘라”. 『서정시』 II 1, 37행 “짓궂은 무사여”. 『서정시』 II 12, 13행 이하 “무사 여신은 내가 달콤한 노래를, 밝게 빛나는 눈망울을, 서로의 사랑으로 믿음 깊은 가슴을 여주인 뉘킴니아에게 노래하길 원하였다.” 『서정시』 I 6, 17행 이하 “우리는 잔치를, 우리는 날 세운 손톱으로 청년들에게 덤벼드는 여인들의 전투를 노래하지요.”

“가벼운”<sup>16)</sup> 노래밖에 부를 줄 모른다고 말한다. ‘장난’밖에 할 줄 모르는 시인에게 서사시나 역사는 너무나 과한 요구라는 것인데, 그가 말한 ‘장난’은 조심스러운 거절과 능청스러운 사양의 자세를 취한 자조적 언급임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철학적 서간시를 쓰겠다면서 서정시 장르를 지칭하여 ‘장난’이라는 명칭을 언급할 때 호라티우스의 태도가 너무나 숙연하고 진지하여서, 그의 서정시가 실제 ‘장난’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의 말과 달리 실재를 보면, ‘가볍고 즐거운’ 서정시를 통해 호라티우스가 무언가 행복한 삶에 대한 진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한쪽에서 보면 서정시는 호라티우스 본인의 말처럼 ‘장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문학 장르였고, 다른 쪽에서 보면 호라티우스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삶의 모습, 그런 삶을 구성하는 행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학 장르였다. 만일 실제로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들이 장난이었고, 그래서 후기 서정시들에서는 시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자각하고 ‘장난’이 아닌 무언가를 호라티우스가 보여주었다고 가정할 때, 호라티우스의 후기 서정시들이 철학적 도덕적 성찰로의 전회 이후에 이루어진 서정시의 재시도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너무나 정치적 선전과 아부가 두드러지고, 반면 초기 서정시들이 오히려 삶과 행복에 관해 좀 더 철학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서간시』 제1권에 천명된 서정시 포기 이후 호라티우스는 그가 말한 대로 철학적 도덕적 성찰의 『서간시』 제1권과 문학적 수사학적 숙고의 『서간시』 제2권이 발표한다. 호라티우스는 『서간시』 제2권에서 서정시 포기의 배경과 이유를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서정시 포기 선언 이후 훌륭한 시인 이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서간시』 제2권에서 다시 언급되는, 『서간시』 제1권의 서정시 포기 선언과 연관된 시행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우구스투스에게 보낸 『서간시』 제2권 첫 번째 편지에

---

16) 『서정시』 II 1, 40행.

서<sup>17)</sup> 호라티우스는 자신을 두고 “앞으로 다시 시는 한 줄도 쓰지 않겠다던 나”<sup>18)</sup>라고 밝히고 있다. 편지의 끝에서 발견되는 호라티우스의 이런 거절 변명과<sup>19)</sup> 아우구스투스의 양해도 『서간시』 제1권의 서정시 포기 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sup>20)</sup> 또 플로루스에게 보내는 『서간시』 제2권 두 번째 편지 — 이 편지는 『서간시』 제1권과 같은 시기에 쓰였다 — 의 서두에서 호라티우스는 멀리 원정을 떠난 플로루스가 서정시들(*carmina*, 25행)을 받으리라 기대하였겠지만, 서정시는 물론이려니와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sup>21)</sup> 같은 편지에서 그는 또 이렇게 적고 있다(102행 이하).

---

17) Fraenkel(1957) 383쪽. 『서간시』 II 2와 『시학』 등을 읽은 아우구스투스가 호라티우스에게 불평하였다. “당신이 그런 종류의 많은 글을 쓰면서 하필 나에게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가 화났음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혹 당신은 당신이 나의 친구였음을 행여 후손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인가?” 이에 호라티우스는 『서간시』 II 1을 아우구스투스에게 쓰게 되었다고 전한다.

18) 『서간시』 II 1, 111행.

19) 『서간시』 II 1, 157행 이하 “나의 작은 노래 *parvum carmen*로 당신의 위업을 담지 못하니, 나의 염치가 그것을 말할 뿐 아니라, 역량도 모자랍니다.”

20) 호라티우스가 『백년제 찬가』를 『서간시』 I 이후에 발표하였고 『서정시』 IV의 출판 시기를 『서간시』 II의 출판 이전으로 잡는다면, 어쩌면 『서간시』 II 1, 111행 “앞으로 다시 시는 한 줄도 쓰지 않겠다던 나”는 여러 차례 서정시 포기 선언과 서정시 재도전을 반복하였음을 가정해야 한다. 우리는 『서간시』 I의 서정시 포기 선언을 『서간시』 II로 이어지는 연속으로 이해한다.

21)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율리우스 플로루스(*Iulius Florus*)이며,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아르메니아로 원정을 떠나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Tiberius Claudius Nero*)를 동행하게 되었다. 이때가 기원전 19년이다. 플로루스에게 ‘편지’(22행)도, ‘시’(25행)도 보내지 않았던 호라티우스는 이제 편지를 보낸다. 『서간시』 II 2, 20행 이하 “길 떠나는 당신에게 나는 지쳤다 말하였습니다. 이제 글 쓰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신에게 편지를 부치

multa fero, ut placem genus irritabile vatum,  
cum scribo et supplex populi suffragia capto;  
idem, finitis studiis et mente recepta,  
obturem patulas impune legentibus auris.

나는 글을 쓰고 탄원자로 고개 숙여 대중의 박수를  
취하고, 성마른 시인 종속을 달래며 무던히 참았습니다.  
이런 내가 이런 수고를 접고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껄이는 시인들에게 귀를 닫아도 좋을까 봅니다.

또 141행 이하에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서간시』 제1권 첫 번째 편지의 서정시  
포기 선언과 매우 흡사하다.

Nimirum sapere est abiectis utile nugis  
et tempestivum pueris concedere ludum,  
ac non verba sequi fidibus modulanda Latinis,  
sed verae numerosque modosque ediscere vitae.

분명 지혜를 얻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찮은 일은  
접고, 아이들에게 어울릴 장난은 넘길 일입니다.

---

지 못해도 나를 고소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법률도 나의 편이나, 만약 당신이 그럼에도  
따진다면 내 어찌해야 옳을까요? 덧붙여 서정시들을 보내리라 기다렸건만 당신을 속여 보  
내지 않았다고 하시니.”

141~157행: 훌륭한 시인의 의무: 이제 장난스러운 놀이는 접어두고, 시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과제인 ‘현명함’(141행)을 이야기한다.

로마의 비파에 어울릴 법한 말을 쫓을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의 울조와 화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서정시를 ‘장난 *ludu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학적 도덕적 문제의 검토로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라티우스는 『시학』에서도 서정시 포기 선언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 발견되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훌륭한 시인 이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304행 이하).

ergo fungar vice cotis, acutum  
reddere quae ferrum valet exsors ipsa secandi;  
munus et officium nil scribens ipse docebo,  
unde parentur opes, quid alat formetque poetam,  
quid deceat, quid non, quo virtus quo ferat error.

그래 나는 대신에 숫돌이,  
스스로 벨 수는 없지만, 칼을 베틀는 무엇이 되려 합니다.  
몸소 쓰지는 않지만, 시인의 과업과 의무를 가르칩니다.  
시가 어디서 시작하며, 무엇이 시인을 키우고 만드는지  
시인이 할 일과 그 반대, 좋은 시인과 그 반대를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스스로 벨 수 없는 숫돌’이 되려 한다는 말은 서정시 포기 선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호라티우스는 시인보다 시인을 단련하는 ‘숫돌’이하고자 하였고, 시인의 할 일과 의무, 그 훌륭함과 잘못을 가르쳐 훌륭한 시인을 키워내는 ‘비평가’가 되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호라티우스는 서정시를 포기하였을까? 이는 플로루스 편지



에 상세히 언급된다. 과거 풍자시를 떠오르게 하는 말투로 장난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다(26~54행). ‘가난’이<sup>23)</sup> 호라티우스를, 마치 돈지갑을 잃어버린 가난한 병사가 잃어버린 돈을 벌충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듯, 시를 쓰게 만들었지만, 더는 가난하지 않으니 시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늙어서 기력이 없기 때문이다(55~64행). 서정시가 “유쾌한 대화, 달콤한 사랑, 즐거운 잔치, 재밌는 축제”(56행)와 더불어 노년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 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번잡한 로마의 삶이다(65~86행). 하지만 이 이유는 장난스러운 공연한 핑계로 보인다.<sup>24)</sup> 덧붙이는 마지막 이유(87~105행)는 당대 로마의 문학적 저급함 때문인데, 로마 시인들이 보이고 있는 “광기”(90행)에 대한 환멸이다. 여기서 ‘광기’는 “비웃음도 아까운 형편없는 시 *mala carmina*”(106행)를 떠벌려 자랑스러워하는, “형편없는 시를 즐겨도 이를 아예 깨닫지 못하는”(127행) “넋 나간 못 배운 시인”(126행)의 활동을 가리킨다.

다른 이유보다 마지막 이유가 호라티우스의 진심에 제일 가깝다고 보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편지에 언급된 서정시 포기의 이유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 편지에서 시인이 말하는바, 희랍인들의 문학적 열풍이 평화와 풍요의 산물인 것처럼, 로마의 문학적 열풍은 로마가 세계 지배자가 된 이후 거세게 몰아치게 되었다.<sup>25)</sup> 경건하고, 부지런하

---

23) 『서간시』 II 2, 51행 이하 “*pauperitas impulit audax ut versus facerem*”에서 우선 자전적인 기록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전에서 패한 이후 재난몰수를 당한 상황을 ‘가난’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은유적인 의미에서, 특히 서정시에서 더욱 그러하지만, ‘가난’은 행복의 동의어로 쓰였다고 하겠다.

24) Rudd(1984) 172쪽 이하.

25) 『서간시』 II 1, 61행 이하 “리비우스의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이들을 시인이라 칭하고 모십니다.” 키케로를 따르면(『브루투스』 72 이하) 리비우스는 로마건국 514년, 기원전 240년에 로마에서 극을 상연하였다. 키케로는 그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기원전 209년 타렌툼이 로마에 의해 함락되던 해에 리비우스가 전쟁 포로로 로마에 왔다는 아키우스의 연대기도

고, 다정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강직한 로마인, 가난하지만 행복한, 점잖고 진중한 모습의 어른이<sup>26)</sup> 갑자기 희랍의 문학 열풍이 불어오자, 어린아이 같은 변덕스럽고 경박한 희랍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물론 이런 부정적 영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야하고 촌스러웠던 로마 문학<sup>27)</sup>은 어느 정도<sup>28)</sup> 희랍적 우아미와 세련미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정복당한 희랍이 마침내 사나운 승자를 정복하여 촌스런 라티움에 예술을 가져왔습니다.”<sup>29)</sup> 그럼에도 예를 들어 플라우투스의 연극을 보면<sup>30)</sup> 세계 정복자 로마의 문학은 여전히 저급하며, 이는 로마 대중

---

함께 언급한다. 『서간시』 II 1, 156행 이하는 “로마는 늦게 서야 희랍의 서적을 깨우치게 되고 페니키아 전쟁 이후 평화 가운데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소포클레스, 테스피스, 아이스킬로스가 무에 쓸모 있을까?” 여기서 페니키아 전쟁은 기원전 201년에 끝나는 제2차 카르타고 전쟁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니발을 물리친 이후 로마는 희랍을 복속하기에 이른다. 호라티우스가 키케로가 아닌 아키우스의 연대기를 따른 것은 세계 지배자의 위상을 갖게 된 시점과 문학의 시작 시점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Fraenkel(1957) 389쪽 각주 2번을 보라.

26) 『서간시』 II 1, 103행 이하 “로마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경건한 전통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피호민을 돕고 분명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현금을 빌려주고 웃어른의 말씀을 따르고 아랫사람을 타일러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국운은 점차 자라났고 못된 향락은 줄어들었습니다.”

27) ‘*agricolae*’(139행), ‘*opprobria rustica*’(149행), ‘*agresti Latio*’(157행), ‘*vestigia ruris*’(160행).

28) 『서간시』 II 1, 159행 이하 “물론 오랜 시간 지속하던 촌놈의 흔적이 여전히 오늘도 남아 있긴 합니다.”

29) 『서간시』 II 1, 156행 이하.

30) 호라티우스의 플라우투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신랄하다. 『서간시』 II 1, 108행 이하, 특히 170행 이하 “플라우투스를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청년을 어찌 묘사하고 있는지, 인색한

이 그런 수준의 문학을 요구하며, 나아가 희랍 문학을 본받아 수준 높은 문학을 만들려 하지 않고<sup>31)</sup> 과거의 문학을<sup>32)</sup> 여전히 고집하기 때문인바, 호라티우스는 이런 모습을 두고 조롱하여 “옛것의 숭배자”(23행)라고 이름 붙였다. 이들에 의해 호라티우스의 시는 거부되고 외면당하였다.<sup>33)</sup> 희랍 문학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문체의 문학을 즐길 줄 아는, 그러면서도 경박하거나 타락하지 않은, 도덕적으로 훌륭하였던 진중한 먼 옛날의 로마인들을 보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이나고 호라티우스는 묻는 듯하다.<sup>34)</sup>

호라티우스의 훌륭한 시인 *poeta bonus*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플로루스 편지에서 언급된바, “훌륭한 시인”<sup>35)</sup>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다시 언어적 문학적 통찰력과 도덕적 철학적 성찰로 나뉜다.

---

아비는 또 어떠하며, 음흉한 포주는 어떠한지, 도센누스가 더부살이 주제에 얼마나 처먹는지, 희극나막신을 얼마나 영성하게 신고 무대 위에 설치는지, 플라우투스는 제 주머니에 돈만 챙기면 그만인지라 후에야 연극이 쓰러지든 제대로 서 있던 개의치 않았습니다.”

31) 『서간시』 II 1, 108행 이하 “이랬던 로마 백성의 심성이 홀연 갑작스레 작시술에 하나같이 열광합니다. 젊은 것이 늙은 것이나 푸른 잎사귀로 이마를 묶고 잔치를 벌이며 시를 낭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 줄의 시일망정 쓰지 않겠다던 나 자신 파르티아인들보다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 되었으니 첫 새벽부터 필촉과 파피루스와 쓸 것을 찾습니다.”

32) 예를 들어 『서간시』 II 1, 145행 “축제에서 페스켄니우스의 비방시가 생겨나 서로 주고받는 대구로 저속한 욕설을 지껄였습니다.” 이 시는 12표법에 금지될 정도였다. 키케로 『국가론』 IV 10, 12 “우리의 12표법은 아주 사소한 일도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적어놓았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도 그렇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던바, 만약 어떤 사람이 비방시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명예와 치욕을 불러일으키는 시를 짓는 경우가 그것이다.”

33) 『서간시』 II 1, 87행 이하 “혼자만 그 옛 시가를 아는 양 떠벌리는 사람은 재능은 못 알아보고 무덤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으로 내 시를 혹평하며 나와 내 시에 질색하며 거부합니다.”

34) Fraenkel(1957) 392쪽 이하.

35) 『서간시』 II 2, 115행 “*bonus*”

먼저 언어적 문학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또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넋 나간 못 배운 시인 *scriptor delirus inersque*”(126행)과 달리 훌륭한 시인은 “지혜를 얻고 사납게 꼬집는 *sapere et ringi*”(128행)<sup>36)</sup> 비판자이다. “비웃음도 아까운 형편없는 시”(106행)과 “제멋에 겨워”(107행) 쓰인 글에 반하여, 글쓰기의 지혜와 창작의 원칙<sup>37)</sup>에 부합하는 “올바른 시 *legitimum poema*”(109행)를<sup>38)</sup> 찾는 사람이다. 플로푸스 편지에서 글쓰기의 지혜와 원리를 일단 언어의 문제에 국한하지만, 언어 문제를 넘어 문체 등 넓은 의미의 문학적 통찰을 포함한다. 비판자의 매서운 눈은 언어와 시어에 머문다. 시인은 “잊힌 언어를 찾는 사람”(115~118행)이며, 나아가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사람”(119행)이다. “빛을 잃은 언어”(111행), “무게를 잃은 언어”(112행), “부당하게 영광을 누리는 언어”(112행), “과장된 언어”(122행), “거친 언어”(122행), “무의미한 언어”(123행)를 찾아 이를 축출하는 사람이다. 또 모국어가 “힘차고 맑고 투명하게”(120행) 생동하게 하고 “라티움어를 살찌우는 사람”(121행)이다. 훌륭한 시인은 “언어의 감찰관”(110행)이다.

훌륭한 시인은 사납고 무서운 언어의 감찰관이면서 동시에 철학적 도덕적 “지혜”(141행)를 갖춘 사람,<sup>39)</sup> “참된 삶의 울조와 화음”(144행)을 배운 철학자다. 철학적 도덕적 지혜와 관련하여 플로루스 편지의 종결부(141~216행)에서 도덕적 결함들, 탐욕과 갈증(146행 이하), 상속자(175행, 190행 이하), 죽음(187행 이하), 죽음의 공포(207행), 노년(211행) 등의 문제가 언급된다. 이런 철학적 도덕적 주제들은 호라티우

---

36) Kiessling-Heinze(1957) 264쪽.

37) 『시학』 309행.

38) 플로루스 편지에서 호라티우스는 법률 용어와 법률 행위 등을 많이 언급한다. 노예를 사고 파는 상거래 행위, 용익권과 소유권, 상속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올바른 시’를 ‘합법적 시’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39) Kiessling-Heinze(1957) 266쪽.

스가 앞서 초기 서정시집에서 다루었던 것들이기도 하다.

또 아우구스투스 편지는 국가 원수의 칭송이라는 전체 틀을 중심으로, 유익한 일로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시인’을 언급한다. 여기서도 훌륭한 시인의 문제는 문학 적 지혜와 도덕적 지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아우구스투스 칭송(1~4행)에 이어,<sup>40)</sup> 로물루스를 비롯한 신화적 영웅들이 — 이들과 비교할 때 아우구스투스가 더욱 훌륭하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다 — 이룩한 업적으로 요약하면 “터전과 인간종족을 길러냈으며 험한 전쟁을 멈추었으며 농토를 나누고 도시를 건립”하였다고<sup>41)</sup> 말하는데, 이런 업적은 『시학』에서 열거된 시인들의 업적과 비교할 만하다.<sup>42)</sup> 아우구스투스가 감당하는 “공익 *publica commoda*”(3행)에는 뒤지지만, 호라티우스가 생각하는바, 시인도 “나라에 유익하며 말하자면 작은 일로도 큰 보람을”<sup>43)</sup> 공동체에 도모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과 자의식에 기대어 호라티우스는 아우구스투스 편지 전체에서 문학 적 지혜의 측면에서, 로마 대중의 문학적 몰이해와 자신을 포함한 당대 시인에 대한 폄하를 질타한다. 로마 대중은 문학적으로 수준 낮고 저열하고, 조야하고 거친 “옛것의 숭배자들”이다.<sup>44)</sup> 그리고 도덕적 지혜의 측면에서, 특히 도덕적 교육적 측면에서

---

40) Fraenkel(1957) 386쪽 이하의 의견과 달리, Wilkins(1885)가 제시한 것처럼 5~17행을 1~4행과 구분하는 것이 옳다. “지나가 버린 옛것”을 추켜세우고 동시에 동시대를 깔보는 의고주의 (23행, *fautor veterum*)에 대한 호라티우스의 문제 제기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1~4행의 인사말에 이어지는 도입부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동시대”는 동시대인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며, 아우구스투스가 동시대의 칭송을 받는 것(15~17행)을 오히려 예외적 사건이다.

41) 『서간시』 II 1, 7~8행.

42) 『시학』 391행 이하.

43) 『서간시』 II 1, 124행 이하. 이는 『시학』 343행 이하와도 일맥상통한다. “달콤하면서도 쓸모 있는 것을 잘 섞어놓은 시인은 한편으로 독자를 즐겁게 하면서 가르침을 전달하여 만점을 받습니다.”

시인이 이바지하는 바를 언급한다(126~138행). 시인은 어린아이들이 “천하고 흥측한 말들”(127행)을 멀리하고, “사랑스러운 말들”(128행)을 배우도록 가르쳐, 올바른 성정을 가질 수 있게 바로잡는 사람이다. 시인은 선행을 전하여,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좋은 모범을 들려준다(130행). 시인은 “사나움과 질투심과 분노의 치료사”(131행)다.

『시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데, 전반부는 글감, 배열, 어휘, 장르와 운율, 화법, 소재의 선택, 서사시, 극문학의 발전 등 문학 이론을 다루는 부분(1~295행)이고, 후반부는 훌륭한 시인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다.<sup>45)</sup> 플로루스 편지에 비추어 『시학』 전체의 이런 양분 구성은 ‘지혜’의 두 측면, 다시 말해 문학적 형식적 측면과 철학적 도덕적 측면을 반영한다. 『시학』 전반부는 문학 형식과 언어 등에 있어 ‘훌륭한 시인’ 이념을, 『시학』 후반부는 철학적 지혜에 있어 ‘훌륭한 시인’ 이념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후반부의 핵심적인 문제는 앞서 인용한 『시학』 304행 이하 “시인의 과업과 의무”, “무엇이 시인을 키우고 만드는지”, “시인이 할 일과 그 반대”, “좋은 시인과 그 반대”를 다루며, “알맹이 없는, 듣기에만 좋은 헛된 시구”(322행)와 “올바른 시”(309행, *recte scribendi*)의 구별에서 출발한다. “올바른 시의 시작이며 원천”은 “맑은 지혜”(309행, *sapere*)라고 호라티우스는 천명하는데, ‘지혜’는 “소크라테스의 책”(310행)이 보여주는 바른 사태의 이해, 철학적 도덕적 인식을 토대로 하는 올바른 판단이다.

호라티우스는 『시학』 391행 이하에서 시인들을 대표하여 신화의 오르페우스와 암피온을 비롯하여 서사시 전통의 호메로스와 서정시 전통의 튀르타이오스, 그리고 “피에리아의 선율”이라는 또 다른 서정시 전통을 한다.<sup>46)</sup> 시인은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44) 『서간시』 II 1, 23행, “로마의 백성들은 옛것의 숭배자입니다.”

45) Brink(1963) 31쪽 이하에 『시학』 문단 구분과 관련된 많은 시도를 볼 수 있는바, 이들 모두는 295행을 중심으로 전후를 구분하고, 전반부 1~294행을 다시 시학 이론, 시의 종류 등으로 세분한다.

46) Rudd(1989), “피에리아의 선율”이란 핀다로스, 바퀴리데스, 시모니데스와 아나크레온 등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이때 열거되는 업적은, 아우구스투스 편지의 서두에서 언급된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하여 신화적 영웅들의 업적과 비견된다. “지혜”(sapientia, 396행)<sup>47)</sup>를 바탕으로 시인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재산을 나누었고, 신성과 세속을 구분하였고, 아무하고나 어울려 관계치 못하도록 부부의 예를 세웠고, 도시를 건설하였으며 나무판에 법 조항을 새겨 넣었습니다.”

호라티우스는 초기 서정시들을 ‘놀이’(『서간시』 I 1, 10행 *ludicra*; II 1, 141행 *ludum*)로 규정하고 서정시를 포기한다고 말하였는데, 과연 초기 서정시들은 ‘훌륭한 시인’ 이념을 시인이 의식하기 이전의, 따라서 ‘훌륭한 시인’ 이념과 무관한 놀이와 장난에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후기 서정시들은 ‘훌륭한 시인’ 이념을 분명히 드러낸 『서간시』 제2권 이후의 작품인바, 초기 서정시들과 어떤 확연한 차이를 드러낼 수도 있을 법한데, 왜 우리는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가? 호라티우스는 초기 서정시들에서도 나중에 ‘훌륭한 시인’ 이념으로 분명해지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착안점이 있다. 우선, 예를 들어 『서간시』 II 1, 87행 이하에 언급된 것처럼 초기 서정시들의 대중적 몰이해가 ‘훌륭한 시인’ 이념을 의식적으로 검토하는 출발점이었다고 할 때, 호라티우스가 말하는 대중의 ‘몰이해’는 놀이와 장난 이상의 어떤 것을 담으려 하였던 과거의 노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대중은 그의 초기 서정시를 단지 놀이와 장난으로 받아들였을 뿐임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호라티우스가 『서정시』 제1권의 헌정사에서 ‘뤼라의 시인 *lyricus*

---

의 전통을 가리킨다.

- 47) 아리스토파네스, 『개구리』 1030행 이하의 지혜를 보라. “맨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뛰어난 시인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점시오. 오르페우스는 우리에게 종교 의식과 살인에 대한 거리낌을, 무사이오스는 질병의 치료술과 신탁을, 헤시오도스는 땅의 경작과 수확기와 쟁기질하는 시기를 가르쳐 주었소. 신과 같은 호메로스가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은, 그가 진법과 무용과 전사들의 무장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vates*’(I 1, 35행), 다시 말해 “핀다로스와 9명의 희랍 서정시인들”<sup>48)</sup> 가운데 한 명이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시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vates*’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원래 종교적으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간자를 의미하는바 ‘시인’을 높여 부르며 시인에게 남들과 다른 명예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sup>49)</sup> 끝으로, ‘훌륭한 시인’을 두고 ‘놀이’의 표면 ‘유익’을 감추는 광대라고 하였음도 중요한 점이다. 『서간시』 II 2, 124행 이하에서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적었다.

ludentis speciem dabit et torquebitur, ut qui

nunc Satyrum, nunc agrestem Cyclopa movetur.

훌륭한 시인은 때로 사튀로스, 거친 퀴클롭스의 시늉,

광대를 가장하지만 실로 수고를 늦추지 않습니다.

호라티우스가 보는 한에서, 시인은 광대의 모습으로 참모습을 숨기지만, 실로 사회적 유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 2.2 현실 비판과 행복한 농촌 삶의 발견

현실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인간 과업과 노동이 끔찍하고 처참한 고통으로 느껴질 때, 사람들은 노동과 과업에 시달리지 않는 이상 세계,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를 염원하기 마련이다. 호라티우스는 『풍자시』 제1권과 『비방시』에서 이런 불가

---

48) Fraenkel(1957) 232쪽 이하.

49) Syndikus(1972) 36쪽 이하.



능한 소원을 현실 비판적으로 노래하기도 하였고, 때로 좀 더 철학적인 태도로 진지하게 이런 세계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풍자시』 제2권을 보면, 호라티우스는 저주스러운 현실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몽상의 중간에서 행복의 세계를 발견하였다. 그가 발견한 행복의 세계는 다름 아닌 농촌이었는데, 농촌의 삶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더없이 행복한 조건 가운데 즐거움과 생기가 넘치는 삶이 영위되는 곳이었다.

호라티우스는 『풍자시』 제1권 첫 번째 풍자시에서 인간은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검토하면서 하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 존재가 황금시대를 떠난 이래 노동과 과업 없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인간 과업과 노동은 인간 행복의 토대였다. 인간은 도시를 건설하고, 인간 삶의 원시 상태를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노고와 노동을 통해 국가적 법률적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행복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였다.<sup>50)</sup> 이런 인간 과업과 노동은 인간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토대가 되는 문명의 ‘축적 *constructus acervus*’<sup>51)</sup>을 이루었다. 호라티우스는 이런 위대한 인간 ‘노동 *labor*’의 모범으로, 무엇이든 미래를 위해 쌓아놓는 작은 재미들을 제시한다.<sup>52)</sup>

---

50) 호라티우스는 인간 과업과 문명의 기원에 관해 실용주의적 관점을 택한다. 『풍자시』 I 3.99~106행 “*cum prorepserunt primis animalia terris, multum et turpe pecus, glandem atque cubilia propter unguibus et pugnīs, dein fustibus, atque ita porro pugnabant armīs quae post fabricaverat usus, donec verba quibus voces sensusque notarent nominaque invenere; dehinc absistere bello, oppida coeperunt munire, et ponere leges, ne quis fur esset, neu latro, neu quis adulter.*” 이런 실용주의적 관점은 자연스럽게 인간들의 투쟁과 갈등, 수고와 고통(*unguibus, fustibus, armīs, verba nominaque*)을 전제한다.

51) 『풍자시』 I 1, 44행.

52) 『풍자시』 I 1, 33~35행 “커다란 노고의 작은 재미가, 모범이라 할 만한데, 무엇이든 입으로 물어다가, 큰 축적에 보태어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쌓아둔다. *parvula (nam exemplo*

하지만 “이런 큰 축적은 무엇이 아름다운가?”<sup>53)</sup> 이런 인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하게도, 호라티우스의 생각에, 행복한 사람들은 매우 드물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행복해하며 살았노라 말하고 시간이 다 되면 흡족하며, 만족한 손님처럼 생을 마칠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sup>54)</sup> 『풍자시』 제1권 첫 번째 풍자시의 시작 부분(1~22행)에는, 오랜 시간의 노고로 지친 병사가 유복한 상인의 삶을 염원하고, 장사를 위해 바다를 떠돌며 폭풍의 두려움에 떨었던 상인은 삶과 죽음이 순식간에 판가름나는 병사의 삶을 부러워한다. 도시에 살며 많은 피호민을 돌보는 변호사는 농부를 부러워하고, 농부는 도시의 삶을 보며 도시가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 문명과 노동은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수많은 인간 노동과 과업에도 불행이 끝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호라티우스는 끝나지 않는 불행의 원인을 끝없는 ‘탐욕 *avaritia*’<sup>55)</sup>에서 찾았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은 ‘노동 *labor*’을 통해 문명을 이루었지만, 행복해지려는 욕망이 멈추지 않고 정도(正道)를 벗어난다면 이때 노동(*laboret*, 112행)은 결국 인간의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sup>56)</sup> “사람 가치는 그가 가진 만큼”<sup>57)</sup>이라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힌

---

*est) magni formica laboris ore trahit quodcumque potest atque addit acervo, quem struit  
haud ignara ac non incauta futuri.”*

53) 『풍자시』 I 1, 44행 “*quid habet pulchri constructus acervus?*”

54) 『풍자시』 I 1, 117~119행 “*inde fit ut raro qui se vixisse beatum dicat, et exacto contentus tempore vita cedat, uti conviva satur, reperire queamus.*” 에피쿠로스 단편 GV 47 “ἀπικμεν ἐκ τοῦ ζῆν μετὰ καλοῦ παιῶνος ἐπιθωνοῦντες ὥς εὖ ἡμῖν βεβαίωται.”

55) 『풍자시』 I 1, 108행 “*avarus*”를 보라.

56) 『풍자시』 I 1, 108~112행 “욕심 많은 사람으로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다른 사람의 염소가 젖이 탕탕하게 부풀어 오르면 마음이 상하며, 자신을 좀 더 가난한 사람에 비해 비교하지 못하며, 여기저기 이기려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nemo est ut avarus se probet, ac potius laudet diversa sequentis, quodque aliena capella gerat*

사람은 경쟁심에 이끌려, 수레를 달고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말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sup>58)</sup> “뜨거운 폭염도 당신을 돈벌이에서 떼어놓지 못하니, 겨울도 화염도 바다도 칼도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려는 당신을 막지 못합니다.”<sup>59)</sup> 삶을 영위하고 안녕을 이룩하려는 인간 ‘노동 labor’는 맹목적 탐욕과 끝없는 욕망에 휩싸이면서 결국 불행과 고통의 ‘노동’이 된다.<sup>60)</sup> 필요한 만큼만 요구한다면 이런 흙탕물에서 물을 길어올리지 않을 수 있으며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sup>61)</sup>

탐욕이 초래한 불행과 고통을 호라티우스는 『비방시』 XVI과 VII에서 로마 내전의 상황을 통해 예시한다. 로마 내전은 끝없는 탐욕이 가져온 인간 불행과 고통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으로 제시된다.<sup>62)</sup> 도시 로마는 끝없는 확장을 거쳐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

---

*distentius uber tabescat, neque se maiori pauperiorum turbae comparet, hunc atque hunc superare laboret.”*

57) 『풍자시』 I 1, 62행 “*quia tanti quantum habeas sis*”.

58) 『풍자시』 I 1, 112~116행 “이렇게 서둘러 간들 언제나 그보다 부유한 자가 나타나며, 이는 말들이 율타리를 박차고 수레를 몰고 달려갈 때, 마부가 서로 다투는 말들을 계속 재촉하여 추월당한 자를 낙오자로 경멸할 때와 같습니다. *sic festinanti semper locupetior obstat, ut, cum carceribus missos rapit ungula currus, instat equis auriga suos vincentibus, illum praeteritum temnens extremos inter euntem.*”

59) 『풍자시』 I 1, 38~40행.

60) 인간 노동이 생명의 수단이면서 삶의 고통이라는 견해는, 헤시오도스(『일들과 날들』 42행 이하) 이래로 베르길리우스(*Georg.* 1.145~149행)에서도 보인다. “*tum variae venere artes: labor omnia vicit improbus et duris urgens in rebus egestas. prima Ceres ferro mortalis vertere terram instituit, cum iam glandes atque arbute sacrae deficerent silvae et victum Dodona negaret.*”

61) 『풍자시』 I 1, 59~60행.

고 어떤 맞수들도 로마를 저지할 수 없었다.<sup>63)</sup> 부와 권력에 있어 로마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로마의 적은 로마 자신이었고, 로마의 정복은 자신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sup>64)</sup> 이것이 호라티우스가 이해한 내전이였다.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sup>65)</sup> 내전의 불행과 고통을 호라티우스는 ‘불행한 노동 *mali labores*’이라고 부르며<sup>66)</sup> 이것으로 파괴된 당대를 ‘저주받은 도시 *exsecrata civitas*’<sup>67)</sup>라고 선언한다. 전쟁의 참상 혹은 일상생활의 황폐화는 시인 호라티우스로 하여금 저주받은 현실로부터의 ‘도피 *fuga*’<sup>68)</sup>를 간절히 희망하게 하였다.

“어디로, 죄인들아, 너희는 어디로 달려가느냐? *Quo, quo scelesti ruitis*”<sup>69)</sup> 호라티

---

62) Fraenkel(1957) 96쪽 “*It is likely that in the hard and sobering period of his life after the catastrophe of Philippi he soon came to realiz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πλεονεξία and φιλοπλουτία*”.

63) 『비방시』 XVI 3~8행에 언급된 로마의 적들은 마르시인들, 에트루리아인들(포르센나), 반란 노예 스파르타쿠스, 갈리아인들(알로브로게스), 게르마니아인들, 카르타고의 한니발 등이며, 『비방시』 VII 5~10행에 언급된 적들은 카르타고인들, 브리타니아인들, 파르티아인들이다.

64) 『비방시』 XVI 1~2행 “*altera iam teritur bellis civilibus aetas suis et ipsa Roma viribus ruit.*”

65) 서정시 I 2, 21행 이하 “창칼 버르는 소리를 들겠다 — 차라리 그것으로 페르시아나 없앨 일이지 — 선대의 죄로 벌어진 전쟁, 전쟁 함성을 몇 안 되는 후손이 들겠다. *audiet civis acuisse ferrum quo graves Persae melius perirent, audiet pugnas vitio parentum rara iuventus.*”

66) 『비방시』 XVI 16행.

67) 『비방시』 XVI 18행과 36행. 이때 *exsecrata* 는 아마도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Mankin(1995) 『비방시』 XVI 18행과 36행 주석을 보라.

68) 『비방시』 XVI 66행.

우스는 그릇된 길로 들어선 동료 시민들에게 그들 행동의 끝이 어디인지를 묻는다. 로마 신화에서 로물루스가 저지른 형제 살해의 무참한 행위가 로마 건국의 시작이었다면, 이런 신화적 비유를 통해 ‘형제 살해의 범죄 *scelus fraternae necis*’로<sup>70)</sup> 정의된 로마 내전에서 동료 시민들에게 가해진 동료 시민들의 잔혹한 행동은 이번에는 로마인들의 말살과 로마의 멸망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sup>71)</sup> 로마인들과 라티움인들의 수많은 피가 대지에 뿌려졌으며, 넵투누스의 왕국에 피에 물든 강물이 넘쳐난다.<sup>72)</sup> 동료 시민들의 창백한 얼굴은 그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자신의 잘못과 그릇된 행동을 알고 있음을 말해준다.<sup>73)</sup> 그렇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 없다.

시인은 절망한다. 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acerba fata*)인가!<sup>74)</sup> 늑대도, 사자도 결코 동족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는 않는 법인데,<sup>75)</sup> 어찌 인간은 인간 동족에게 이런 짓을 행하는가? 인간들의 저주스러운 반인륜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

---

69) 『비방시』 VII 1행.

70) 내전을 형제 살해의 악행으로 설명하고 이를 비유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그리고 이런 연관에서 로마인들을 ‘죄인들아’(1행)라고 호칭함으로써, 신화적 악행이 다시 한 번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내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시인의 역사 이해가 드러나는 듯하다. Ableitinger-Grünberger(1971) 18쪽, “*Die Folge dieser in mythischer Vorzeit begründeten Urschuld bestehen in einer zwangsläufigen Wiederholung der ersten Bluttat.*”

71) 『비방시』 VII 9~10행.

72) 『비방시』 VII 3~4행.

73) 『비방시』 VII 15~16행. 많은 학자는 여기서 내전의 처참함에 신음하는 로마 인민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Kisessling-Heinz(1968) 518쪽, “*Leichenblässe überzieht ihr Antlitz, das Zeichen des Schuldbewusstseins.*” Ableitinger-Grünberger(1971) 14쪽 “*Der ‘albus pallor’ wird zum sichtbaren Ausdruck ihrer Schuld.*”

74) 『비방시』 VII 17행.

75) 『비방시』 VII 10~11행.

게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희는 생각이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날 로물루스를 형제 살해로 이끌었던 어리석음이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가? 로마인들은 자기 파괴의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자기 파괴는 이제 단순한 가능성(『비방시』 VII)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분명한 운명(『비방시』 XVI)으로 발전하였다.

*Altera iam teritur bellis civilibus aetas, suis et ipsa Roma viribus ruit.*

다음 세대가 이제 내전으로 사라지고, 로마는 자신의 힘으로 몰락한다.<sup>76)</sup>

이제 들짐승들이 다시 로마인들이 떠난 도시를 차지하고, 야만들이 마치 승자들처럼 로마제국의 폐허에 발을 들여놓는다. 야만들에 의해 수도 로마의 성소들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sup>77)</sup> 로마인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파괴하고 말았다.

끔찍한 고통만을 가져오는 “불행한 노동에서 벗어나는 *malis carere laboribus*”<sup>78)</sup> 방법은 무엇일까? 시인은 상상 속에 민회를<sup>79)</sup> 개최하여 굉장히 다급하게 청원한다.<sup>80)</sup>

---

76) 『비방시』 XVI 1~2행. Fraenkel(1957) 50쪽, “*the fate of Rome. Rome, after centuries of triumph, seems now, through the blindness of her own children, ready for destruction.*”

77) 『비방시』 XVI 10~14행. Ableitinger-Grünberger(1971) 28쪽, “*Außerdem geht es, wie vorher gezeigt wurde, in der 16. Epode nicht um die Zerstörung des Stadt durch Barbaren, sondern um die Eroberung des Reiches und um das Vordringen des Feindes in ein bereit verödetes Rom, dessen Vernichtung sie vollkommen machen.*”

78) 『비방시』 XVI 16행.

79) Fraenkel(1957) 42쪽, “*an assembly of Roman citizens*”.

80) 항해의 제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는 폭풍 속의 항해에서 짐작할 수 있는바, 이런 비현실성은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는 이주의 소망이 화자에게 매우 다급하고 절실한 일임을 나타낸다. Büchner(1970) 76쪽, “*Die Ungeheuerlichkeit des Vorschlages, seine*

청원의 내용인즉, “행복하고 풍요로운 땅 *arva beata*”<sup>81)</sup>으로 이주하여,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운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이 아주 떠나버리자는 것이다.<sup>82)</sup> 행복한 섬의 묘사는 『비방시』 XVI 43~62행까지의 주제인데, 여기 논의의 핵심은 그곳이 “불행한 노동 *mali labores*”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며, 불행한 노동이 가져올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 있음이다. 43~52행에서 농사일이, 53~56행과 61~62행<sup>83)</sup>에서 기후 조건이, 57~60행에서 은거(隱居) 생활이 언급된다.

농업 환경은 밭농사, 포도농사, 올리브 재배, 유실수 재배, 양봉, 식수 조달, 염소 치기와 소치기 등으로 구성되지만, 이것들은 농부들에게 혹은 주민들에게 수고와 ‘노동 *labores*’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밭 갈지 않는”(*inarata*, 43행) 대지, “가지 치지 않는”(*imputata*, 44행) 포도나무는 매년 풍성한 수확을 내주며, 마찬가지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numquam fallentis*, 45행)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는 “저절로”<sup>84)</sup> 나

---

*Unausführlichkeit ist Ausdruck völliger Verzweiflung, leidenschaftlichster Bewegung und rückt das Gedicht in den Raum der Unwirklichkeit oder bester einer höheren Wirklichkeit.”*  
 Ableitinger-Grünberger(1971) 38쪽과 각주 51번, “*Eher die Unbedingtheit des Entschlusses: weder an der Ungewissheit des Ziels noch angesichts der Gefahr des Meers soll dieser Plan scheitern.*”

81) 『비방시』 XVI 41행.

82) 『비방시』 XVI 18~36행.

83) Shackleton Bailey(2001)은 61~62행의 위치를 56행의 뒤쪽으로 옮겨놓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Ableitinger-Grünberger(1971) 51쪽, “*Allein ihr Inhalt, Einflüsse von Seuchen und Klima auf die Herden, machen die V. 61~62 für diesen Zusammenhang geeignet. Die V. 52~55 schildern die Einflüsse des Wetters auf die Landwirtschaft, die V. 61~62 beziehen sich auf das Vieh.*”

84) 여기서 “*suam*”은 “*sua sponte*”를 의미한다. Kiessling-Heinz(1968) 553쪽, “*suam: ut non insertas arbores fici sed sponte natas intellegamus.*”

무에 가득하다. 또한, 꿀도 힘겹게 모으지 않아도 넘쳐흐른다(47행).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맑고 투명하며, 수량 또한 차고 넘친다(48행). 목동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iniussae*, 49행) 염소들과 소들은 기꺼이 젖을 짜도록 내어주며 (*amicus grex*, 50행), 곰이나 뱀 따위의 해로운 짐승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ursus*, 51행; *vipera*, 52행). 농작물을 위협하는 기후 그리고 기후와 밀접한 연관된 전염병(*contagia*, 61행), 홍수(*largis imbribus*, 53~54행) 혹은 가뭄(*siccis glaebis*, 55행) 혹은 폭염(*astri aestuosa torret impotentia*, 63행) 등이 없다. 따라서 농부는 행복하고(*felices*, 53행), 그들에게는 ‘노동 *labores*’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웅들과 제왕들도(57~58행), 상인들도(*Sidonii nautae*, 59행), 전사들도(*laboriosa cohors Ulixei*, 60행) 행복의 섬에는 존재하지 하지 않으며, 따라서 행복의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간 삶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족속들과(*aerea dehinc ferro duravit saecula*, 65행). 멀리 떨어져 황금시대(*tempus aureum*, 64행)를 누리고 있다.

행복한 섬에 대한 호라티우스의 이러한 시각은 황금시대의 표상을 반영하고 있는바, 유토피아적 황금시대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노동 *labor*’ 일반을 배제함으로써, 세계가 ‘불행한 노동 *labores mali*’으로 파괴될 가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배제한다.<sup>85)</sup> 호라티우스가 로마 인민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황금시대의 행복한 삶이 보여주는 비현실성을 고려해보건대, 이는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

---

85)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노동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원시 상태를 차라리 행복한 시대였다고 보는 시각은 벌써 헤시오도스에게서도 발견된다. 헤시오도스 『일들과 날들』 116행 이하, “좋은 것은 모두 그들의 몫이었고, 곡식을 가져다주는 땅은 그들에게 열매를 자신하여 아낌없이 듬뿍 날라다 주었소.” 하지만 이와 반대로 루크레티우스는 문명 이전의 단계로 짐승처럼 떠돌아다니며 살던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다. 루크레티우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V 936행 이하, “떠돌아다니는 짐승들의 관행에 따라 삶을 이끌어나갔다……태양과 비들이 준 것, 땅이 저절로 생기게 한 것, 이 선물이 그들이 가슴을 충분히 기쁘게 하였다.”



인다. 실제로 호라티우스의 초기 저작들은 전반적으로 로마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피해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는바, 시대의 도덕적 타락은 호라티우스의 초기 저작들이 가장 선호한 주제였다.<sup>86)</sup>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호라티우스는 초기 저작들을 통해서 인간 노동의 양극단, 다시 말해 유토피아적 무노동과 불행한 노동 사이의 중간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자신만의 인생관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호라티우스의 『풍자시』는 권력의 중심에서 시인이 누리던 도시의 일상을 묘사하였는데, 『풍자시』 I 6은 수도 로마의 일상생활을 에피쿠로스적 색채로 그려냈다.<sup>87)</sup> 시인

---

86) Rudd(1966) 1쪽, “Horace’s age, like our own, was one of exceptional strain and anxiety.

*Under the threat of war men wore themselves out in competitive money-making, in romantic attachments which had no future, and in the endless struggle for power and prestige.”*

Burck(1975) 26쪽, “*Es sind farbige Streiflichter auf die Menschen des Forums oder des Straßengewimmels in Rom, kurze Einblicke in die Handwerkerstube oder in das Speisezimmer eines neureichen Herrn mit seinen geladenen Gästen, den üppigen Mahlzeiten und den leeren Gesprächen. Es kommt Horaz dabei allein darauf an, gewisse Albernheiten menschlichen Verhaltens als solche darzutun.*” Mankin(1995) “It is clear, then, that, as a whole, the Epode book was meant as a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end of the Republic.”

87) Fraenkel(1957) 104쪽, “No doubt he does relish these small things and all modest comfort of his domestic life. But his mind is not immersed in concern for them; neither here nor anywhere else in his work is there any taint of bourgeois pettiness or philistinism.”

Vischer(1965) 149쪽, “...dass Horaz nicht übertreibt, sondern die Bescheidenheit seines alltäglichen Daseins tatsächlich genießt.” Kisessling-Heinz(1967), 107쪽, “Für die Lebensauffassung des H. ist dieser letzte Teil der bezeichnendste : man erkennt, wie entschieden ihn das eigene Naturell auf die Seite der epikureischen Ethik stellt, die den Menschen sein Heil fern von den Gefahren, Lasten und Aufregungen öffentlicher Tätigkeit in der friedlichen Abgeschlossenheit eines dem eigenen höchst individuellen Glücksbedürfnis genügendem Lebens suchen heißt.”

의 삶은 강력한 권력자들의 보호 아래 어려움이나 시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sup>88)</sup> 호라티우스는 여유롭고 편안한 자유를 만끽한다거나(110~112행), 시장 골목을 지나며 식료품 가격을 이리저리 묻고 흥정한다거나(112행), 바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한가롭게 저녁 산책을 다닌다(113행). 단출하고 간단한 저녁 식사(114~118행)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잠자리(115~122행)를 즐긴다. 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한적한 하루를 보내며 간혹 산책 혹은 놀이, 혹은 목욕을 즐기며(122~126행), 과하지 않은 식사를 차린다(127행).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다(128~131행).

haec est

vita solutorum misera ambitione gravique;

his me consolor, victurum suavius ac si

quaestor avus pater atque meus patruusque fuisset.

이는 끔찍한 무거운 야망을 벗어던진 자의 삶이니,

이것들로 나는 위안을 얻는 더없이 달콤한 삶이다.

법무관 조부와 부친과 백부를 둔 것보다 말이다.

그러나 수도 로마의 이런 행복한 일상도 오래가지 않았다. 『풍자시』 II 6에서는 수도 로마의 일상생활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악한 야망 *mala ambitio*”(18행)와 “시기 *invidia*”(48행)가 사람들의 삶을 몰아붙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심지어 기후마저 죽음으로 그들을 위협하지만<sup>89)</sup> 그럼에도 도시를 떠나지 않고 야망을 좇고 있었다.<sup>90)</sup>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시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없었

88) 『풍자시』 I 6, 110행 이하.

89) 『풍자시』 II 6, 18~19행, “*plumbeus auster autumnusque gravis, Libitinae quaestus acerbae.*”

다. 시인은 휴식을 찾을 수 없었고, 매일 치러야 하는 과업은 과중한 압박으로 시인을 괴롭혔다(33~34행). 일상의 힘겨운 일들에서 벗어나 한가롭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 저녁 산책, 책 읽기와 글쓰기는 이제 더는 허락되지 않았으며,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업무의 압박에 시인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sup>91)</sup>

『풍자시』 II 6에서 묘사된 도시의 일상생활은 여름에서 가을로(18~19행) 그리고 가을에서 “아퀼로의 북풍이 대지를 쓸고 해도 짧아진” 겨울로(25~26행) 이어지며, 이른 새벽부터 하루의 노역을 재촉한다(20~23행) 그러는 사이에 거의 팔 년의 세월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었다(40행). 20~59행의 도시생활은 마에케나스의 우정 덕택에 “꿀 같은 행복”(32행)을 주긴 하였지만, 대체로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많은 사람과 싸워야 하였고 게으름 피우는 이들에게 못할 짓을 해야 하였다”(28행). “수백 개의 다른 책무들이 머리와 가슴에서 춤을 추었다”(33~34행). “이런 끔찍한 일들 가운데 하루라도 소망치 않고 저문 날이 없었다”(59행). 호라티우스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빌었던 소망은 첫 행부터 “이것이 소원이었다”고 말할 바로 그 소망인바, 도시를 떠나는 것이었다.

『풍자시』 II 6의 마무리 부분(77~117행)에 삽입된 우화에서 도시의 삶은 수도 로마의 어둡고 무겁고 부정적인 측면을 선명하게 부각하며, 행복을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도록 권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의 일상이 갑자기 전혀 낯선 모습을 드러내던 순

90) 『풍자시』 II 7, 69~71행, “*quaeres quando iterum paveas iterumque perire possis, o totiens servus! quae belua ruptis, cum semel effugit, reddit se prava catenis?*” 83~89행, “*quisnam igitur liber? sapiens sibi qui imperiosus, quem neque pauperies neque mors neque vincula terrent, responsare cupidinibus, contemnere honores fortis, et in se ipso totus, teres atque rotundus, externi ne quid valeat per leve morari, in quem manca ruit semper fortuna.*”

91) 예를 들어 호라티우스는 『풍자시』 II 9에서 산책을 나선 자신을 따라오던 수다쟁이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수다쟁이를 따돌리려고 애써 보지만, 호라티우스를 통해 권력자에게 청탁을 넣으려는 수다쟁이는 시인을 놓아주지 않는다.

간, 시인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충격을 엿볼 수 있다. 시골 쥐가 서울 쥐와 함께 찾아간 도시의 모습은 처음에는, 시골 쥐가 알고 있던 행복을 크게 넘어서는 풍요하고 화려한 외관을 보여주었다.

cum ponit uterque  
in locuplete domo vestigia, rubro ubi cocco  
tincta super lectos canderet vestis eburnos  
multaque de magna superessent fercula cena,  
quae procul exstructis inerant hesterna canistris.

둘이 부잣집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진홍으로 물들인  
천이 상아의 침대를 덮어 빛나고 있었다.  
많은 음식이 커다란 음식 접시 위에 놓여 있었고,  
지난밤의 만찬에서 남아 쌓아놓은 음식 바구니에 즐비하였다.<sup>92)</sup>

하지만 시골 쥐가 안락과 풍요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친구가 가져다준 화려한 옷감을 걸치고, 친구가 날라다 준 수많은 진수성찬을 맛보고, 침대 위를 뒹굴며 이것이 서울 쥐가 말한 행복이구나 느낄 때, 이런 착각을 깨뜨리는 커다란 소리, 갑자기 열리는 문짝이 만들어낸 굉음과 열린 문을 달려오는 덩치 큰 사냥개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어느 날 호라티우스에게도 도시 삶의 환상을 버리게 하는 충격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것이다.

호라티우스는 도시의 환상을 버리고 농촌의 그리움을 키워갔다. 그리고 마침내 농촌의 그리움은, 일상생활의 번잡함에 내몰린 그에게서 소망으로 터져 나왔다. 수도로

---

92) 『풍자시』 II 6, 101~104행.

마의 삶이 한때는 시인에게 허락한 것처럼 보이던 안락과 평화는 끝내 분주한 생활 속에서 모두 사라져버렸다. 시인은 이렇게 외쳐 부른다(60~62행).

o rus, quando ego te adspiciam? quandoque licebit

nunc veterum libris, nunc somno et inertibus horis,

ducere sollicitae iucundia obliviae vitae?

시골동네, 내가 너를 언제 보게 되랴? 언제나 허락될까?

이제는 옛사람들의 책들과 이제는 잠과 한가한 시간으로

삶의 성가신 일들을 잊은 달콤함을 즐길 수 있을까?

우리는 호라티우스가 소망하던 농촌의 삶과 닮은꼴을 『비방시』 II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이 비방시는 전체적으로, 고리대금업자 알피우스가 실제로는 생활 터전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그저 말로만 농촌 생활을 칭송하는 모습을 비꼬는 풍자적 액자에 싸여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액자 안으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농촌 삶의 칭송은 호라티우스의 소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93)</sup> 도시의 분주함(*negotia*, 1행)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

---

93) 호라티우스가 이 비방시를 통해, 도시에 살면서 농촌 삶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찬미

하는 몽상가를 익살스럽게 모방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Sellar(1899, 130쪽)가 말한 “풍자적 딱지”를 붙였을 뿐, 매우 진지하게 농촌 삶을 실제로 즐기는 사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인지에 관해 논쟁이 있다. Fraenkel(1957) 60쪽, “If we leave for a moment the mocking conclusion, we may see in this poem a fundamentally true, if slightly idealizing, expression of Horace’s own nostalgic longing for the life of the country-side, a longing which he shared with many of his contemporaries” 이에 반해 Kiessling-Heinz(1968) 491쪽, “Daß dies anmutige Loblied nicht ganz treuherzig ernst gemeint ist…was Horaz wirklich parodiert.”

실제로 이 비방시에서 화자는 너무 지나치게 농촌 삶을 이상화한 것은 아닌지, 또는 농촌 삶의 어려움은 도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Christes(1998)와 Mankin(1995)

는 최초의 인류처럼 얼마나 행복한가! 고리대금에 시달리지 않으며, 병사가 되어 끔찍한 기상나팔에 일어나거나 거친 바다를 두려움에 떨며 항해하지 않아도 되며,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 자들이 넘치는 광장을 피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4~8행). 도시의 삶은 고리대금과 병역과 정치가에게 시달리는 삶이며, 도시를 가득 채우는 것은 “불행한 노동 *mali labores*”뿐이다. 불행한 노동에서 벗어난 농촌 삶은, 앞서 보았듯이, 상인도 전쟁도 소송도 사라지고 없는 “행복한 섬 *arva beata*”의 황금시대와 닮았다.

하지만 여기서 농촌 삶은 “행복한 섬”의 황금시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불행한 노동 *mali labores*”은 사라졌지만, 인간 노동(*labor*)이 모두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 노동은 농촌 삶과 행복의 중요한 토대로서 인간의 삶을 양육하는 노동인바, 사계절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노동이 이어진다.<sup>94)</sup>

---

등은 61~62행의 주석을 통해, 비방시의 화가가 실제로 어려운 일은 모두 남에게 시키고 있으며, 밭갈이에 지친 소들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이미 화자는 저녁 식탁을 받고 앉아, 멀리서 소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기서 화자가 농촌 삶이 가져다주는 어려움, 농부가 농장을 일구기 위해 짊어진 노력과 분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이상화 혹은 도외시된 현실을 가리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화자는 농촌 삶이 가진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여 이를 언급하였을 뿐이다. Burck(1951) 165 쪽, “*Der zentrale Wert, von dem diese Welt ihren Sinn empfängt, ist die nie abreißende Arbeit der Bauern. Alles, was der Bauer tut und was ihm anvertraut ist, sieht der Dichter(sc. Vergil) von Feinden und Gefahren bedroht: den Acker von Unkraut, den Weinberg von Kälte und Frost, die Tenne von Maulwürfen und Mäusen, das Vieh von Krankheit und Seuchen. Keine noch so anmutige Naturschilderung trübt den Blick des Dichters gegenüber der Härte und Schwere der bäuerlichen Arbeit.*”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덧붙여진 “풍자적 딱지”도, 농촌의 이야기를 듣는 도시민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의식하여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마치려는 조치가 아닐지 검토가 필요하다.

94) Christes(1998) 284쪽은 여기에 언급된 노동들이 실제 농부의 일거리가 아니라 취미 농부의

우선 농부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소를 부려 갈아야 한다. 봄과 함께 밭갈이(*exercet*, 3행)가 시작되고, 이어 포도 나무 돌보기가 계속된다(*maritat*, 10행). 그리고 나면 다시 소먹이(*mugientum greges prospectat*, 11~12행)가 농부를 기다리고, 과수원 돌보기(*amputans inserit*, 13~14행), 꿀을 얻기 위한 양봉(*mella condit*, 15행), 양털 깎기(*tondet*, 16행)도 빠질 수 없는 과제들이다. 혹서의 날들은 한가롭게 여유를 즐길 시간을 내어준다(23~28행). 가을이 다가오면 잘 익은 과일들, 배와 포도를 수확한다(*pomis...pira et uvam decerpens*, 17~22행). 겨울과 함께 힘겨운 사냥<sup>95)</sup>이 시작되고 야생 멧돼지(*apros*, 32행), 새(*turdis*, 34행; *gruem*, 35행), 토끼(*leporem*, 35행)를 포획한다.

그리고 한편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농촌 아낙은 집안일(*iuvet domum atque libros*, 39~40행)은 물론, 남편과 함께 매일 뜨거운 햇볕에 새까맣게 온몸을 태워가면서도(*perusta solibus*, 41행),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inempta*, 48행) 농사일을 수행하며, 그래서 그보다 더 힘겨운 일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어질 때마다 마다치 않는다. 화덕에 땔감으로 쓸 장작을 쌓기도 하고(*exstruat lignis focum*, 43행), 가축들을 가축 우리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가 하면(*claudens cratibus pecus*, 45행), 통통 부어오른 젖을 짜고(*distenta siccet ubera*, 46행), 술통에서 포도주를 따라놓고(*vina promens dolio*, 47행), 값비싸고 화려하지 않지만(49~54행) 소박하고 정갈한 식사를 준비한다(*dapes apparet*, 48행). 올리브와 수영 잎사귀와 아욱을 식탁에 올리고, 때로 토지 경계의 축제일에는 양고기, 간혹 염소 고기를 준비한다(55~60행).

---

일들이라고 평가한다. “*Den Arbeiten, die er(sc. Horaz) wahlweise anführt(v. 9~22), haftet kein Schweiß an, sondern sie ähneln eher den lässigen Tätigkeiten eines heutigen Freizeitgärtners.*”

95) 겨울 사냥의 힘겨움은 44행 “*lassi sub adventum viri*”에 암시되어 있다. Mankin(1995), 『비방시』 II 43~44행의 주석을 보라.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오면 농촌 삶에도 힘겨운 노동에 이은 휴식이 찾아온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풍족한 마음으로 화덕 근처에 마련된 고요한 저녁 식탁에 마주 앉는다(65~66행). 저녁 식사는 더없이 큰 즐거움을 제공하고(*iucundior*, 55행), 그리하여 식구들 모두에게는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는 풍요로운 저녁이다(*ditis domus*, 65행). 즐겁고 유쾌한 저녁 식사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전경 가운데 시골 생활의 하루가 아름답게 그려진다. 다음 날 다시 힘겨운 노동을 위해 각자 일터로 가겠지만, 모두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sup>96)</sup>

quis non malarum quas amor curas habet

haec inter obliviscitur?

누가 이런 것들 가운데 사랑이 가져온

나쁜 근심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는가? (『비방시』 II, 37~38행)

도대체 농촌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시의 삶의 분주함에서 멀리 떨어진(*procul negotiis*, 1행) 농부의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호라티우스에 따르면, 농부의 삶과 노동은 처방(*remedium*)이다.<sup>97)</sup> 탐욕(*avaritia*), 물질적 욕망과 “사랑”<sup>98)</sup>이 인간 삶에 가져온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와 망각(*malarum curarum oblivisci*)이다. 수

96) Mankin(1995)은 61~66행에서도 계속해서 ‘도시인의 열광’만을 읽어낸다. Mankin은 여기

묘사된 시골집이 “암전한 부인 *pudica mulier*”(39~40행)이 돌보는 작은 농장도 아니며, “풍요로운 집 *ditis domus*”(65행)은 다른 무엇보다 소박한 시골집의 욕심 없음에서 기인하는 영혼의 소박한 풍요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곳이라고 본다.

97) Kiessling-Heinz(1968) 495쪽, 『비방시』 II 35행 주석을 보라.

98) Ps.-Acro, *Scholia ad epod.* 2.37(O. Keller, Leipzig, 1902) 참조. Mankin(1995) 78쪽

“Perhaps *H(orace)* means the reader to be left wondering what this *amor* is until the end of the poem, where *Alfius*’ greed identifies it as *amor habendi*.”



많은 ‘노동 *labores*’으로 이어지는 고된 농부의 삶은, 인간 삶이 좁어진 ‘불행한 노동 *mali labores*’의 치유 수단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호라티우스에게 행복한 삶은 농촌 삶을 통해 실현된다. 농촌 삶은 노동이 ‘불행한 노동’으로 전도되는 도시생활과 노동이 사라진 이상적 공간의 중간에서 황금의 균형을 유지하며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삶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농촌 삶을 통해 행복한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바, 아직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은 농부의 ‘노동 *labor*’이다.

또 우리는 『풍자시』 II 2에서 이런 농부를 발견한다. 호라티우스는 삶의 방식들을 대립적으로 제시하고 그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삶과 초라하고 궁상맞은 삶을 대립적으로 비교하며, 양자 사이에서 황금의 균형을 갖는 행복한 삶이 제시된다. 농부 오펠루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한 삶은 단순함(*victus tenuis*, 70행)과 가난함(*vivere parvo*, 1행)의 지혜이다. 오펠루스는 소박한 삶에 대립하는 삶들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똑같이 악덕(*vitium*, 54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두 극단적 형태로, 하나는 사치스러운 삶이고, 다른 하나는 궁상맞은 삶이다. 현자라면 이런 지저분한 삶들을 버리고 그 중간을 선택할 것이다. 한쪽의 극단을 피하려다가 다른 한쪽의 극단에 떨어지는 것 역시 잘못이기 때문이다.<sup>99)</sup>

값비싸고 화려하고 굉장한 혹은 진귀한 먹거리들(21~52행)로 가득 채워진 왕후장상의 식탁(*epulis regnum*, 45행)에도 불구하고 삶이 쾌락이 아니라 염증(*fastidia*, 14행)만을 느낀다면, 그것은 도덕적 타락을 의미한다. 많은 훈련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때조차 값비싸고 진귀한 것이 아니면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음식과 음료를 두고 잘못 판단하는 타락한 판관(*corruptus iudex*, 9

---

99) 『풍자시』 II 2, 63~66행, “*quali igitur victu sapiens utetur, et horum utrum imitabitur? hac urget lupus, hac canis, aiunt. mundus erit qua non offendat sordibus, atque in neutram partem cultus miser.*”

행)이며, 사물의 겉모습이 보여주는 허영에 취해 타락한 사람(*corruptus vanis rerum*, 25행)이며, 무절제로 살찌고 창백한 사람(*pinguis vitiis albusque*, 21행)이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포만(*ieiunus raro stomachus*, 38행)은 끊임없이 더욱 큰 욕망과 감각적 쾌락을 찾고 추구한다. 하지만 최고의 쾌락이 어디에서 오는지 참된 근원을 알지 못한 채,<sup>100)</sup>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삶 가운데 흔들리며 오락가락하는 변덕만이 삶을 지배한다(50b~52행).

호라티우스는 이런 삶의 반대쪽에 또 다른 잘못된 삶으로 “지저분한 삶 *victus sordidus*”(53행)을 제시한다. 이런 방식의 공상맞은 삶은—어쩌면 이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바—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이 보여준 과도한 무절제와 감각적 향락을 부정한다. 하지만 방탕한 쾌락이 그 과도함 때문에 도덕적 타락으로 드러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과도함 때문에 ‘지저분한 삶’ 역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역겨움과 혐오를 불러온다.

Aufidienus,

cui ‘Canis’ ex vero ductum cognomen adhaeret,  
 quinquennis oleas est et silvestria corna  
 ac nisi mutatum parcat defundere vinum et,  
 cuius odorem olei nequeas perferre, licebit  
 ille repotia, natalis aliosve dierum  
 festos albatu celebret, cornu ipse bilibri  
 caulibus instillat, veteris non parcus aceti.

아우피디에누스,

---

100) 『풍자시』 II 2, 19b~22행, “*unde putas aut qui partum? non in caro nidoore voluptas summa, sed in te ipso est.*”

그에게 개라는 별칭이 딱 어울리는 사람은  
 오 년 묶은 올리브를 먹으며, 야생 버찌를 곁들이고,  
 아깁답시고, 오래전에 쉬어버린 포도주를 따른다.  
 하지만 결혼 잔치든, 생일잔치든,  
 어떤 잔치든 흰옷을 입고 축하할 때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냄새가 역한 식초에  
 절인 배추를 아끼지 않고 내놓는다.<sup>101)</sup>

여기서 묘사된 것과 같은 비정상적 취향과 생활방식도 일종의 반문명과 비인간을 반영한다. 인간적이라고 부르는 일체의 문명과 문화를 부정하고, 소위 자족을 즐기며 반문명적 “개의 삶”<sup>102)</sup>을 영위한 견유학파처럼, 아우피디에누스<sup>103)</sup>는 그런 삶을 ‘아깁 없이’ 보여준다.

이런 두 삶과 구분하여, 건강하고 밝고 아름다운 삶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victus tenuis*, 70행)이다. 자족적인 삶을 지향하는 농촌 삶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젊은 날이나 노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건강미를 보여준다(71~88행). 이런 삶은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평온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운명의 성쇠에 매달라지 않을 수 있다(94~111행). 농부 오펔루스가 그의 농촌 삶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행복한 삶은,

101) 『풍자시』 II 2, 55~62행.

102) 예를 들어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를 보라.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철학자들의 생애』 제 6권 46, “어느 날 그는 광장에서 자위에 탐닉하면서, ‘배도 또 이렇게 문지르기만 하면, 시장하지 않게 되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였다.”

103) Kiessling-Heinz(1967) 202쪽, “*Als Kyniker soll das cognomen den Avidienus gewiss nicht bezeichnen: sein sordidus victus ist von dem zwar äußerst anspruchlosen, aber keineswegs geizigen Kynikos bios ganz verschieden.*” Muecke(1993) 『풍자시』 II 2, 53~67행의 주석, “*Horace now rejects the radical poverty of Cynicism, symbolized by Avidienus.*”

앞서 우리가 『비방시』 II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삶의 모습으로, 농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114~115행), 소박하고 정갈한 저녁 식사(116~122행), 즐거운 술자리(123~125행)를 보여준다.

농부 오펔루스는 행복한 삶을 위한 올바른 방식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농촌 삶을 선택하였다. 이는 다른 두 극단적인 삶의 방식, 다시 말해 ‘지나친 향유’와 ‘지나친 궁색’의 중간에서 위치한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

『풍자시』 II 6을 보면 호라티우스는 농촌 삶을 살아가리라는 소망을 이루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 목마른 시인의 마음은 사비눔의 시골집에서 메르큐리우스<sup>104)</sup>의 가호 아래 안식처를 마련하였다. 호라티우스에게 사비눔은 소박한 삶의 현장이다. 간단한 음식으로 차려진 즐거운 저녁 식사, 평화로운 저녁, 수로 로마의 광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지내는 조용하고 한가로운 날들, 매일의 노동 이후가 시인에게 주어진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검투사 경기 혹은 극장 공연 같은 쓸데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저택 등이 그 소재가 아니다. 시인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삶인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sed quod magis ad nos

pertinet et nescire malum est agitamus: utrumne

---

104) Fraenkel(1957) 138쪽, “Then turning to Hermes kerdaios, he prays, not for further gain, but for an undisturbed and sensible enjoyment of the blessings he has already been given.” Schmidt(1997) 59쪽, “dass Merkur nicht als Kaufmannsgott und Händlerspatron Adressat Horatischen Betens sei … Merkur steht für die geistige Kraft, sich die Gabe anzueignen” 호라티우스 『서정시』 I 10의 메르큐리우스 찬가에 호라티우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을 까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프리아모스의 보호자 역할, 경건한 영혼의 동반자 역할이다. Fraenkel(1957) 166쪽에서 언급한바 ‘서정시의 영역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에서 그에게 ‘행복한 자리 *laetae sedes*’를 마련해 줄 것이다.

divitiis homines an sint virtute beati;  
quidve ad amicitias, usus rectumne, trahat nos;  
et quid sit natura boni summumque quae eius.

우리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것, 모르면 안 좋을 것, 둘 중에 하나  
부가 사람을 유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덕인가?  
이익 아니면 옳음(올곧음)이 우리를 우정으로 이끄는가?  
선의 본성은 무엇이며 선의 최고는 무엇인가? (『풍자시』 II 6, 72~76행)

사비눔의 저녁 시간은 수많은 농촌 삶의 어느 한순간일 뿐이지만, 그것은 행복이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이며, 계속 이어질 농촌 삶에서 무한히 반복될 행복의 영원한 순간이다. 그리하여 서울 쥐와 시골 쥐의 우화에서 시인이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던바, 번잡함과 분주함 가운데 불행한 지경<sup>105)</sup>에 이른 시인에게 사비눔은 고요함과 평화, 안전과 평온 가운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sup>106)</sup>

『풍자시』 II 6의 끝에 호라티우스는 사비눔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서울 쥐와 시골 쥐의 우화를 덧붙인다. 우화는 쾌락을 고통의 부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역설을 정의를 떠오르게 한다. 서울 쥐에게 ‘가난한 동굴’은 시골 쥐에게 ‘안전한 동굴’이었지만, 시골 쥐는 그대로 서울 쥐의 시각을 인용(引用)하여 자신의 거처를 ‘가난한

---

105) Schmidt(1997) 68쪽, “*Was der hauptstädtische Alltag mit seiner Hektik und Zerrissenheit und Fremdbestimmtheit verhindert, gewährt der sabinische Abend.*”

106) Schmidt(1997) 72쪽, “*...in Stadt- und Landmaus zwei Seiten der persona des Dichters ...*”

호라티우스는 시골 쥐와 서울 쥐를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우화를 통해 시인의 내적 갈등과 모순적 성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고 할 때, 결국 시골 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자아가 본래의 자신을 찾았음을 가리킨다.

동굴’이라고 부른다.<sup>107)</sup> 그리고 시골 쥐는 ‘가난한 동굴’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도시 쥐에게 ‘가난’은 물질적 외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행복의 부재이지만, 시골 쥐가 보기에 ‘가난’은 마음을 괴롭히는 물질적 외적 풍요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 다시 말해 근심의 부재이자 행복을 의미한다.

시골 쥐와 서울 쥐의 우화를 담은 『풍자시』의 농촌 삶은 그대로 초기 서정시로 이어지는데, 이는 다시 『서간시』 I 18에 등장한다.<sup>108)</sup>

sit mihi quod nunc est, etiam minus, et mihi vivam  
quod superest aevi, si quid superesse volunt di;  
sit bona librorum et provisae frugis in annum  
copia, neu fluitem dubiae spe pendulus horae.  
sed satis est orare Iovem quae ponit et aufert:  
det vitam, det opes. aequum mi animum ipse parabo.  
만약 내게 내가 지금 가진 만큼, 아니 그보다 적더라도, 내가 살아갈  
시간이 신들의 허락으로 주어져 그만큼만 주어진다면 좋겠다.  
책들이 큰 재산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 추수 때까지 먹을 식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으로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다만 그저 유피테르께 기도하여, 그분이 내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생명이 허락되고, 생계가 허락되길 청할 뿐. 평정심을 지키리라.

여기서 농촌 삶의 행복한 삶을 시인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평정심”<sup>109)</sup>을 지키는

---

107) 『풍자시』 II 6, 80~81 행과 116~117 행.

108) 『서간시』 I 18, 107행 이하.

109) 『서간시』 I 11, 28행 이하에서 호라티우스는 ‘평정심 *animus aequus*’를 행복의 원리

삶을 생각한다. 또 다른 곳에서 시인을 이런 삶을 “더없이 자유로운 여가”를 가능하게 하는 삶이라고 여겼다.<sup>110)</sup> 이는 고통과 근심의 부재, 다시 말해 고통과 근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행복으로 간주하는 에피쿠로스의 행복 원리다.<sup>111)</sup>

사비누는, 그것이 호라티우스에게 주어진 이래, 『풍자시』와 『비방시』를 비롯하여 초기 서정시를 거쳐 『서간시』까지,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후기 서정시까지 호라티우스의 작품을 관통하여 등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비누가 시인에게 창작의 영감과 힘이 되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사비누는 호라티우스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한 삶과 농촌 삶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태도를 보여준다. 호라티우스는 도시가 제공하는 더 크고 화려한 규모와 외형을 거부하며, 농촌 삶이 제공하는 소박함에 만족하였고, 권력과 재물을 좇는 도시 삶이 아니라, 농촌 삶에서 평화와 자유와 여가를 찾았다. 다시 말해 호라티우스는 도덕적 윤리적 탁월함, 다시 말해 인간 삶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덕행이 구현된 행복한 삶의 형태를 농촌 삶에서 구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농촌 삶에 주목한 것은 비단 호라티우스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그와 동시대 시인들도 전원(田園)을 노래하였는바, 베르길리우스가 노래한 아르카디아가 있으며, 로마의 엘레기 시인들, 예를 들어 티불루스가 노래한 행복의 전원(田園)도 있다. 로마의 전원 문학과 관련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농촌,

---

(*petimus bene vivere*)로 제시한다. ‘평정심’만 놓고 볼 때 호라티우스에게 행복한 삶의 원리는 ‘시골’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사비누 영지가 되었든 다른 어떤 농촌이 되었든 시골과는 전혀 무관하며, 어쩌면 수도 로마에서도 가능할지 모른다. Sallmann(1989) 33쪽 이하를 보라.

110) 『서간시』 I 7, 34행 이하 “*otia liberrima*”.

111) Schmidt(1995) 395쪽 “...*dieses nur gedankliche Aufwallen von Jähzorn rettet die Resignation vor Jammern und Larmoyanz, macht sie, als gewusste Entsagung, im Zugleich von Verlangen und Verzicht, von Zorn und Reflexion, beinahe weise, zu einer gleichsam unresignativen Resignation.*”

삶의 즐거움이 넘치는 이상향(理想鄉) 아르카디아를 발견한 것은 베르길리우스였으며 그는 엘레기 시인들과 호라티우스 등 동시대의 모든 시인을 앞서간 선구자였다.<sup>112)</sup> 이들과 함께 기원전 1세기의 로마 내전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공유하는 카툴루스 등 신시인류(*poetae novi*)의 로마 시인들이 “지극히 도회적인” 특징을 보이고, 테오크리토스의 전원시가 신시인류 작가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 때,<sup>113)</sup> 한 세대 뒤의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 등이 전원(田園)에 주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타락한 도시의 사치와 탐욕을 벗어난 소박하고 평화로운, 도덕적 윤리적 공간이라고 전원을 보았다.

그런데 베르길리우스의 전원(田園)은 현실 앞에 무력하다. 아르카디아의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목가집 *Bucolica*』 X에서 베르길리우스의 전원은 사랑의 배신으로 몸져누운 친구 갈루스를 위로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사랑의 노예가 되어 근심하며 아파하는 “죽을 지경에 이른”(10행) 친구 갈루스(*sollicitos Galli amores*, 6행)를 위해 숲의 요정들과 산천이 눈물 흘리고, 목동들과 가축들이 둘러싸며, 물론 심지어 아폴로(21행)와 목동신 실바누스(24행)와 아르카디아의 신 판(26행)이 달려와 위로의 말을 건넨다. 신들은 갈루스에게 각성과 절제(*modus*, 28행)를 촉구한다. 이에 갈루스는 아르카디아에 속한 목동이나 농부였으면 좋았을 것이라 탄식하고,<sup>114)</sup> 이것이 그의 광기를 치료할 처방이길 희망한다(60행). 하지만 그는 마침내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사랑이 모든 것을 굴복시킨다고 절망한다(69행). 아르카디아의 목동은 그의 노래가 상처를 치유하기에 너무나 무기력함을 절감할 뿐이다.

---

112) Snell(1993) 257쪽. Albrecht(1997) 659쪽.

113) Conte(1999) 264쪽.

114) 성엽(1994) 76쪽. Martindale(1997) 110쪽. 아르카디아는 “고통스러운 인간 정념에 대한 치유(治癒, *therapia*)”를 인간과 자연의 어우러짐에서 찾으려는 시인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또한, 아르카디아의 아름다움은 절망감을 감추고 있다. 『목가집 *Bucolica*』 IX은 내전 종식 이후 노병들의 정착을 위해 벌여졌던 토지 몰수를 반영한다.<sup>115)</sup> 첫 부분에서 목동 뤼키다스는 돌보던 염소들을 데리고 도시로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목동 모에리스에게 묻는다. 모에리스는 비통한 소식을 전한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너희 옛 소작인들은 떠나라 *haec mea sunt; veteres migrate coloni*”.<sup>116)</sup> 이는 새 주인이 목동에게 보낸 통보였고, 목동은 새 주인에게 모든 것을 건네려고 길을 나선 것이다. 노래가 모든 것을 구하리라(10행)는 목동 메니클라스의 옛 노래는 뜬소문이었다. 노래하는 목동들은 현실 앞에 무력하다. 목동들은 그들의 노래가 마치 독수리 앞에 선 비둘기 신세로 무력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11~13행). 그리하여 극한에 이르러 현실 고통에 짓눌린 세대는 마침내 현실이 아닌 신화에서 구원을 찾는다.

이렇게 아르카디아는 엄연한 현실 앞에 무력함을 드러내는바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욱 염원하고 고대하던 신화 세계였다.<sup>117)</sup> 베르길리우스는 헤시오도스가 그린 사투르누스의 황금시대를 아르카디아에 옮겨놓았다. 정의의 여신마저 마침내 떠나버린 철 시대가 지나가면 “새롭게 *ab integro*”(5행) 세계의 순환이 시작되고 “사투르누스 왕국이 돌아온다 *redeunt Saturnia regna*”(7행). 다시 돌아온 사투르누스 왕국은 노동과 수고를 사라진 곳, “경작하지 않더라도 *nullo cultu*”<sup>118)</sup> 인간에게

---

115) Büchner(1955) 1236쪽 이하.

116) 『목가집』 IX 4행.

117) Snell(1993) 258쪽 이하. Martindale(1997) 111쪽.

118) 『목가집 *Bucolica*』 IV 18행. 베르길리우스는 사투르누스의 황금시대에 관해 생각이 바뀐다. 『아이네이스』 8권 314행 이하에서 이탈리아의 황금시대를 묘사하면서, 그는 사투르누스의 도래와 함께 문명과 “경작 *cultus*”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목가집』에서처럼 “경작 *cultus*”의 부재를 황금시대의 특징으로 삼은 것은 헤시오도스의 『일들과 날들』 111행 이하에서이다. Eigler(2002) 293쪽 이하에 의하면 『아이네이스』의 베르길리우스는 황금시대의 농업 문명이 도시적인 문명의 성장과 함께 파괴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이 마련해주는 곳이다. 선원들을 바다로 나서지 않을 것이고(38행), 상인들은 물건을 거래하지 않을 것이고(39행), 대지에 쇠스랑이, 포도나무에 낫이 닿을 일이 없을 것이다(40행), 농부는 황소를 쟁기에서 풀어줄 것이다(41행). “대지는 모두는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omnis feret omnia tellus*”(39행).

라고 미래의 낙관과 희망을 시인은 노래한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전원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호라티우스의 농촌 삶에 베르길리우스의 아르카디아와 닮았다. 하지만 호라티우스의 농촌 삶은 베르길리우스의 전원(田園)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바, 그것은 노동(*labor*)이다. 불행을 초래하는 도시의 노동과 구별하여, 베르길리우스의 전원이 노래하는 목동들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이상향이라면, 호라티우스의 농촌은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는 건강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강인하고 부지런한 농부의 공간이었다. 호라티우스 초기 서정시에 그려지는 행복한 삶은 이런 농촌 삶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

### 3. 초기 서정시에서 행복한 농촌 삶의 원리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현자는 시골을 사랑한다.”<sup>1)</sup> 그것은 아마도, 에피쿠로스의 생 각에, 도시를 벗어난 농촌에 행복한 삶을 찾았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호라티우스에 게도, 앞서 『풍자시』와 『비방시』를 통해 살펴본바, 농촌 삶은 탐욕,<sup>2)</sup> 사악한 야망,<sup>3)</sup> 그 리고 분주한 노고<sup>4)</sup>, 불행한 노동<sup>5)</sup>이라고 불리던 온갖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하였다. 호라티우스는 ‘불행한 노동’의 도시를 떠나, 노역과 근심에서 벗어난 ‘건 강한 노동’의 농촌 삶을 발견하였다. 농촌 삶은 인간 노동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삶이며, 참된 행복이 실현된 삶이다.<sup>6)</sup>

1) 단편 570 Usener(= Diogenes Laertius, X 120) “σοφὸς φιλαγρήσει”. 키케로는 『로스키우스 변호 연설』 XVII 48(김남우 외, 2015, 36쪽)에서 “시골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즐거운 삶”으 로 여기는 로마의 전통을 이야기한다. 키케로는 심판인들에게 이런 전통이 로마를 강력하 고 대단한 나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시골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즐거운 삶 으로 여기는 사람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XVII 50 이하 “우리 조상들은 아틸리우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해 당신과 매우 다르게 생각했으며, 그 결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국가 대신 아 주 크고 번영한 국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토지를 열심히 돌보았을 뿐, 남 의 토지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에 영토와 도시와 이민족을 더하 고 로마 인민의 권력과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2) 『풍자시』 I 1, 108행 “avaritia”.

3) 『풍자시』 II 6, 18행 “ambitio misera”.

4) 『풍자시』 II 6, 33행 “negotia centum”.

5) 『비방시』 XVI 16행 “mali labores”.

6) 호라티우스가 농촌 삶을 행복이라고 선언하였을 때, 그것이 번덕스러운 도시민의 일시적 흥 분과 열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을 실제로 시인의 시 중인 다부스가 언급한 바 있다. 『풍자시』 II 7, 28~32행 “Romae rus optas, absentem rusticus

『풍자시』와 『비방시』에서 발견된 행복한 농촌 삶은 초기 서정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바, 다만 초기 서정시에서는 행복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현자-시인 *vates*’로서의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호라티우스는 행복한 농촌 삶의 원리를 구상적으로 묘사한다. 호라티우스의 노래는 “철학 사상의 서정시”였던바<sup>7)</sup> 농촌 삶을 구체적 생활 원리로 설명한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호라티우스는 초기 서정시에서도 농촌 삶을 배경으로 에피쿠로스주의적 행복한 삶의 원리를 그려낸다. 초기 서정시에 나타나는 생명력과 활기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농촌 삶을 배경으로 한다. 초기 서정시에서 시인은 농촌 삶을 ‘가난’과 ‘은둔’으로 묘사하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농촌 삶이 가진 유쾌하고 명량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난해 보이는 농촌 삶은 보이는 것과 달리 평온과 고요 가운데 자족을 누리는 삶이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궁벽한 농촌 삶은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반대로 세상의 욕망과 갈등과 고통을 벗어난 삶이었고, 그리하여 사랑하고 노래하는 명량함과 즐거움의 삶이었다.

『풍자시』와 『비방시』의 농촌 삶을 토대로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를 전반적으로 관찰하면, 『풍자시』와 『비방시』에서 초기 서정시와 『서간시』로 이어지는 호라티우스 창작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이는 문학 장르를 달리하면서도 일맥상통하는 행복론을 호라티우스가 계속해서 탐구하였음을 말해준다. 호라티우스의 행복한 삶인바 농

---

*urbem tollis ad astra levis. si nusquam es forte vocatus ad cenam laudas securum horus ac, velut usquam vinctus eas, ita te felicem dicis amasque quod nusquam tibi sit potandum.*” 『서간시』 I 7, 46~95행에 언급된 필립푸스와 볼테이우스 메나의 이야기를 보라.

7) Norden(1998) 57쪽 이하.

8) 앞서 언급한 대로 말년에 만들어진 『서간시』 II와 『시학』과 『서정시』 IV는 이런 연속성의 예외다. 『서간시』 II와 『시학』은 행복론이 아닌 문학론을 다루고 있다. 『서정시』 IV는 아우구스투스 칭송에 관심을 크게 두었다.

촌 삶이 초기 서정시에도 탐구되었다는 연속성을 보여주는 근거는 흔히 로마 송가라고 불리는 『서정시』 III 1~6이다. 로마 송가를 다수의 연구자는 아우구스투스와 관계에서 설명하며, 국가적 정치적 개혁의 중심인 로마가 로마 송가가 다루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마 송가가, 일반 평가와 달리, 행복한 농촌 삶의 틀을 가지고 다른 초기 서정시들을 읽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바,<sup>9)</sup> 로마 송가는 강인하고 근면한 로마 농부의 삶을 그의 덕목을 밝혀 칭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 송가에서 농촌은 아우구스투스가 제시한 ‘조상들의 모범’이 요구하는 덕목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드러난다. 그 덕분에 지난 세기 내내 호라티우스를 아우구스투스주의자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로마 송가가 사용되었다.

### 3.1 농촌 삶 : 『서정시』 III 1~6

호라티우스 『서정시』 제3권의 첫 번째 여섯 편은 관례에 따라 ‘로마 송가’라 불린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여섯 편이 주제의 유사성과 운율의 통일성에 비추어 연작(連作)<sup>10)</sup>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연구사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연구자들은

9)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투스와 호라티우스가 건강한 로마의 회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놓고 서로 개별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그래서 서로 유사해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Kiessling-Heinze(1968) 263쪽, “Aber weder hat Augustus von Horaz gelernt, noch ist dieser etwa das Sprachrohr des Augustus. Sänger und Princeps stehen im Dienst der gleichen Ideale, in deren Verwirklichung die besten jener Zeit das Heil Roms erblickten.”

10) Amundsen(1972) 111쪽 이하는 Mommsen의 1889년 강연을 인용하여, 로마 송가가 기원전 27년의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Mommsen의 의견을 전달한다. Kiessling-Heinze(1968) 263쪽 이하는 특히 “carmina non prius audita”에서 복수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작

흔히 이 연작을 아우구스투스 개혁의 이념에 지극히 부합하는바 본받을만한 선조들의 모범(*exempla maiorum*)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시로 평가한다. 옛 건강하였던 시절의 로마, 내전으로 세 세대가 고통과 파괴를 겪기 이전의 로마가 가지고 있던 탁월함을 오늘날 정착된 평화의 토대 위에 부활시키려 하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중심으로 로마 송가가 쓰였다는 것이다.<sup>11)</sup> 창작 시기로든 내용으로든 로마 송가의 호라티우스를 ‘아우구스투스의 선전관’으로, 로마 송가를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을 위한 “절묘한 선전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로마 송가는 ‘애국적’이라는 별칭이 붙는다.

로마 송가는 각각 선조들의 탁월한 덕목을 노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연작의 첫 송가는 자족을, 두 번째 송가는 고난을 이겨내는 남자다운 용기, 세 번째 송가는 정의(*iustitia*)를 노래한다. 다섯 번째 송가는 남자다운 용기를 레굴루스의 사례를 들어 보여주며, 여섯 번째 송가는 국가적 종교를 회복시킴으로써 국가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로마 송가는 로마 청년들이 배워야 할, 옛 로마인들이 보여준 소박함, 용감함, 강직함, 정직함 그리고 경건함 등의 덕목을 열거한다.

첫 번째 로마 송가에서 호라티우스가 가르치려는 ‘자족 *quod satis est*’(25행)이다. 그는 시골 삶과 대조되는 도시 삶을 크게 부각한다. 재산과 명예와 권력의 추구가 당연히 하게 받아들여지는 도시 삶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행복과 거리가 멀다(11~21행). 부

---

임을 추론하지만,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의견에는 유보적이며, 『서정시』 제1권 출판 시점에 연작으로 묶였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Schulze(2001) 383쪽 이하는 “*carmina*”가 한편의 시를 구성하는 여러 시행 묶음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본다.

11) Fraenkel(1957) 260쪽, “*products of a subtle propaganda*”, 288쪽, “*the great patriotic cycle*”. 로마 송가를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사건, 사원과 신전의 재건축이라는 공공사업을 시작한 28년 사건을 기준으로 창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고, 로마 송가를 분석할 때 중심은 아우구스투스다.

와 명예와 관직 덕분에 누릴 수 있게 된 풍요롭고 화려한 삶에는 언제나 전설의 다모클레스처럼 불안과 공포와 불면이 떠나지 않는다. 단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산해진미도 맛있는 줄 모르고 즐거운 노래에도 즐겁지 못한 삶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라티우스는 농촌의 가난한 삶(22~24행)이 행복한 단잠을 누린다고 짧게 언급하고 나서, 그것은 도시 사람들이 얻고자 애쓰는 가치들이 아닌 ‘자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호라티우스는 ‘자족’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이런 대조를 통해, 사치와 탐욕을 멀리하고 검소한 삶을 선택하도록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권한다.<sup>12)</sup> 그렇다면 ‘자족’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충분함 *quod satis est*’은 무엇을 뜻하는가? 시인은 시의 후반부(26~48행)에서 이를 다루는바, ‘충분함’은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 멀리 장삿길에서 사울 수도 없는 것이며, 커다란 농장에서 풍요를 약속하는 포도농사를 통해 수확할 수도 없는 것이며, 바닷가에 별장을 짓고 도시에서 멀리 떠난다거나 배를 타고 말을 달려 멀리 다른 땅으로 달아난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온갖 진귀한 보화를 누리고 비싼 포도주를 맛본다고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와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검은 번민”이 부와 명예와 관직을 탐하고 누리고 뒤쫓는 자들을 떠나지 않는 것은(33~44행), 이것들을 추구하도록 그들을 추동한 마음가짐과 태도 때문이다. 앞서 “고향을 떠난다고 자신마저 떠날 수 있을까?”<sup>13)</sup> 라고 물었던 것처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멀리에서 부를 얻을지라도, 부를 얻으려는 욕심을 거두지 않으면 또 떠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은 한, 근심은 이어지고 휴식은 없다.

호라티우스는 자족한 삶의 농촌을 그의 개인적 경험이 투영된 ‘사비눔 계곡’과 동일시한다. 호라티우스가 거주하는 사비눔 계곡은 ‘부드러운 단잠’과 ‘그늘진 강변’과 ‘서풍에 깨어나는 템페 계곡’과 같은 곳으로 파사롭고 한가하고 조용한 농촌의 행복이 이

---

12) Kiessling-Heinze(1968) 265쪽.

13) 『서정시』 II 16, 19행.

루어지는 곳이다. 시인은 자족의 행복을 배우지 못한 ‘속된 무리’(1행)를 아이들에게서 멀리 떼어놓고(1~4행),<sup>14)</sup> 행복함을 가져다줄 자족의 덕을 배우도록 권한다.<sup>15)</sup>

두 번째 로마 송가는 젊은이의 용기(*virtus*, 17행과 21행)를 이야기한다. 젊은이는 군대 복무에서 견뎌야 할 “고단한 가난”(angustam pauperiem, 1행)과 고생스러운 생활여건(sub divo, 5행)을 이겨내며 용감하게 싸운다. 그를 보는 적국의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남편과 약혼자들을 위해 한탄한다(6~12행).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13~16행). 용감한 젊은이는 충직하며, 관직에 나가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대중과 야합하지 않는다(17~20행). 젊은이의 이런 용기는 젊은이에게 신과 같은 불멸성, 불멸하는 명예를 제공한다(21~24행). 가난, 다시 말해 향락과 사치에 젖은 얕은 소박한 태도는 용기 및 용기와 연관된 덕목들을 로마 젊은이들이 갖추는 출발점이 된다.<sup>16)</sup>

두 번째 로마 송가의 한 구절, “조국을 위한 죽음은 달콤한 자랑 *dulce et decorum est*

---

14) 많은 학자는 첫 번째 로마 송가는 애초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어졌다가, 로마 송가 전체의 도입부인 1~4행 혹은 1~8행을 나중에 덧붙여, 연작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 송가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려는 공적 성격의 나머지 다섯 송가와 달리, 시인 개인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질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Fraenkel(1957)은 F. Solmsen(1947)의 견해에 따라, 로마 송가 전체가 애초 연작으로 기획되었으며, 첫 번째 송가의 이질성은 로마의 도덕적 회복의 과정이 시인 개인이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해 걸었던 길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Schulze(2001) 383쪽은 첫 번째 송가의 1~4행이 첫 번째 송가의 종결부와 짝을 이루는 이런 앞뒤 연결 구조는 첫 번째 로마 송가 전체의 완결성을 증명하며, 그래서 또 1~4행은 연작의 도입부라는 이중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15) Syndikus(1973) 4쪽. ‘훌륭한 시인’의 이념에 비추어 시인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 송가다.

16) Syndikus(1973) 25쪽. 『서정시』 I 12, 43행 이하, “혹독한 가난과 조상에게 물려받은 작은 집과 땅이 단련시켰습니다.”



*pro patria mori*”(13행)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에서 흔히 인용되던 시행으로, 희랍 엘레기 시인들에게서도 같은 의도로 쓰인 애국주의적 구호이기도 하다. 선동적 권고의 이 구절은, 용기를 보여야 할 상황에서도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다른 유약하고 비겁한 젊은이들(14~16행)에 대조하여, 조국을 위해 싸우며 죽음의 위기를 달갑게 받아들이고 출전하는 젊은이의 용기를 부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시인의 목적은 애국적 헌신의 권고와 칭송이 아니다.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그런 쉽지 않은 헌신을 선택한 용기를 위로하려 함이다. 이것은 전쟁을 선동하고 참전을 격려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으로 싸움터로 내몰린 젊은이가 감수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달래려는 목소리다.<sup>17)</sup>

세 번째 로마 송가는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인 정직함 혹은 올바름(*iustum*, 1행)을 노래하는데, 시인은 젊은이들에게, 불의에 굽히지 않으며 올바름을 견지하여, 흔들지 않는 “굳센 마음”(mente solida, 4행)을 가진, 절대 겁먹지 않는(*impavidum*, 8행) 용기 있는 사내이기를 요구한다.<sup>18)</sup> 이런 영웅의 예로 폴릭스와 헤라클레스, 박쿠스 신과 전쟁의 신 퀴리누스를 열거한다(9~16행). 그리고 이들 가운데 나란히 자리하는 인물은 아우구스투스다(11행).

호라티우스는 유노 여신을 내세워, 여신의 입으로 직접 로마가 영원 무궁히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될 “조건”(lex, 57행)을 연설하게 한다(17~68행). 트로이아의 재건을

---

17) 『서정시』 I 2, 23행 이하, “선대의 죄로 벌어진 전쟁, 전쟁 함성을 몇 안 되는 후손이 들겠다.

*audiet pugnas vitio parentum rara iuventus.”* Lowrie(2007) 84쪽 이하 “the famous dulce et decorum est pro patria mori...is easily excerpted as a gnome, but the sad regret of the surrounding context tempers any apparent patriotism.”

18) Fraenke(1957) 269쪽, “...but it must not make us forget that a just and brave man’s steadfastness was to Horace something essential and noble, something he was glad to praise.”

시도하지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트로이아가 올바름과 정의를 따르지 않고 신들을 속였기에,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을 속여 그의 아내를 탐하였기에, 신들과의 맹세를 깨뜨렸기에 멸망할 수 없었다는 것이 유노 여신의 경고다. 유노의 약속에 따르면, 로마가 트로이아의 구악을 답습하지도 않고 트로이아를 복구하지도 않는다면(37~42행), 로마는 세상의 끝에서 끝까지, 동쪽 끝 메디아(43행)를 정복하고, 이집트(48행), 서쪽 끝 아프리카(46행)를 다스리며, 북쪽 끝 안개와 비의 땅에서 남쪽 끝 뜨거운 사막까지(54~55행) 지배하게 된다.

유노 여신은 로마 번영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 더 덧붙인다(49~52행).

aurum, irrepertum et sic melius situm

cum terra celat, spernere fortior

quam cogere humanos in usus

omne sacrum rapiente dextra

신성함을 모조리 훼손하는 손으로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 모으지 말고

황금은 대지에 감춰 두는 게 나으니,

황금을 찾지 않고 용감히 멀리한다면

물론 이것은 로마 번영의 직접적 조건으로 유노 여신이 제시한 것은 아니다. 여신이 애초 요구한 것은 다만 트로이아 부활의 금지였다.<sup>19)</sup> 하지만 ‘길 넓은 도시’<sup>20)</sup>라고 불리며 부와 번영을 구가하던 트로이아를 재건하지 말하는 조건은 ‘황금을 멀리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황금과 부, 번영과 사치가 트로이아의 도덕적 타락, 올바름과 정의

19) Kiessling-Heinze(1968) 282쪽.

20) 예를 들어 『일리아스』 제2권 12행 등.

의 몰락을 가져왔고, 도덕적 타락으로 올바름과 정의를 지키지 못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노 여신의 경고다.<sup>21)</sup> 호라티우스는 부와 사치의 ‘거부(*spernere*, 50행)를 용기(*fortior*, 50행)라고 설명하며, 로마인의 타고난 용맹함(*bellicosi Quirites*, 57행)을 그대로 지킨다면, 허영과 사치를 피하고, 그것이 불러오는 타락과 방종을 막는다면,<sup>22)</sup> 이로써 정의와 올바름으로 굳센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로마의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네 번째 송가는 무사 여신들을 칭송하면서, 무사 여신들이 “높은 카이사르”(Caesar *altus*, 37행)를 돌보기를 기도하는 노래다. 호라티우스는 무사 여신들을 부른다(1~4행). 이어 시인 자신이 무사 여신들의 보호를 받았던 개인적인 경험들이 열거되고 앞으로도 여신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기원한다(5~36행). 그리고 20연으로 구성된 전체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열 번째 연에서 시인은 드디어 네 번째 송가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바, 내전을 종식하고 노병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커다란 노고를 겪은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를 회복시켜 보호해주길 여신들에게 간청하고 기도한다(37~42행). 그에게 “지혜 *consilium*”(41행)를 주실 것을 요청한다. 무사 여신들이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덕분에 그는 “절제하는 힘 *vis temperata*”(66행)을 알게 될 것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유피테르는 그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호라티우스는 반대되는 예들, 유피테르에게 불경하게 도전하였던 무리의 불행을 열거한다(43~80행).

그런데 무사 여신들이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에게 주는 지혜에는 ‘*lene*’(41행)라는

21) Fraenkel(1957) 270쪽, “*her(Juno’s) warning against greed*”.

22) 『서정시』 III 24, 48행 이하 “혹은 가까운 바다에 진주와 귀한 보석에 보태어 무익한 황금, 악업을 부추기는 물건을 던져버리자, 진정으로 죄를 후회한다면. *vel nos in mare proximum gemmas et lapides aurum et inutile, summi materiem mali, mittamus, scelerum si bene paenitet.*”

단어가 붙어 있다. 대개 수식어로 받아들여지며 ‘부드러운’이라는 뜻을 해석하는데, 이는 우선 내전 동안 반대편에 섰던 자들에 대해 카이사르가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과 연관된다고 해석되며,<sup>23)</sup> 나아가 자기 절제와 경건한 태도를 가리킨다고 여겨지곤 한다.<sup>24)</sup>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태는 것은 열일곱 번째 연이다. “지혜 없는 힘은 제 무게로 쓰러질지니. 신들은 절제하는 힘을 더욱 위대한 위업으로 이끌며, 영혼에 온갖 불경을 부추기는 힘을 증오합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지혜”는 “불경한 *impios*”(42행), “무모한 *audax*”(56행), “불경 *nefas*”(68행) 등과 반대되는 것이며, “공정하게 통치하시는 *imperio aequo*”(48행)과 “절제하는 힘 *vim temperatam*”(66행) 등과 같은 뜻을 가진다. “부드러운 지혜 *lene consilium*”는 무사 여신들이 주는 “빛과 이성과 조화”<sup>25)</sup>이다. 통치자는 이를 무사 여신들에게서 배워, 적대적이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세력에 대해 위엄과 힘을 보이면서 이를 제압하는 동시에,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국가적 안녕과 사회적 화합을 성취하길 시인은 기원한다.

이번에 무사 여신들이 “부드러운 지혜”와 근심을 떨쳐버린 “회복”을 카이사르 아우 구스투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예전에 무사 여신들은 시인에게 그러하였다(5~36행).<sup>26)</sup> 어린 시절 그때부터 내내 무사 여신들이 시인을 도운 것처럼, 카이사르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며, 노고에 지친 카이사르를 회복시켜줄(*recreatis*, 40행) 생명의 잠을 호라티우

---

23) Kiessling-Heinze(1917) 290쪽 이하 “*clementia*”, Fraenkel(1957) 281쪽 이하 “*φιλόφρων ἡσυχία*”, Reckford(1959) 197쪽 “*humanity and clemency*”, Syndikus(1972) 63쪽 “*milder Rat*”. West(2002) 44쪽 “*gentle counsel*”, Nisbet-Rudd(2004) 69쪽, “*mildness and forgiveness*”, Günther(2013) 393쪽 “*gentle advice*”.

24) Kiessling-Heinze(1968) 291쪽.

25) Fraenkel(1957) 282쪽. Syndikus(1973) 63쪽.

26) Fraenkel(1957) 274쪽 이하. 연구자들은 호라티우스의 개인사와 아우구스투스의 회복이라는 전후의 이분 구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의문을 가졌다.

스는 무사 여신들에게 기도한다.<sup>27)</sup>

네 번째 송가의 처음에 호라티우스는 무사 여신들을 부르고, 이어 무언가를 듣는 것은 듯 독자에게 말한다. “너희도 들리는가 *auditis?*”(5행). 이내 무사 여신들과 함께 시인은 “사랑스러운 황홀 *amabilis insania*”(5~6행)에 이끌려, “아름다운 시냇물”(7행)과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숲”(8행)으로 들어선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의 어느 날이 시인의 눈앞에 나타나고, 시인은 아직 말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infans*, 20행)였던 자신이 ‘도금양 덩불을 이불 덮고’(19행) 고요히 잠들어 있는(18행) 것, 신들의 도움과 보호가 있었기에 “씩씩한 *animosus*”(20행) 모습으로 깨어난 자신을 떠올린다. 또 어린 시절의 공간을 닮은, 사비눔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이름 높은 고장들, 프라이네스테, 티부르와 바이아이 등의 공간이 열거되고(21~24행), 이어 세 번에 걸쳐 목숨을 잃을 뻔하였던 일화들이 열거되는데(25~28행), 이런 모든 것들은 무사 여신들의 가호 아래 목숨을 건지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던 경험을 가리킨다. 그리고 무사 여신들의 보호가, 물론 실제로 시인이 그곳을 찾아가지는 않겠지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시인과 함께할 것임을 장담한다(29~36행).

---

27) Fraenkel(1957) 277쪽 이하에서 로마 송가 IV를 핀다로스의 『튀티아』 1번과 비교한다. 핀다로스에 따르면 무사 여신들은 잠과 회복의 능력이 있다. 핀다로스 『튀티아』 1번, 1~12행 “황금의 뒤편, 아폴론과 검은 머리의 무사 여신들의 합당한 몫이며, 당신에게 축제의 시작인 합창대의 발걸음이 귀 기울이며 합창대의 가수들도 당신의 신호에 복종합니다. 당신이 울리는 현으로 합창대를 이끄는 서곡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면 영원한 불꽃인 끝이 뾰족한 번개를 끌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제우스의 홀 위에서 양쪽으로 빠른 날개를 내리고 잠이 듭니다.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눈까풀의 달콤한 자물쇠인 당신은 독수리의 굵은 머리에 짙은 구름을 쏟아 붓는다. 그는 잠자며 당신이 던지는 음악에 사로잡혀 등을 유연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레스도 사나운 창끝을 버려두고 깊은 잠으로 마음을 달랜다. 레토의 아들과 옷 주름 깊은 무사 여신들의 숨씨와 더불어 당신의 화살은 신들의 마음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담을 앞서 팔라게의 노래(『서정시』 I 22)에서도 우리는 보았던바, 거기서 시인은 세속적 욕심과 욕망에서 해방된 시인에게 찾아온 평화를 누구도 무엇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또 숲에서 씩씩하게 깨어난 어린 시절의 호라티우스를 지켜주던, 첫 번째 로마 송가의 “부드러운 단잠 *lenis somnus*”(22행)의 장소를 시인은 “농부들의 누옥”, “그늘진 강변”, “서풍에 깨어나는 계곡” 등으로 이름 부르고 있는바, 이는 자족을 아는 사람이 세속적 욕망과 욕심을 잊고 살아가는 무사 여신들의 공간이었다. 부드러운 단잠의 공간이 그런 것처럼, 네 번째 로마 송가에서 언급된 어린 시인의 일화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영 속의 공간들(21~24행)도 마찬가지로 무사 여신들의 공간이다. 이는 다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지혜와 회복을 전달할 장소, “피에리아의 동굴 *Pierio antro*”(40행)라는 무사 여신들의 또 다른 신화적 공간으로 이어진다. “노고를 끝마치려는 *finire quaerentem labores*”(39행) 아우구스투스를 회복시키고 지혜를 가르쳐줄 피에리아의 동굴은, 무사 여신들과 함께 이르게 되는 사랑스러운 황홀 속의 공간, 아름다운 물가, 따뜻한 서풍의 계곡과 다르지 않다.

시인 개인의 경험에서 통치자의 칭송으로 이어지는 네 번째 송가에서 시인은, 무사 여신들의 공간이 앞서 그에게 소박함과 자족의 행복과 그 지혜를 깨닫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피에리아의 동굴이 “위대한 카이사르”에게 역설적이게도 “소박함의 지혜 *lene consilium*”, 자족의 지혜를 가르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호라티우스는 자신이 발견한 행복한 삶으로서의 농촌 삶이 가져다주는 삶의 지혜와 행복을 위대한 통치자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길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송가의 주제는 ‘용기’이며, 세 번째 송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번에는 유노 여신의 연설 대신 레굴루스의 연설이 자리한다.<sup>28)</sup> 세 번째 송가와 다섯 번째 송가는 네 번째 송가를 싸고 있는 일종의 틀<sup>29)</sup>로 이해될 수 있는데, 앞뒤의 송가가 둘

28) Fraenkel(1957) 272쪽, “The structure of Odes iii. 5 and that of iii. 3 show a marked parallelism.”

다 공통으로 ‘용기’를 다루고 있다.

여섯 번째 송가는 로마의 어두운 미래를 미래의 “로마인”(2행)에게, 당연히 첫 번째 송가의 “소년 소녀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노래다.<sup>30)</sup> 시민들의 도덕적 타락은 내전과 국가의 몰락을 불러왔으며, 이런 대결과 투쟁은 파국과 종말을 향해 점점 그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며, 이를 되돌리기는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인다(45~48행). 무너진 신전과 파괴된 신상(1~6행), 혼인의 문란과 부정한 사랑(17~32행) 등은 역병이 되어 로마를 병들게 하고, 인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20~21행),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가는 로마를 외적들은 정복하고 있다(9~16행).

하지만 이런 파국과 몰락에 직면한 로마에도, 이탈리아를 침공하였던 퀸투스 카르타고의 한니발, 안티오쿠스를 물리쳤던 옛날의 영광이 있었다(33~36행). 당시의 로마인들은 현재의 로마인들과 달리 도덕적으로 엄격하였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인하였고 용감하였기에 이런 영광을 누렸던 것인데, 이런 도덕적 탁월함은 똑같이 도덕적 탁월함에 있어 빛나던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33행). 여기서 호라티우스는 도덕적 탁월함의 모범을 제시한다(37~44행).

*sed rusticorum mascula militum*

---

29) Fraenkel(1957) 273쪽.

30)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호라티우스의 『비방시』 XVI과 VII 등 비관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초기 저작들을 보았으며, 여섯 번째 로마 송가는 이런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다. Fraenkel(1957) 287쪽 이하는 이런 염세주의적 세계관이 초기 서정시가 출간된 기원전 23년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비방시들을 발표할 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또 이런 종류의 시에서는 낙관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것이 효과적이라고 시인이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호라티우스의 현실에서 농촌 삶과 농부의 삶이 주는 행복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과거 비방시의 암울한 정조를 빌어왔다고 본다.

proles, Sabellis docta ligonibus  
versare glebas et severae  
matris ad arbitrium recisos

portare fustis, sol ubi montium  
mutaret umbras et iuga demeret  
bobus fatigatis, amicum  
tempus agens abeunte curru.

농촌에서 자란 병사들의 사내다운  
자손은 밭에서 사비늬의 곡괭이로  
흙덩이를 뒤집고, 엄한 어미의  
지시를 받들어 패놓은 장작을

익숙하게 짊어져 나른다. 태양이  
마차를 멈춰 세우고 달콤한 시간을  
이끌어 오고, 산 그림자가 바뀌어  
지친 소들이 멍에를 풀 때까지.

농촌 삶에 익숙한 청년, 가난과 척박한 환경을 견디며 부지런하게 불평 없이 주어진 일을 수행하던 청년, 종일 멈추지 않고 ‘엄격한 어미의 지시에 따라’(39행) 성실하게 일하던 소년은 강인한 부모들의 가르침으로 역시 강인한 청년으로 장성하여, 고단함과 척박함을 견디며, 사내다운 모습으로 용감하게 적과 싸울 수 있었다.<sup>31)</sup>

---

31) Büchner(1939) 159쪽, “*Römische Bauern, die ein hartes Leben im Kampf mit dem Boden führen, wie es Vergil in den Georgica mit seiner Last, aber auch mit seinem Glück*



이렇게 볼 때 호라티우스의 ‘로마 송가’는 전반적으로 농촌 삶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때로 사비눔(I 47행과 IV 38행)이라는 구체적 이름이 거명되지만, 로마 송가의 농촌을 사비눔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로마 송가는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강인하며, 부지런하고 충직하였던 옛날의 로마, 농촌에서 땅을 일구며 씩씩하게 살아가던 행복하였던 시절, 생명력과 기운이 넘쳐흐르던 건강하였던 시대를 회상하는 가운데, 본받아야 할 도덕적 탁월함과 덕목의 본모습을 미래의 로마인들에게 제시하여 행복한 삶의 권고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성과는 당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으며, 그것은 호라티우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평화가 정착되었다. 호라티우스는 아우구스투스를 평화를 회복한 사람으로 칭송하며,<sup>32)</sup> 이런 칭송은 아우구스투스가 이룩한 현실 정치에 대한 시인의 기대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칭송을

---

*geschildert hat, empfinden in Zufriedenheit und Maßhalten das Glück über die gedeihende Arbeit.”*

- 32) 평화의 칭송이 아우구스투스 정치의 조건 없는 찬동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서정시』 I 12를 두고 Kaus(1997) 224쪽, “*ein bewusstes Bekenntnis des Dichters zum Prinzipat*”이라고 보았다. 『서정시』 I 12에서 중심이 되는 시행은 “위대한 카이사르를 돌보시고 카이사르에게 호의를 베푸사 당신 치세를 이어가소서”(50~52행)인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치세의 칭송이라기보다 아우구스투스가 따라야 할 유피테르의 명령이다. “당신의 바른 시종은 기쁜 세상을 만들 겁니다”(57행)은 아우구스투스에게 거는 기대다. Poiss(1992) 153쪽, “*Das Musische ist kein gesonderter Bereich, sondern selbst wiederum politisch. Verloren gingen zu Phillippi die primären Lebensimpulse, die Flügel. Horaz’ Werk und vor allem die erste Odensammlung lässt sich gleichsam als zweites Leben, als zweiter nicht weniger ehrgeiziger Versuch lesen, seine virtus doch noch zu verwirklichen, freilich im Frieden mit der herrschenden Macht, mit dem eben erst sich konsolidierender Prinzipat.*”

근거로 호라티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 호라티우스가 새로운 사회와 행복한 미래를 농촌 삶에서 찾았다고 주장할 때, 이런 기대와 칭송은 시인의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환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2 가난 : 『서정시』 II 16

자족을 비롯하여 로마 송가가 다룬 많은 주제는 초기 서정시 여기저기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우리는 앞서 이런 주제들이 아우구스투스가 주창한 조상들의 모범과 중복되면서도 농촌 삶의 덕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명히 하였다. 이제 나아가 초기 서정시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뽑아, 농촌 삶의 덕목 혹은 행복한 농촌 삶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로마 송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아우구스투스의 정치 개혁 이념과 중복되지 않는, 시인 호라티우스에게 고유하고 특징적인 행복한 삶의 이념을 보여줄 것이다.

행복한 삶으로서의 농촌 삶은 마음을 괴롭히고 요동치게 하는 사나운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난 — 에피쿠로스의 말을 사용하자면 ἀταραξία — 자족의 삶이다. 자족의 삶은 욕망과 욕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가난한 삶이며,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이게도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농촌 삶에서 가난의 의미가 ‘평온’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다루어진다.

otium divos rogat in patenti  
prensus Aegaeo, simul atra nubes  
condidit lunam neque certa fulgent

평온을 신들에게 에게 해 넓은 바다에  
발이 묶여 빌어본들, 검은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뱃사람을 안내하던

sidera nautis,

별들도 빛을 잃었다.

5 otium bello furiosa Thrace,

평온을 지독한 트라키아 전쟁으로도,

otium Medi pharetra decori,

평온을 장식된 메디아 활통으로도,

Grosphe, non gemmis neque purpura venale neque auro.

진주와 값진 염료와 보화로도 평온을 그로스푸스여, 살 수는 없는 일.

non enim gazae neque consularis

페르시아 왕실 寶庫도, 집정관의

10 summovet lictor miseros tumultus

수행원도, 황금 천장 아래 이리저리

mentis et curas laqueata circum

떠다니는 마음속 가려한 혼란과

tecta volantis.

근심을 결코 쫓지 못하기 때문이다.

vivitur parvo bene, cui paternum

가난으로 행복하나니, 작은 식탁 위에

splendet in mensa tenui salinum

조상이 물려준 소금통이 빛을 발하며,

15 nec levis somnos timor aut cupido

지저분한 걱정과 욕심은 가쁜한

sordidus aufert.

단잠을 빼앗지 않으리다.

quid brevi fortes iaculamur aevo

짧은 삶을 사는 우리는 어찌하여 애써

multa? quid terras alio calentis

많은 것을 추구할까? 어찌 낯선 태양이

sole mutamus? patriae quis exul

끓는 땅을 찾아갈까? 고향을 떠난다고

20 se quoque fugit?

자신마저 떠날 수 있을까?

scandit aeratas vitiosa navis

악습에 찌든 근심은 청동 무장 함선에

Cura nec turmas equitum relinquit,

동행하며, 기병 무리를 떠나지 않으며,

ocior cervis et agente nimbos  
ocior Euro.

사슴떼보다 빠르고, 구름을 몰고 오는  
동풍보다 빠르다.

25 laetus in praesens animus quod ultra est 현재에 만족하는 영혼은 멀리 나중의  
oderit curare et amara lento 근심을 멀리하길. 태평한 웃음으로  
temperet risu. nihil est ab omni 쓰라림을 다스리길. 과연 모든 일에서  
parte beatum. 행복할 수는 없나니,

abstulit clarum cita mors Achillem,  
30 longa Tithonum minuit senectus,  
et mihi forsan, tibi quod negarit,  
porriget hora.

명예로운 아킬레스는 일찍 요절하였고  
티토노스는 늙어가며 한없이 늙어갔다.  
너에겐 안 된다 하였던 시간이 어찌면  
나에겐 허락될는지도.

te greges centum Siculaeque circum  
mugiant vaccae, tibi tollit hinnitum  
35 apta quadrigis equa, te bis Afro  
murice tinctae

네 주변에서 수백 가축들, 시킬리아의  
암소들이 울고, 사륜마차를 끌기 좋은  
암말들이 소리내어 울고 너는 아프리카  
소라 고동 염료로 두 번

vestiunt lanae: mihi parva rura et  
spiritum Graiae tenuem Camenae  
Parca non mendax dedit et malignum  
40 spernere vulgus.

물들인 옷을 입는다. 내겐 가난한 시골,  
희랍 무사여신에게 배운 가녀린 노래를  
속임 없는 운명의 여신이 허락하였다.  
질투에 눈먼 무리와 멀찍이 떨어지길.

호라티우스는 여기서 “가난으로 행복하나니 *Vivitur parvo bene*”(13행)를 노래하는데,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평온 *otium*”이라고 부른다.<sup>33)</sup> 첫머리에 세 번 반복되는 “평온 *otium*”은 위협적인 먹구름과 폭풍우에 맞선 무모한 항해(1~4행)에 대조되는 고요함과 평온함, 또 무서운 전쟁 혹은 전쟁 위협(5~6행)에 대조되는 평화와 휴식을 나타낸다. 이는 에피쿠로스의 ‘무풍 *γαλήνη*’을 가리키는데, 에피쿠로스가 ‘무풍’을 고통 부재의 행복을 의미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sup>34)</sup> 호라티우스의 ‘평온’도 폭풍처럼 혹은 전쟁처럼 사나운 욕망이 사라진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부유한 상인들, 두려움을 모르는 군인들, 그리고 막강한 정치가들도 평온을 갈구한다.<sup>35)</sup> 그런데 이들이 평온을 구함에 있어 채택한 방법은, 한없이 재산을 늘리는 것, 혹은 멀리 동방의 이방인들을 제압하는 것, 혹은 커다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

---

33) Fraenkel(1957) 212쪽 이하를 보면, 호라티우스는 ‘*otium*’을 행복한 삶과 나라를 망가뜨리는 부정적 의미로 보는 카툴루스와 달리, ‘*otium*’을 칭송한다. ‘*otium*’의 긍정적 의미가 로마에서 나타난 것은 공화정 후기로 보인다. Stoecklein(1982) 201쪽 이하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치적 격변의 시대에 철학적 관조적 삶을, 학문적 철학적 문제에 몰두하는 삶을 이상적 삶의 원형이 되는 ‘*otium*’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키케로는 “*otium*”을, 공적인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 주어진 여가와 평온으로 보았다. 『세스티우스 변호연설 *Pro Sestio*』 98, “*Id quod est praestantissimum maximeque optabile omnibus sanis et bonis et beatis, cum dignitate otium. Hoc qui volunt, omnes optimates, qui efficiunt, summi viri et conservatores civitatis putantur.*”

34) Epicurus(1926) *Herod.* 83, “πρὸς γαληνισμόν”.

35) 이하에서 언급되는 직업들은, Fraenkel(1957) 231쪽 이하가 언급한바, 마케케나스 헌정시(『서정시』 I 1)의 “*survey of the different Bόι*”를 떠오르게 한다. 여기서 호라티우스는 올림피아 경기의 승리자, 로마 최고의 정무관, 막대한 재산을 가진 대지주와 상인 혹은 정복 전쟁의 군인 등을 차례로 언급하였다. 대지주와 상인에 대조적으로 농부가, 정복 전쟁의 군인에 사냥꾼이 대비된다.

지만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정반대의 것이었다. 이들은 “황금 천장 아래 이리저리 떠다니는 마음속 가련한 혼란과 근심을 결코 쫓지 못한다”(10행 이하). 이들은 권력과 재력을 향한 모든 노력에도 “평온”에 도달하지 못하며<sup>36)</sup>, 신들에게 올리는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얻지 못한다(1행). “평온”은 재력 혹은 권력으로 구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7~8행).

다시 세 번 반복되는 의문문을 시작으로, 시인은 미래의 평온을 위해 권력과 재산을 쌓고 획득하려는 자들에 대한 그 무모한 태도와 절망적 상황을 눈앞에 떠올린다. “짧은 삶을 사는 우리는 어찌하여 애써 많은 것을 추구할까?”(17행 이하). 여기서 “많은”은 재산과 권력을 가리키는바, 재산과 권력의 많음이 ‘평온’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 없는 평온을 찾아, 어디 먼 곳을 먼 훗날을 기약하며 떠돌아다닌다. “어찌 낫선 태양이 끓는 땅을 찾아갈까?”(18행 이하). 과연 미래의 어디 다른 곳에서 장차 부와 권력을 얻게 되면 평온은 따라오는 것인가?<sup>37)</sup> 하지만 평온을 얻지 못함이 과연 부와 권력의 부재 때문일까? “고향을 떠난다고 자신마저 떠날 수 있을까?”(19행 이하). 시인은 “많은”이 평온을 가져올 것으로 믿음 때문에 오히려 평온은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한다.<sup>38)</sup> 이들이 멀리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르고 말 등에 앉으면, 이런 잘못된 생각<sup>39)</sup>에 휘둘리는 이들을 절대로 떠나지

---

36) Büchner(1957) 177쪽 이하.

37) Kogelschatz(1975) 60쪽, “*In dem Streben nach Mehrwerden ist der Mensch im strengen Sinne nie hier, sondern immer da und dort, immer außer sich an mehr oder weniger entfernten Orten.*” 61쪽, “*Der Besitzende lebt streng genommen nie jetzt, sondern in der Zukunft als dem Möglichkeitsfeld der Besitzerweiterung.*”

38) Liebermann(1971) 300쪽, “*Habgier hat Unruhe im Gefolge und führt darüberhinaus zu einem höchsten Gefahren ausgesetzten Leben. Mehrung des Reichtums verbürgt nicht das otium, lässt es vielmehr in unerreichbare Ferne rücken.*”

39) Pöschl(1956=1991) 128쪽 이하, 21행 “*vitiosa Cura*”를 ‘*cura vitiosi*’나 ‘*cura vitiosorum*’로

않으며 언제나 이들과 동행한다(21행 이하).<sup>40)</sup> 헛되며 가망 없고 무모한 분투를 멈추고 이런 분투를 부추기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평온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정신적인 내면적인 태도의 문제로 환원된다.<sup>41)</sup>

‘가난 *parvum*’(25행)을 견디지 못하는 이에게 가난은 당연히 ‘쓰라림 *amara*’(27행)이고 고통이다. 평온한 고향에서 행복을 얻었던 상인은 곧 고향의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sup>42)</sup> 하지만 평온을 얻으려는 온갖 시도는, 평온이 언제나 “멀리 나중의 일”(25행)로 머무는 쓰라린 경험으로 상인에게 되 돌아온다.

수신인 그로스푸스(7행)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의 재산은 일백 마리 가축 들인바, 그것은 누구도 그보다 더 가질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이다. 일백 마리(*centum*, 33행)는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완전함은 많음을 의미하는데, 완전함보다 더 많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사료마차, 붉은색으로 물들인 고급스러운 의복은 그로스푸스의 위신과 지위를 나타낸다. 이것들은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정도면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평온한 삶을 누리려 한다. 부족한 것이 없고, 더는 추구할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멀리 나중”(25행)

---

해석한다.

40) 이와 똑같은 생각이 『서정시』 III 1, 37행 이하에도 반복된다. “공포와 불안은 집주인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서며 검은 번민은 청동 전함에서 내리지 않고, 말 탄 등 뒤에 올라앉는다.

*sed Timor et Minae scandunt eodem quo dominus; neque decedit aerata triremi et post equitem sedet atra Cura.*”

41) Latte(1935) 298쪽, “erst mit se quoque fugit wendet sich Horaz wieder zu der inneren Verfassung des Menschen.”

42) 『서정시』 I 1, 15행 이하를 보라. “*luctantem Icariis fluctibus Africum mercator metuens otium et oppidi laudat rura sui; mox reficit ratis quassas, indocilis pauperiem pati.* 이카루스 바다와 씨름하는 험한 서풍이 두려워 고향의 여가와 흙의 삶을 추켜세우던 장사꾼은 곧 파손된 배를 고쳐 가난을 참지 못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을 걱정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로스푸스는 아직 “평온”을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평온은 전쟁으로 탈취할 수 있는 것이, 권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재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8행).<sup>43)</sup>

‘평온’은 그로스푸스가 생각하듯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투쟁’하지 않는 시인은 ‘평온’을 살고 있으며, “마음속 가련한 혼란과 근심”(11~12행)은 시인에게서 멀리 있다. 시인은 작은 시골 땅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고, “질투에 눈먼 무리”(39~40행)와는 멀리 떨어져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시인의 단출한 식탁에는, 그로스푸스가 누렸을지 모를 멀리 이국땅에서 구해온 진귀한 향신료들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오직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소금통이 빛을 발하는”(14행) 시인의 식탁에는 “지저분한 걱정과 욕심”(15행)이 없다. 시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한다(37행). “가난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vivitur parvo bene*”(13행) 지금 이 순간, 시인에게는 운명은 그로스푸스에게 허락하지 않은 평온을 허락한다. 그에게 평온은 평생토록 보장된 것인바, 그에게 “운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39행). 이때 호라티우스에게, 그로스푸스의 “쓰라림”과 반대되는바, “단잠”(16행)과 “태평한 웃음”(26행), 행복한 삶이 찾아든다.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와 권력을 찾는 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지만, 평온은 “현재의 삶”(25행)에 만족하는 자에게만 돌아간다.

마무리 연에서 “가녀린 노래 *tenuis spiritus*”(38행)는 무사 여신들이 시인에게 배운 것을 가리키는바, 크고 화려하고 넘치고 사치스러운 무엇이 아닌 ‘보잘것없는 *tenuis*’ 것에도 즐거워 노래하는 ‘마음 *spiritus*’를 가리킨다. 이렇게 소박하고 작은 것에 만족할 아는 정신적 태도는, 시의 도입부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었던 “평온”이 표현하는 마

---

43) Kogelschatz(1975) 63쪽, “*Im Dort und Dann der finalen Lebensweise gelangt der Mensch nie zur unmittelbaren Gegenwart. Die Reichen, und zwar, wie immer wieder hinzugefügt werden muss, als Repräsentanten der Grundhaltung des ergänzungssüchtigen Aufgreifens, sind nie im Augenblick.*”



음가짐과 연결할 수 있다.

행복한 삶에 대해 이러한 정신적 태도와 마음가짐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시인이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가난한 시골 *parva rura*”(37행)과 동시에 시인에게 허락되었다. 행복한 삶의 생각을 변함없이 간직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동시에 시인에게 허락된 농촌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3.3 은둔 : 『서정시』 I 22

행복한 농촌 삶이 욕망에서 벗어난(*ἀταραξία*) 자족의 가난한 삶이 주는 평온이었다면, 이번에는 행복한 농촌 삶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를 멀리 떠난 은둔의 삶이다. 이런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농촌의 삶은 마치 멀리 버려지고 황폐한 곳을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시인이 보기에 후미지고 궁벽한 외딴 골짜기에 은둔한 삶에서 근심은 오히려 멀리 있고, 그렇다면 위험과 근심이 멀리 있는 안전(*ἀσφάλεια*)은 에피쿠로스가 말한 고통 부재의 행복이다. 은둔의 삶은 안전한 삶이며, 따라서 행복한 삶이다.

integer vitae scelerisque purus  
non eget Mauris iaculis neque arcu  
nec venenatis gravida sagitiis,  
Fusce, pharetra,

죄는 티끌만 한 것도 없는 삶에  
마우리의 창과 활은 필요치 않고,  
독화살로 가득 채운 화살 통도  
필요치 않다, 푸스쿠스여!

5 sive per Syrtis iter aestuosas  
sive facturus per inhospitalem

불타는 쉬르티스를 여행하거나  
손님을 배척하는 카우카수스, 전설이

Caucasum vel quae loca fabulosus  
lambit Hydaspes.

무수히 흘러가는 휘다스페스의  
땅을 지날 때라도.

namque me silva lupus in Sabina,  
10 dum meam canto Lalagen et ultra  
terminum curis vagor expeditis,  
fugit inermem;

사비눔의 늑대도 무장 않은 나를,  
랄라게를 노래하며 마을의 경계 넘어  
근심치 않고 멀리까지 쏘다니던  
나를 해하지 않았다.

quae portentum neque militaris  
Daunias latis alit aesculetis  
15 nec Iubae tellus generat, leonum  
arida nutrix.

싸움꾼 다우니아스도 큰 떡갈나무  
숲에서 키운 적 없고, 유바의 대지,  
사자들의 메마른 젖줄도 낳은 적 없는  
그런 무서운 짐승이.

pone me pigris ubi nulla campis  
arbor aestiva recreatur aura,  
quod latus mundi nebulae malusque  
20 Iuppiter urget;

나를 데려다 불모지에, 아무런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열풍의 땅에, 안개와  
흑독한 유피테르가 다스리는 땅에  
데려다 놓아라.

pone sub curru nimium propinqui  
solis in terra domibus negata:  
dulce ridentem Lalagen amabo,  
dulce loquentem.

태양의 마차가 아주 가까이 지나는,  
사는 이 없는 땅에 데려다 놓아라.  
난 노래하리라. 즐겁게 웃는 랄라게,  
재잘거리는 그녀를.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시는, 충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 인간은 낯선 곳에도 위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하는 시다. Nisbet-Hubbard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인간 전형을 카토의 스토아주의적 인물에서 찾았는데, 카토는 기원전 47년 북아프리카의 험난한 행군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이 시의 6행 이하에 언급된 지명들이 이런 행군 경로를 상기시킨다는 것이다.<sup>44)</sup>

또 시인도 충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인간으로 심지어 늑대를 마주치더라도, 사랑의 충직함을 지키는 인간을 돌보는 베누스의 가호 아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고 *cantare*”(10행), “사랑하는 *amare*”(23행) 삶을 사는 것은 그가 “죄는 티끌만 한 것도 없는 삶 *integer vitae scelerisque purus*”(1행)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사랑의 여신 베누스가 만약 누군가를 지켜준다면 그것은 그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해석은 매우 이례적이다.<sup>45)</sup>

여기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비누스의 농촌 삶이 도시인 푸스쿠스의 시각에서 보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푸스쿠스의 시각에서 사비누스는 무서운 늑대의 고향(13~16행)이다. 도시의 성벽 밖은 어쩌면 온갖 위험으로 가득하고(5~8행) 사람이 도저히 행

---

44) Nisbet-Hubbard(1970) 262쪽 이하. 하지만 옥스퍼드 주석가들은 첫 시행의 엄숙한 분위기에 불구하고 시를 전체적으로 사랑의 시로 본다. 263쪽 이하, “*The type of poetry alluded to is love poetry, not the most serious sort.*”

45) Fraenkel(1957) 187쪽, “*In integer vitae it is the lover and writer of love-poems who will be safe wherever he goes. Elsewhere Horace widens and deepens this idea : the poets(not only the writer of love-poems) will everywhere and in every danger enjoy the protection his divine guardians, the Muses, and of the gods in general.*” Syndikus(1972), Doblhofer(1977), Lefèvre(1977), West(1995)도 이런 견해를 따른다. Schmidt(1997) 97쪽 이하에서도 첫 행을 사랑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품행을 해석하며, 충실한 사람은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카툴루스의 생각을 증거로 제시한다.

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손에 무기를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2~4행). 사비눔은 푸스쿠스에게, 생명이 없는 불모지(17행)이고, 열풍이 몰아치는 사막(18행)이고, 안개와 추위가 몰아치는 흑한의 땅(19행), 적도에 가까워 아무도 살 수 없는 흑서의 땅(21행)일지 모른다.<sup>46)</sup> 푸스쿠스의 이런 생각을 호라티우스도 반복적 명령(*pone me...pone*, 17행과 21행)으로 확인해준다. ‘그래, 그래 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으려무나’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푸스쿠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비판하려는 일종의 익살이다.

희극 작가인 푸스쿠스에게 비판의 의도가 깔린 이런 익살을 볼 때, 시인이 본래 전달하려던 것은, “죄는 티끌만 한 것도 없는 삶 *integer vitae sceleris purus*”라고 쓴 수수께끼의 첫 번째 행에서 읽어낼 수 있다. 여기서 “죄”를 ‘사랑의 충실함’과 대비시키는 것은 앞서 보았듯 해석상의 난점에 초래하는데, 이를 피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sup>47)</sup> 그래서 시야를 넓혀보면 우선 『서정시』 I 3에서 호라티우스가 인간의 역사 자체를 ‘죄 *scelus*’로 이해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nil mortalibus ardui est:  
caelum ipsum petimus stultia neque  
per nostrum patimur scelus  
iracuna Iovem ponere fulmina.  
인간에게는 못할 일이 없었다.

---

46) 『서간시』 I 14, 18~21행을 보라. “*eo disconvenit inter meque et te. nam quae deserta et inhospita tesqua credis, amoena vocat mecum qui sentit, et odit quae tu pulchra putas.*”

47) 예를 들어 Zumwalt(1975) 419쪽 이하에서 “*scelus*”를 “*the dishonour of surrender*”라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늘을 도모하며

우리의 범죄로 유피테르가

성난 번개를 던지도록 만들었다. (『서정시』 I 3, 37~40행)

친구 베르길리우스가 희랍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을 때 호라티우스는 그를 떠나보내며, 이를 계기로 과장되게도 인간사 전체를 돌아본다. 인간들은 배를 건조하고 바다를 건너며 신들이 정해놓은 세계 질서에 도전하였고, 인간에게 금지된 불을 훔쳐왔고, 이어 또 인간에게 금지된 하늘은 물론 망자들이나 갈 수 있는 하계까지 도전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어리석음 *stultitia*”(38행)으로 저질러진 “범죄 *scelus*”(39행) 때문에 결국 유피테르의 분노를 샀으며, 그 결과 질병과 쇠약 그리고 파멸(30행~33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호라티우스의 생각을 따르면 인간사 전체는 어리석음과 범죄로 각인된 세계 사건이었다.

또 자기 파멸에 이르는 어리석은 전쟁도 이런 세계 역사의 한 부분일 것이다. 특히 로마인들의 내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무기를 들었는바, 호라티우스는 이것을 형제 살해의 범죄(『비방시』 VII 18행, *scelus fraternae necis*)라고 규정하며, 동료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어디로, 죄인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Quo, quo scelesti ruistis?*”<sup>48)</sup> 이것은 다시 『서정시』 I 2, 23행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된다. “선대의 죄 *vitio parentum*로 벌어진 전쟁, 전쟁 함성을 몇 안 되는 후손이 듣겠다.”

이렇게 볼 때 “죄는 티끌만 한 것도 없는 삶 *integer vitae sceleris purus*”의 의미도 분명해진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파멸로 이어질 세계사의 흐름에서 벗어난, 형제 살해라는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난 곳에 머무는 삶이다. 세계사와 떨어져 세계사에 휘말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둔의 삶이라고 부른다. 은둔의 삶에서라면 시인은 바깥세상에서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손에 잡을 필요가 없다(*me...inermem*,

---

48) 『비방시』 VII 1행.

9~12행).

사비눔(9행)은 세상사에서 벗어나길 원하던 시인이 찾은 삶을 상징하는바, 늑대 일화가 우리에게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시인이 언젠가 아무런 무장도 들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며 다다른 곳에서 늑대를 만났다는 일화는, 어쩌면 실제로 시인이 사비눔의 숲에서 맞닥뜨렸을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어 늑대를 “괴물”(portentum, 13행)이라고 부르는 과장은 그럴 가능성과 현실성을 지워버린다.<sup>49)</sup> 다시 한 번의 익살스러운 장난으로 그만큼 안전한 삶을 말해준다. 시인과 마주한 늑대는 멀리 건너편에 머물러 있었고 곧이어 도망쳐버렸다. 여기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근심은 마을의 경계 저 멀리 떨어져 있다 *ultra terminum... curis*’(10행).<sup>50)</sup> 푸스쿠스에게 시인이 살아가는 은둔의 삶은, 익살스럽게 호라티우스가 수궁하는 것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로 가득한 세상,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 척박한 자연환경에 고통받는 지역,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무서운 야수들뿐인 곳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은둔의 삶은 오히려 안전한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인은 한가롭게 사비눔의 숲을 산책하며 “랄라게”(10행)를 노래한다. “랄라게”는 시인의 즐겁고 가벼운 마음을 의미한다.<sup>51)</sup> 시인은 이곳에서 랄라게를 노래하고(*canto*, 10행) 그녀를 사랑한다(*amabo*, 23행).

---

49) Fraenkel(1957) 186쪽 각주 3번을 보라. 실제로 겨울이면 늑대가 농장 근처 숲에서 민가 근처까지 내려오긴 한다.

50) “*ultra terminum curis... expeditis*”의 어순에 주목하라. Nisbet-Hubbard(1970) 269쪽 이하, Schmidt(1995) 98쪽 이하 등, “*ultra terminum vagor*”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51) Nisbet-Hubbard(1970) 268쪽을 보라. ‘랄라게’라는 이름은 아마도 희랍어 ‘*λαλαγείν*’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수다 떨다’를 나타내는 희랍어다. 이런 맥락에서 ‘랄라게’라는 이름은 어느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다만 유쾌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정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4. 주연(酒宴)으로의 초대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도시에서 벗어난 은둔에서 그리고 세속을 멀리한 가난에서 안전이 생겨난다.<sup>1)</sup> 안전은 행복과 쾌락의 다른 이름인바, 행복과 쾌락이 실현되는 공간은 호라티우스에게 농촌 삶이다. 그리고 행복이 절정에 이르러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은 농촌 삶의 주연(酒宴)이다. 이런 술잔치는 에피쿠로스의 의미에서 쾌락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삶의 한순간을 대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주연(酒宴) *convivia*’의 주제는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가 다룬 주요 주제다.<sup>2)</sup>

술잔치에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는 노래와 시다. 그런데 희랍식 향연처럼 사랑과 쾌락의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로마에 일반적이지 않았고, 이런 방식의 주연이 도입된 것은 공화정 말기와 아우구스투스 시대였다.<sup>3)</sup> “조상 전래의 풍습”을 따르는 로마식 주연

---

1) Epicurus(1926) *KD* XIV “τῆς ἀσφαλείας τῆς ἐξ ἀνθρώπων γενομένης μέχρι τινὸς δυνάμει τινὶ ἐξοριστικῇ καὶ εὐπορίᾳ εἰλικρινεστάτῃ γίνεται ἢ ἐκ τῆς ἡσυχίας καὶ ἐκχωρήσεως τῶν πολλῶν ἀσφάλεια.” *GV* XXV “ἡ πενία μετρούμενη τῷ τῆς φύσεως τέλει μέγας ἐστὶ πλοῦτος. πλοῦτος δὲ μὴ ὀριζόμενος μεγάλη ἐστὶ πενία.”

2) Murray(1985) 50쪽은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를 “*his great collection of sympotic poetry*”라고 부른다. 하지만 Murray는 주연의 서정시들을 로마적 문맥 혹은 두호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와 로마 세계와의 연결을 거부하는 경우로 나누었는데, 어느 경우든 기본적으로 주연은 공적 영역에서 벗어난 공간이다. 이런 구분은 ‘도시의 주연’과 ‘시골의 주연’으로 나누는 우리의 구분과 상응한다. 하지만 그가 ‘시골의 주연’을 문학적 취향과 원리의 선포로 읽는다는 점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골의 주연’이, 그것이 서정시의 주제인 한에서, 향락적이고 감각적인 희랍적 주제가 아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주제를 다루기를 선호하던 로마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3) Murray(1985) 41쪽 이하의 카토 이래로 이런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이 지배적 경향이 된 것은 공화정 말기라고 본다. 호라티우스는 로마에서 벌어진 이런 변화를 기록하였는데,

에서는 주인과 안주인,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용기를 보인 장군들”과 “베누스의 아들” 아이네아스가 이야기되었다.<sup>4)</sup> 따라서 주연에 참가한 사람들이 호라티우스에게 명성을 가져다주는 대단한 공적(功績)을 노래하라고 요청한 것은 로마 전통에 부합하는 일이었다.<sup>5)</sup> 하지만 호라티우스는 역사나 서사시에 어울리는 주제를 사양하며 자신은 다만 장난스러운 짓궂은 사랑놀음을 노래하는 시인, 작은 시의 시인이라고 변명한다.<sup>6)</sup> 그는 서정시인으로서 그가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주연 *convivia*”과 ‘여인들의 전투 *proelia virginum*’<sup>7)</sup>가 전부라고 말한다.

호라티우스의 이런 변명을 보면, 그의 서정시들이 사랑놀음, 다시 말해 욕정과 욕망,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어 실연과 배신, 때로 헛된 희망과 애원, 절망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주제에 한정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또 호라티우스의 어떤 서정시가 주연(酒宴)을 주제로 다루더라도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주목하는바 호라티우스가 부른 주연의 노래는, 애욕이나 걱정과는 멀리 떨어진 한가하고 평화로운 농촌을 노래

---

이에 따라 역사나 서사시가 아닌 “서정시 *carmin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Murray의 주장을 따르면 이때는 로마 엘레기 등이 만들어지던 시기다. 『서간시』 II 1, 108행 이하 “이랬던 로마 백성의 심성이 홀연 갑작스레 작시술에 하나같이 열광합니다. 젊은 것이 늙은 것이나 기어이 가지로 이마를 묶고 저녁 먹으며 시 *carmina*를 낭송합니다.”

4) 호라티우스의 『서정시』 IV 15, 25행 이하.

5) 『서정시』 I 6, 9행 이하 “염치와 전쟁과 무관한 뤼라에 밝은 무사 여신들은, 위대한 카이사르와 당신을 모자란 재주로 칭찬하는 일이 없도록 금합니다. 누가 로마 철갑을 입고 싸우는 마르스를 걸맞게 노래하겠으며, 트로이아 먼지로 검은 메리오네스, 또는 팔라스의 도움으로 신과 겨룬 디오메데스를 노래하겠습니까?”

6) Kiessling-Heinz(1968) 386쪽. 『서정시』 I 6, 9행 “작은 이에게는 과한 일 *tenues grandia*”. II 1, 39-40행 “저와 함께 디오네의 동굴속에서 가벼운 비파의 노래를 부르소서. *mecum Dianaeo sub antro quaere modos levioe plectro.*”

7) 『서정시』 I 6, 17행.



한다. 호라티우스가 묘사하는바 시골 사비눔에서 친구들과 마주한 술잔치, 농촌 삶의 행복한 절정을 상징하는 주연(酒宴)은 ‘여인들의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농촌 삶의 주연을 노래함으로써 호라티우스는 진지하면서 무겁지 않고 쾌활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설득한다.

#### 4.1 주연(酒宴) : 『서정시』 I 32과 I 38

세상사가 비껴가는 나무 그늘 아래<sup>8)</sup> 벌어지는 술잔치는 조출하면서도 평온한 한순

- 
- 8) “나무 그늘 아래 *sub umbra*”와 유사한 공간은 호라티우스 작품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 『서정시』 I 1, 19~22행 “오래 묵은 마시쿠스를 마시자 하면 멀쩡히 일할 벌건 대낮에도 마다치 않고 갓 푸른 나무 아래 신성한 시냇물의 잔잔한 머리말에 몸을 누일 사람이 있다.” 여기서도 술잔치와 평화로운 하루가 노래 된다. 나무 아래의 그런 장소들이 있다. 『비방시』 II 23행 “오래된 감탕나무 아래”, 『서정시』 I 38, 7~8행 “포도나무 그늘 아래”, 『서정시』 II 3, 9~12행 “거기 큰 소나무와 하얀 포폴루스는 나뭇가지를 합해 손님 맛을 그늘을 드리우고 굽이쳐 흘러가는 맑은 강물은 도망치듯 길을 재촉한다.” 『서정시』 II 7, 18~19행 “오랜 군역으로 탈진해버린 옆구리를 나의 월계수 아래 누여라.” 혹은 시적 영감을 불러오는 숲과 동굴이 있다. 『서정시』 III 25, 1~5행 “박쿠스여,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으로 가득한 저를 데리고? 어느 숲, 어느 동굴로 낯선 기운에 나는 듯 저를 데리고? 어느 동굴에서 위대한 카이사르의 영원할 위업을 하늘의 별과 유피테르의 회합에 넣는 저의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서정시』 I 1, 29~31행 “머리에 쓴 현자의 담쟁이 화관은 나를 신들과 함께 있게 하며, 그늘진 숲에 사튀로스와 어울린 여인 합창대는 나를 세상과 떼놓는다.” 『서정시』 III 25, 13행 “인적이 끊긴 숲.” 『서간시』 II 2, 77~78행 “시인의 무리는 숲을 사랑하며 도시를 멀리하며, 꿈과 그들의 즐기는 박코스의 기탁자입니다.” 『서정시』 II 1, 39행 “디오네의 동굴속에서”와 『서정시』 III 4, 40행 “피에리아 동굴에서”를 보라.

간을 보여준다. 또 이 순간은 사랑하고 노래하는 명랑하고 유쾌한 시인의 행복을 보여 준다.

poscimus. si quid vacui sub umbra 세상은 나를 찾되, 세상 멀리 나무그늘 아래  
lusimus tecum quod et hunc in annum 널로와 노닐 적에 그러하였듯,  
vivat et pluris, age, dic Latinum, 이제 부르려무나, 비파여, 라티움의 노래를,  
barbite, carmen, 언제까지 남을 노래를.

5 Lesbio primum modulate civi, 먼저는 네가 레스보스의 시인과 노래하였고,  
qui ferox bello tamen inter arma, 전투에서 사납게 싸우던 시인은 전장에서  
sive iactatam religarat udo 또는 바닷가에서 파도에 젖은  
litore navim, 배를 매어 놓고

Liberum et Musas Veneremque et illi 박쿠스와 무사 여신들과 베누스, 베누스와  
10 semper haerentem puerum canebat 언제 어디나 동행하는 소년을 노래했었다.  
et Lycum nigris oculis nigroque 검은 머리 검은 눈의 고운 뒤통수를  
crine decorum. 노래했었다.

o decus Phoebi et dapibus supremi 포에보스의 자랑이여, 천상의 잔치에서  
grata testudo Iovis, o laborum 달가운 유피테르의 악기여, 시름을 덜어줄  
15 dulce lenimen medicumque, salve 달콤한 구원과 치료여, 인사 하계나!  
rite vocanti! 정중히 청하는 이에게.

호라티우스의 『서정시』 I 32는 술잔치를 묘사한다. 앞서 『서정시』 I 22에서 칼라게를 노래할 때처럼 여기서도 사랑하며 노래하는 삶을 그리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서는 특히 주연(酒宴)이라는 한순간을 포착했다. 시인의 술잔치에는 흔히 그렇듯 박쿠스와 무사 여신들, 베누스와 쿠피도가 이 순간을 같이하는데, 시인이 보기에 지난날 레스보스의 시인이 벌였던 술잔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5~12행 이하).

비파(*barbite*, 3행)는 레스보스의 시인 알카이오스가 마음의 시련과 고통을 달래기 위해 노래할 때 시인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정중히 청하는 *rite vocanti*”(16행)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와 함께한다. 지난날 알카이오스와 함께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호라티우스에게 비파는 “시름을 덜어줄 달콤한 구원과 치료 *laborum dulce lenimen medicumque*”(14~15행)의 역할과 임무를 다할 것이다. 그리하여 알카이오스가 지난날 “검은 머리 검은 눈의 고운 뤼쿠스를 노래하였었다 *Lycum nigris oculis nigro crine decorum*”던 것처럼, 이번에는 시인이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눈망울의 사랑스러운 사람을,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화합을 노래할 것이다.

시인은 ‘세상은 나를 찾는다 *Poscimur*’(1행)<sup>9)</sup>와 “세상 멀리 *vacui*”(1행)를 같은 시행에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양자를 대립하고 강조한다. 세상살이에 시달리던 시인은, 늘 시인의 곁을 지켰을 비파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노래를 부르자고 요청한다. 시인에게 닥쳐온 시련과 고통, “시름 *labores*”(14행)은 알카이오스의 경험을 통해 표현되는바, “전투 *bello*”(5행)와 “파도에 젖은 배 *iactatam navim*”(7~8행)가 상징적으로 지시하는 사회적 갈등을 암시한다.<sup>10)</sup> 앞서 『비방시』와 『풍자시』에서 보았듯이, “불행한

9) Fraenkel(1957) 171쪽 이하에서 보면 Bentley 이래로 ‘*poscimur*’가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판본이다.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아니지만 ‘비파’도 충분히 신적이라는 점에서 신에게 간청하고 소원을 비는 노래들에서 흔히 그러하듯, 『서정시』 I 32를 진지한 간청과 소원의 노래로 이해한다면, Fraenkel에게 ‘나는 간청한다’로 읽는 선택을 망설일 이유는 없어 보였다.

10) 『서정시』 II 13, 27~28행 “황금 뤼라보다 풍성한 소리로 험한 바다를, 망명과 전쟁의 고단함

노동 *mali labores*”은 행복을 추구하려던 인간 노동이 의도와는 반대로 끝없는 인간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의 충돌과 갈등을 가져왔다. 시인은 불행한 노동이 가져온 시름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사랑과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

그런데 호라티우스가 “시름을 덜어줄 달콤한 구원과 치료 *laborum dulce lenimen medicumque*”(14~15행)라고 비파를 호명하였기에, 우리는 음악적 치유력이 비파의 전유(專有)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비파의 노래가 늘 시름과 고통을 몰아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11)</sup>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비파와 함께하는 주연(酒宴)이 모두 술잔치의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욕망과 애욕, 고통과 근심, 시름을 더욱 보태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인바, 호라티우스는 시름과 고통을 몰아내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는 음악적 치유능력을 “나무 그늘 아래 *sub umbra*”(1행)이라는 공간과 연결하고 있다. 무사 여신들의 선물인 연설 능력이 정의를 선포하는 왕을 통해 화합과 평화를 가져오는 곳이 정치와 재판이 벌어지는 광장이라고 할 때,<sup>12)</sup> 시인이 무사 여신들의 선

---

을 노래하는, 알카이오스여, 당신을. *dura navis, dura fugae mala, dura belli.* ” 또 “파도에 젖은 배”와 관련하여 호라티우스가 알카이오스의 유명한 비유를 원용하여 노래한 『서정시』 I 14, 3~10행을 보라. “너는 보지 못하는가? 노가 있던 옆구리는 비었고 돛대는 사나운 폭풍에 부러지고 활대는 신음하고, 끝도 없이 야단스러운 바다를 배가 이기지 못할 지경인 것을? 이제 네 돛에는 성한 곳이 없고 괴로운 네가 부를 신들도 없다.”

- 11) 이와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에우리피데스 <메데이아> 190행 이하, “옛사람들을 어리석고 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해도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축제의 찬가들이나, 술자리에서 그리고 저녁 식사에서 삶을 즐겁게 할 노래들을 찾아냈으나, 누구도 인간들의 쓰라린 슬픔을 멈추게 할 음악과 현이 많은 튀라의 노래를 찾지 못했으니. 슬픔은 죽음, 끔찍한 운명으로 집안을 파멸시킨다.”

물인 시적 능력을 통해 “달콤한 구원과 치료”(15행)를 이루어내는 공간<sup>13)</sup>은 광장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공간<sup>14)</sup>, 도시의 “불행한 노동”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인바, 호라티우스는 이런 구원과 치유의 공간을 “나무 그늘 아래”이라고 부른다.

시인은 지금 이 순간은 물론 영원할 노래(*quod et hunc in annum vivat et pluris*, 2~3행)를 부른다.<sup>15)</sup> “레스보스의 노래 *Lesbio*”(5행)를 부르던 알카이오스를 염두에 둔 인

12)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81행 이하 “제우스께서 돌보시는 왕들 가운데 누구든 위대한 제우스의 따님들이 명예를 높여주시고 그가 태어날 때 눈길을 주시면, 그분들은 그의 혀 위에 감미로운 이슬을 떨어뜨리시고, 그러면 그의 입에서는 달콤한 말들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가 끝은 판결들로 시비를 가릴 때 만백성이 그를 우러러본다. 그는 동요함이 없이 말하고 큰 분쟁도 능숙하게 금세 해결한다.”

13)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98행 이하 “누군가가 최근에 불상사를 당하여 그 슬픔에 마음이 시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사 여신들의 시종인 가인이 옛사람들의 영광스런 행적과 올림포스에 사시는 축복받은 신들을 찬양하게 되면 그는 금세 슬픔을 잊고 더 이상 자신의 불상사를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여신들의 선물들 금세 그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던 것이다.”

14) 호라티우스는 『서정시』 I 26, 6행 “**외딴곳 웅달샘**에 기뻐하는 여신이여”이라고 무사 여신들을 부른다. 또 박쿠스에 관해 『서정시』 II 19, 1행 이하에서 “나는 **멀리 깊은 산에서** 박쿠스가 노래를 가르치는 걸 보았다”라고 하였다.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1행 이하 “그분들은 크고 신성한 헬리콘 산을 차지하시고는 검푸른 샘과 크로노스의 강력하신 아드님의 제단 주위에서 사뿐사뿐 춤추신다. 그리고 그분들은 페르멧소스 또는 말의 샘 또는 신성한 올메이오스에서 고운 살갓을 씻고 나서 **헬리콘 꼭대기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원무를 추신다.**”

15) Kiessling-Heinze(1917) 156쪽 등의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호라티우스는 그의 노래가 가지는 예술적 가치가 여타의 아류들이 요구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기에 그것이 영원한 시간을 누릴 것이라고 자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서정시』 III 30, 1행 “청동보다 영원할 위업을 나는 이루었노라.”

데, 시인이 부르는 “라티움의 노래 *Latinum carmen*”(3~4행)는 한순간의 위로와 휴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사(戰士) 알카이오스의 노래는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패하여 고향을 떠나며 항해 중에 부르는 노래였다. 잠깐의 휴전과 짧은 정박의 순간, 알카이오스는 다시 이어질 전쟁과 항해를 준비하는 위안이 필요했다. 이와 달리 호라티우스는 “세상 멀리 나무 그늘 아래”(1행)에 앉아 있다. 시인은 세상을 떠나왔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 없이, “나무 그늘 아래” 행복의 순간을 누리며 영원히 머물고자 한다.

또 가난과 은둔의 삶이 즐기는 행복의 한순간을 행복의 이념에 가장 어울리는 소박함의 계율에 따라 노래하는 또 다른 예는 『서정시』 I 38이다. 직전에(I 37 “이젠 마셔야 한다”) 호라티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패퇴와 죽음과 관련하여 “카피톨리움”과 승리를 노래했는데,<sup>16)</sup> 이제 『서정시』 제1권의 종결부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위치에서 놓인 이 노래는 “나무 그늘 아래”를 노래한다. 이 노래가 소박한 문학적 양식을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런 문학적 취향과 양식은 시인의 본성에 달렸으며, 나아가 또한 행복한 삶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적 소견을 피력한 것 이상의 무엇으로 이 노래를 보고자 한다.<sup>17)</sup>

---

16) ‘클레오파트라가 마침내 패전하고 자살함으로써 끔찍하였던 시간이 지나갔다. 따라서 이젠 마셔야 한다.’ 이것이 『서정시』 I 37이고 마지막 서정시(I 38)가 클레오파트라의 노래 직후에 배치된 것은 어쩌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하인에게 술잔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 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 시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노래가 가진 흥분을 추측할 만한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 마지막 술잔치의 모습은 차분하기까지 하다. 이 시가 클레오파트라의 노래와의 무슨 연관 아래 이렇게 배치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시인이 그런 세상사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일 것이다.

17) Fraenkel(1957) 297쪽 이하는 이 시가 상징적으로 시인이 서정시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예술 이념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해석하지 않는다면 단순함과 소박함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표현된 것을, 그리고 시의 위치가 가진 특이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

Persicos odi, puer, apparatus.  
 displicent nexae philyra coronae;  
 mitte sectari, rosa quo locorum  
 sera moretur.

아이야, 페르시아산 세간은 나는 싫다.  
 보리수 줄기로 엮은 화관일랑 두어라.  
 어느 곳에 늦은 장미가 아직 남았는지  
 찾아보지도 마라.

5 simplici myrto nihil allabores  
 sedulus curo. neque te ministrum  
 dedecet myrtus neque me sub arta  
 vite bibentem.

소박한 도금양에 뭔가 덧붙여 장식하려는  
 열심일랑 그만두어라. 시중드는 네게나,  
 포도나무 그늘 아래 마실 때 도금양이면  
 내게도 그만이다.

호라티우스 『서정시』 I 38은 더없이 공들여 쓴 대단한 노래이면서도 작고 단순하고 우아한 시다. 여기서도 시인은 “질게 드리운 포도나무 그늘 아래”(sub arta vite, 7~8행) 벌어지는 술잔치를 노래한다. 시는 시인과 수행 하인과의 작은 갈등으로 시작한다.<sup>18)</sup> 갈등의 시작은 어쩌면 수행 하인이 부린 소박한 욕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시인은 시적 아취가 가득한 그늘에 몸을 기대고 앉아 주연을 벌인다. 시들지 않고 언제나 푸른 도금양으로 만든 화관이 시인을 위해 마련되는 동안, 흔히 술자리를 빛내기 위해 준비되는 값비싸고 진귀한 물품들은 빠져 있다. 아니, 오히려 시인이 이를,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 거절하고 있다. “싫다”(odi, 1행)<sup>19)</sup>, “두어라”(displicent, 2행), “찾

---

았다.

18) Richardson(1942) 130쪽 “the elaborately balanced arrangement of the parts, the antithesis throughout of Horace and his ‘boy’.”

19) 우리는 문자적으로 “싫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서정시』 III 1, 1행 “odi”와 마찬가지로 “멀

지 마라”(mitte sectari, 3행), “그만두어라”(nihil adlabores, 5행)라고 시인은 강력하게 하인을 말린다.<sup>20)</sup> 활짝 핀 장미는 여름 땀별 아래 이미 시들어 아무 데에서도 구할 수 없고, 술잔치에 장미가 빠져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시인의 생각이다.<sup>21)</sup> 수행 하인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술잔치 준비로 지나치게 요란을 떨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면 (allabores sedulus, 5~6행)다면, 오히려 이것이 술잔치를 망쳐버릴지도 모를 일이다.<sup>22)</sup>

---

리한다”의 의미로 읽는다.

20) 『서정시』 II 3은 술자리가 펼쳐지는데 절제와 중용의 덕을 권고한다. “힘겨운 일에도 평상심을 굳게 지키고, 감당치 못할 즐거움은 좋다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 절제하라. 필멸의 텔리우스! 종일을 슬픔을 살아갈 때거나, 멀리 풀밭에 누워 축제의 날을 보내며, 표를 달아 안에 넣어둔 팔레르눔을 가져다 즐길 때라도. 거기 큰 소나무와 하얀 포플루스는 나뭇가지를 함해 손님 맞을 그늘을 드리우고 굵이쳐 흘러가는 맑은 강물은 도망치듯 길을 재촉한다. 이리로 포도주와 향유, 금방 시드는 아름다운 장미를 가져오라 명하라.” 그런데 인용의 마지막에 시인은 “장미”를 가져오라 하인에게 명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청춘’을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Voit(1975) 425쪽, “*Horaz kennt aber sehr wohl die Zufriedenheit mit wenigem(contentus parvo, sat. II 2, 110), die nicht messbar ist nach Scheffeln und Litern, die ihm aber sein Sabinum — wie erstmals den Menschen des goldenen Zeitalter — reichlich vermittelt, vorausgesetzt, dass der Mensch selber die rechte temperies besitzt, die aequa mens, die selbst im Glück, ab insolenti temperata laetitia, die rechte Mitte wahrt.*”

21) Gold(1993) 22쪽, “(the rose) …symbolizes the most elusive object of our desire, the object we foolishly chase only to be disappointed and never full filled. There is no rosa sera — or perhaps only one —and thus it is the ultimate luxury because it is unattainable. It represents a future we cannot reach and, most important for this poet, should not try to reach.”

22) Nisbet-Hubbard(1970) 426쪽, “To intertwine the myrtle with flowers would be a work of supererogation; this point is brought out by the prefix ad.”



지금 이 순간 시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박한 도금양”(simplex myrtus, 5행)이다. 술잔치가 벌어지는 계절에 자연이 허락하는 것, 수고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술자리를 꾸미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소박함에도 부족한 것은 없으므로, 여기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낭비고, 지나친 과도함이고, 사치다. 그래서 시인은 “페르시아산 세간”(1행)도, “보리수 줄기로 엮은 화관”(2행)도, “늦은 장미”(3행)도 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시인은 소박한 도금양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라고 금지한다.<sup>23)</sup> 그리하여 시인의 아늑한 그늘 아래 휴식과 평온이 깃드는데, 이는 시인의 내면적 안정과 일치하는바,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평화가 시인에게 주변에 가득하다. 소박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풍요로운 삶이라 하겠다.<sup>24)</sup> 시인은 즐겁게 소박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즐긴다. 시인은 술을 마시고, 시인을 거들며 하인은 옆을 지킨다.

이렇게 소박하고 작은 주연(酒宴)에서 동성애를 읽어내려는 시도가 있다.<sup>25)</sup>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데, 다른 손님은 없고 아이 하나와 시인 하나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비파여”를 노래할 때도 다른 손님의 흔적은 물론, 심지어 “아이야”라고 호

---

23) 이런 금지는 다른 술잔치의 노래들에서 시인이 하인들에게 내리는 지침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서정시』 I 36, 15~16행 “성대한 잔치에 장미꽃이 빠질소냐. 사철 푸른 송악과 쉬이 지는 백합을 올려라!” 『서정시』 I 37, 2~4행 “이젠 살리움 사제들처럼 음식을 마련하여 풍성하게 제단을 꾸밀 때가 되었다.” 『서정시』 II 7, 22~26행 “커다란 조개에서 기름을 채워라. 어느 아이가 축축한 담쟁이 잎과 도금양을 엮어 화관을 만들기로 하였는가? 베누스는 누구를 주연의 판관으로 선포하였는가?” 『서정시』 III 19, 21~22행 “나는 찌찌하고 인색한 손을 멀리하노니, 장미를 뿌려라.” 하지만 이런 과도함은 술잔치의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 예를 들어 친구의 귀향에 시인에게 준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24) Dahlmann(1964) 48쪽, “Die Einfachheit feinen Geschmacks als seine Lebensart zu bezeichnen, ist ein Ziel dieser einfachen Ode.”

25) West(1995) 192쪽 이하.

명될 누군가의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농촌 삶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안전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삶에 친구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정의 가치는 결코 결여될 수 없는 것이다. 가난한 은둔의 농촌 삶을 지켜줄 “불멸의 선”<sup>26)</sup>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는 이런 평화로운 “나무 그늘 아래”로 친구들을 초대하였고, 초기 서정시에서 우리는 그런 초대시들을 볼 수 있다. 한적한 농촌의 주연에서 꽃피는 우정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동성애도 수궁할만하며, 다만 전제되는 것은, 이 또한 곧 검토하게 되겠지만, 이곳의 사랑이 육체적 욕망과 애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 4.2 도시의 주연(酒宴)과 애욕 : 『서정시』 I 13

우리는 농촌 삶의 행복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을 술잔치로 보았는데, 초기 서정시에 등장하는 주연(酒宴)을 보면 이런 행복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있고, 그래서 때로 농촌의 주연은 오히려 중심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바, 술잔치를 크게 도시의 주연과 농촌의 주연으로 양분할 수 있다면, 도시의 주연은 욕망과 사랑, 상처와 근심을 가져오는 경우인데, 이런 주연을 호라티우스가 벗어나야 할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에 나타나는데, 욕망과 애욕은 행복에서 절망에 이르는 복잡하고 깊은 흔적을 남기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이 빠지지 않는다. 사랑은 시작될 때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위험과 공포로 다가오며, 사랑과 마주한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치거나 불안해하며, 때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완강하고 사납게 군다.<sup>27)</sup> 사랑이

26) Epicurus, *GV*LXXVIII, “τὸ δ’ ἀθάνατον”.

27) 『서정시』 I 23, “피하느냐 *vitas*”(1행), “얼어버리고 *inhorruit*”(5행), “후들거린다 *tremi*”(8

행복으로 다가오는 순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가볍고 명랑하며, 그들의 눈은 밝게 빛나며, 그들의 몸짓은 우아하고 아름답게 움직인다. 그들은 뜨거운 입맞춤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한다.<sup>28)</sup> 하지만 배신당한 사랑의 아픈 순간도 있다. “바람의 숨결 그 속임수 *aura fallax*”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랑의 난파를 경험하고 시인은 질투와 절망을 경험한다.<sup>29)</sup> 사랑의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사랑의 노예(*servitus amoris*)로 전락해버린다.<sup>30)</sup> 혹은 구애의 차가운 거절에는 커다란 고통

---

행). 『서정시』 III 11, “완강히 틀어막은 *obstinatas*”(7행), “손대면 질겁하며 *metuit tangi*”(10행), “사납게 군다 *cruda*”(12행).

28) 『서정시』 II 12, 12행 이하 “무사 여신은 내가 달콤한 노래를, 밝게 빛나는 눈망울을, 서로의 사랑으로 믿음 깊은 가슴을 여주인 뤼킴니아에게 노래하길 원하였다.” 『서정시』 II 4, 17행 이하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막된 천민에게서 낳겠는가. 그렇게 충실하고 욕심 없는 그녀를 형편없는 어미가 낳을 수 있겠는가.”

29) 호라티우스는 첫 번째 서정시집의 첫 번째 사랑 노래에서 변심한 사랑에 대해 “바람의 숨결 그 속임수 *aura fallax*”(『서정시』 I 5, 11~12행)라는 별명을 붙였다. 『서정시』 II 8, 23~24행 “너의 바람 *tua aura* ”과 비교하라.

30) 『서정시』 I 5에서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뤼르라의 사랑에 매달려있다. 『서정시』 I 8에서 쉬바리스는 뤼디아에 대한 사랑으로 본분을 망각하였다. 『서정시』 I 27, 18~19행 “맏소사, 이런 일이! 카뤼디스에게 걸려 고생하누나.” 『서정시』 I 33에서 티볼루스는 잔인한 사랑의 놀음에 희생당하여 고통받고 있다. “알비우스여, 그렇게 아파하지 마라. 매정한 글뤼케라를 잊지 못해 비탄가를 부르며, 어찌 젊은 사내에게 그녀가 맹세를 저버린 채 너를 두고 반하였는지.” 『서정시』 II 8에서 바리네라는 여인 앞에서 많은 젊은이가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 “청년들은 너에게 점점 몰려들어 새로 노예들이 늘어가는데, 옛 남자들은 불경한 여주인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라는 위협에도. 너를 자식 때문에 어미가 무서워하고 너를 인색한 아버, 막 혼인식을 올린 불쌍한 신부가 너의 바람이 남편을 지체시킬까 두려워한다.” 『비방시』 XIV는 사랑에 빠져 모든 의무를 포기한 사내를, 『비방시』 XI은 사랑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사내의 절망을 노래하였다. Pöschl(1984=1991) 375쪽, “*So erweist er sich auch hier als*

을 반영하는 가혹한 저주가 뒤따른다. 아름다운 여인은 곧 추하게 늙어갈 것이고 더는 사랑받지 못하리라!<sup>31)</sup> 그녀를 찾는 사람은 더는 없을 것이며, 사랑의 구애는 더는 없으리라!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겠지만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교훈이 초기 서정시에서도 확인된다.<sup>32)</sup>

뤼디아에게 수신자로 하는 『서정시』 I 13은 이런 복잡하고 뒤엉킨 경험의 한 토막을 보여준다. 이 시는 사랑의 경험을 크게 양분하여,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는바 두 가지 모습의 사랑, 다시 말해 불타오르는 격정의 사랑을 평생 변하지 않을 영원한 사랑과 대조한다.<sup>33)</sup>

---

*der Freund schwacher und wehrloser Menschen, wie es eben auch die Mädchen sind, so wie er voll Mitgefühl die Opfer der Liebe, den Knaben der Pyrrha Ode oder seinen Freund in der Tibull Ode oder auch die der Liebe verfallenen Neobule sieht, der er Mut zur Liebe macht.”*

31) 늙은 여인의 추함을 열거하면, 치아는 누렇게 변색 되었고, 얼굴은 주름살이 깊어져 매력을 잃었으며, 머리카락은 추할 정도로 하얗게 세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여인들을 『비방시』에서 볼 수 있다. 『비방시』 VIII에서 부와 학식을 갖춘 늙은 여인이 남자를 사냥한다. 『비방시』 XII에서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추한 여인이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32) 배신한 애인을 되찾기 위한 수고를 묘사한 것은 『비방시』 V다. 여기서 카니디아는 온갖 끔찍한 물건들을 가지고 애인을 되찾을 사랑의 미약을 만들고 있다.

33) Kiessling-Heinze(1917) 90쪽, “*die unbändig auflodernde Leidenschaft ... und die tiefe stille Glut ... werden einander gegenübergestellt; die eine wird verflackern, die andere verheißt Beständigkeit.*” Nisbet-Hubbard(1970) 170쪽, “*What might be thought disastrous incongruities turn out to be effective and deliberately pointed : the off-hand diction shows the poet scoffing at conventional prettiness, and the serious ending makes a telling contrast with the frivolities that has gone before.*” Pöschl(1984) 27쪽, “*Der Dichter stellt einer verfehlten Form der Liebe eine ideale entgegen. So ist der Gegensatz ... zweier Aspekte der Liebe, die immer wieder horazischen Liebeslyrik auftreten: wilde, triebhafte Begehrlichkeit*

cum tu, Lydia, Telephi  
cervicem roseam, cerea Telephi  
laudas brachia, vae, meum  
fervens difficili bile tumet iecur.

뤼디아야, 네가 텔레포스의  
장밋빛 어깨를, 텔레포스의 새하얀  
팔뚝을 칭찬할 때, 아아, 나의  
간장은 끓어 담즙이 부풀어 오른다.

5 tum nec mens mihi nec color  
certa sede manet, umor et in genas  
furtim labitur, arguens  
quam lentis penitus macerer ignibus.

그때 내 마음과 낮빛은  
제자리를 벗어나고, 눈물은 불을 타고  
남몰래 흘러, 가슴이 소리 없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말해준다.

uror, seu tibi candidos  
10 turparuntumeros immodicae mero  
rixae sive puer furens  
impressit memorem dente labris notam.

나는, 황홀한 네 어깨에  
술 취해 뒤엎킨 씨름이 상처를 남기고,  
흥분한 소년이 깨물어  
네 입술에 기억을 남겨 나는 불탄다.

non, si me satis audias,  
speres perpetuum dulcia barbare  
15 laedentem oscula, quae Venus  
quinta parte sui nectaris imbuat.

내 말을 잘 새겨들여라.  
달콤한 입술을 상처 입힌 그가 영원히  
네 것이라 바라지 마라. 네 입술을  
베누스가 사랑의 정수로 적셨다지만.

felices ter et amplius  
quos irrupta tenet copula nec malis

세 번 아니 그 이상 행복하여라.  
하나 된 변함없는 결합들이 불행의

---

*und echte, harmonische Liebe.”*

divulsus querimoniis

불평으로 깨지지 않으며, 이들에게

20 *suprema citius solvet amor die!*

죽는 날까지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면.

주연(酒宴)이 펼쳐진다. 뤼디아가 텔레포스라는 이름의 청년 곁에서 앉아 있다. 청년은 뤼디아의 입술과 어깨에 사랑의 흔적을 남겼다. 시인은 분노한다.

시 전체의 이해는 마지막 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걱정애 사로잡힌 시인이 점차 폭풍 같은 걱정 혹은 고통스러운 애욕에서 벗어나 냉정함을 되찾고 사랑의 도피처로서 사랑과는 구별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화합과 결합을 희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점점 더 깊이 걱정과 애욕에 휘말려 들면서 마침내 사랑의 노예가 되어, 로마 엘레기 시인들이 신적으로 떠받드는 변함없는 결합<sup>34)</sup>을 기원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영원히 지속하는 “하나 된 변함없는 결합 *irrupta copula*”(18행)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모두 가능하게 한다.<sup>35)</sup>

---

34) Nisbet-Hubbrad(1970) 170쪽, “*the band of love had been mentioned by the Greek epigrammatists in account of love-making; but Horace, like other Roman poets, uses the image to signify a lasting love.*”

35) Syndikus(1972) 161쪽, “*Wenn Horaz hier eine Liebe, die bis zum Tod nicht endet, preist, so ist das keine Übernahme des Ideals der Elegiker, wie man gemeint hat. Horaz unterscheidet sich von ihnen, weil er eben nicht eine Apotheose der Leidenschaft will wie die Elegiker, die trotz aller Untreue ihrer Liebe treu bleiben wollen und die in deren Auf und Ab ihr Wesen sehen, sondern weil er eine ruhige, glückliche, gleichmäßige Stimmung liebt...*” 이에 Pöschl(1984) 24쪽 이하와 Kiessling-Heinze(1968)는 반대한다. “*Die Liebe in Bezug auf irrupta copula steht im Einklang mit dem in der erotischen Elegie selbstverständlichen Ideal einer lebenslangen Liebe.*” 이에 덧붙여 “*aber das Angebot einer Liebesverbindung, die bis zum Tod dauern soll, bedeutet nicht, dass er sich von der Leidenschaft gelöst, sondern zeigt*

시의 시작 부분에 시인은 자신을 불충한 사랑의 고통받는 희생자로 제시한다. 시인은 나란히 누워있는 한 쌍의 연인, 아름다운 뢰디아와 젊은 텔레푸스를 마주친다.<sup>36)</sup> 뢰디아가 젊은 텔레푸스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다(1~3행). 눈앞에 펼쳐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시인은 질투로 정신이 혼미하고, 분노와 원망으로 어느새 눈물이 흘러 내린다. 질투와 분노, 정신적 고통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드러난다(5~8행).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 시인의 눈에 발견된 것인바, 흥분에 휩싸여(*furens*, 11행) 이들이 별인 욕망의 씨름(*rixae*, 11행)<sup>37)</sup>이 이들의 어깨와 입술에 뚜렷하게 남은 애정의 흔적이다(9~12행).

앞뒤를 연결하는 중간 단락(13~16행)은 마치 결연해 보이는 태도로 사랑의 영원함을 부정한다. 시인의 존재는 텔레푸스와 비교하였을 때 더는 주목을 받을 수 없으며, 시인은 젊은 애인의 빛나는 광채와 아름다움에 가려 윤곽마저 남기지 못하고 완전히 묻혀 버렸다. 배신과 불충함에 대해 비난과 원망의 말을 쏟아부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시인은 “*non*”(13행)의 여운을 길게 끌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지혜를 들려준다. “영원히 네 것이라 바라지 마라!” 이런 경고는 비단 뢰디아와 텔레푸스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인 본인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일지 모른다. 사실 뢰디아와 텔레푸스는 사랑의 열병에 휩싸여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시인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의 말을 듣지 못한다(13행).

---

*vielmehr, wie tief sie Wurzel geschlagen hat.”*

36) 사람들은 제1행에서 뢰디아와 텔레푸스의 병치에 주목하였다.

37) Ovidius, *Amores* I 9의 “*militat omnis amans*”는 사랑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 Spies(1930) 52쪽 이하, “*Rixa ist kein eigentlicher Kriegausdruck, wird aber von den Erotikern des öfteres wie pugna verwendet.*” Catullus 66, 13 “*nocturnae rixae*”; Vergilius, *Aeneis* IX 736행 “*nocturna bella*”.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시인에게 매우 통렬하면서도 현실적 통찰이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떤 법도 사랑에 헌신과 성실을 강제할 수 없다.<sup>38)</sup> 영원함과 충실함을 희망하는 태도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의 무지일 뿐이다(*nescius aurae fallacis*, 『서정시』 I 5, 12행). 경험의 교훈을 얻은 시인에게 진실로 다가오는 것은, 사랑은 사랑받는 만큼만 지속할 뿐이라는(*donec gratus eram tibi*, 『서정시』 III 9, 1행) 엄정한 현실이다.

그래서 시의 종결부에 시인이 외치는 “하나 된 영원한 결합 *irrupta copula*”(18행)의 칭송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이다. 이 문장은, 마치 로마 엘레기 시인들이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sup>39)</sup> 영원한 사랑의 이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엘레기 시인들은 절망적 사랑과 좌절을 대신할 영원한 사랑의 결합을,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그 절망과 좌절 때문에 열광적으로 희망하고 칭송하였다. 하지만 육체적 사랑과 열정은 영원할 수 없음을 자신에게도 분명히 깨우치도록 촉구하였던 냉정하고 이성적인 현실인식을 드러낸 직전 단락에 비추어 본다면, 종결부의 “하나 된 영원한 결합”은 시인의 진심을 반영한다기보다 오히려 반어적으로 들린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인바, 루디아와 텔레푸스가 애정 어린 뜨거운 포옹으로 서로 하나 된 순간, 호라티우스의 말대로 “하나 된 영원한 결합”을 목격하였을 때 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sup>40)</sup> 바로 그 순간 시인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는 순식간에 온갖 감정의 폭풍이 지나갔다. 시인의 눈에는 영원할 수 없

---

38) Wildberger(1998) 63쪽.

39) Kiessling-Heinze(1968) 70쪽과 Niesbet-Hubbard(1970) 177쪽을 보라.

40) 『비방시』 XV 5~6행, “*artius atque hedera procera adstringitur ilex, lentis adhaerens bracchiis*”, 『서정시』 I 36, 18~20행 “다말리스는 새 애인에게서 떨어져지 않으니, 욕정의 담쟁이보다 지독하게 붙었구나 *nec Damalis novo divelletur adultero lascivis hederis ambitiosior*”.



는 환상이지만, 사랑에 취한 그들은 이를 “하나 된 영원한 결합”으로 느낀다. 그들에게는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연인을 향해,<sup>41)</sup> 마침내 차분히 가라앉은 시인의 목소리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다. ‘좋아, 너희는 세 번 아니 그 이상 행복하여라. 너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시인은 더는 이들의 사랑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다. “불행의 불평 *malis divulsus querimoniis*”(18~19행)을 한바탕 늘어놓고 싶었지만, 그만두기로 한다. 시인의 마음은 열광과도 조롱과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현실을 적어도 이 순간 수용하기로 한다. 사랑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온한 마음을 되찾은 시인의 얼굴에 “모든 것을 수궁하는 편안한 미소”<sup>42)</sup>가 번진다. 시인은 걱정으로 냉혹해지지 않았으며, 뒤엎킨 연인을 버려두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작별인사를 한다.

사랑에 영원한 행복은 없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다. 한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사람보다,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사랑의 전투를 마친 사람이 기쁨을 조금은 맛보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sup>43)</sup> 하지만 시인은 사랑의 복무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실연(失戀)의 고통이 가져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났음은 대단히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시인은 두려운 향해와 끔찍한 난파에서 살아남아 베누스 여신에게 감사의 선물을 올린다.

---

41) Hessen(2000) 250쪽, “*Das Ideal der Liebe, das hier gepriesen wird, ist eine innige Liebe auf Zeit, die, wenn ihre Zeit vorbei ist, die Liebenden sich einfach voneinander trennen lässt. Jeder aber...akzeptiert nicht...*”

42) Burck(1960) 170쪽.

43) 『서정시』 I 5, 12~13행, “하긴 불쌍한 건 눈부신 그대를 한 번도 잡지 못한 자들 *miseri quibus intempata nites*.” 『서정시』 III 12, 1~4행, “사랑을 즐기지도 달콤한 포도주로 슬픔을 씻어내지도 못하며 백부의 입에서 떨어지는 질책에 질겁하는 소녀들은 가련하다.”

me tabula sacer

votiva paries indicat uvida

suspendisse potenti

vestimenta maris deo.

나는 바다의 강력한 신에게 바쳐진

신전의 벽에 소망의 서판을 걸고

실연의 젖은 옷을 올렸다. (『서정시』 I 5, 13~16행)<sup>44)</sup>

#### 4.3 농촌의 주연(酒宴)과 우정

도시의 술잔치는 애욕과 상처만을 남겼던 술잔치이며, 쇠약과 걱정만을 남겼던 술잔치다. “더없이 큰 재산을 가졌음에도, 대중들의 존경과 명예를 누렸음에도 영혼의 격동이 멈추지도 않으며 진정한 기쁨은 요원하다. 다른 무엇으로도 그러하니, 끝없는 욕망을 자극할 뿐이다.”<sup>45)</sup>

이런 도시의 술잔치와 달리 농촌의 주연(酒宴)은 치유와 행복의 순간으로 표상된다. 주연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가난한 농촌 삶이 가져다준 평온과 쾌락의 절정을 나타내는바, 농촌 삶의 행복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런 행복의 순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하다. 그것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과의 우정이다. 다른 무엇도 필요 없는 자족의 삶일지라도,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지혜가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요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정의 소유다.”<sup>46)</sup> 호라티우스는 어떤 것도 부족할 것

---

44) 『서정시』 III 26, 1~4행, “저는 여태 소녀들의 사내로 살았고, 싸워 승리도 전혀 없진 않았습  
니다. 이제는 싸울 연장들과 전투에 지친 칠현금을 담벼락에 걸어들 겁니다.”

45) Epicurus, *G*/LXXVI.

없는 절정의 순간을 상징하는 술잔치에 친구를 초대한다. 행복한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바의 것이 우정이었기 때문이다.

시인은 도시와 도시의 주연(酒宴)을 벗어나 사비눔의 농촌 삶을 누리며, 농촌의 주연(酒宴)으로 초대하는 초대시들을 친구들에게 보낸다. 시인은 애욕과 사랑으로 상처 받은 튜다리스를 초대한다. 또 국사(國事)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깊고 육체적 건강마저 온전하지 못한 마에케나스를 초대한다. 이들이 사비눔을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주연(酒宴)이 펼쳐진다. 농촌의 술잔치는 상처받고 근심하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순간이다.

#### 4.3.1 튜다리스 초대시 : 『서정시』 I 17

velox amoenum saepe Lucretilem	날랜 걸음의 파우누스가 튀카이우스를
mutat Lycaeo Faunus et igneam	떠나 종종 아름다운 루크레틸리스에 오면
defendit aestatem capellis	언제나 내 염소들에게 불타는 더위,
usque meis pluviosque ventos.	폭우를 품은 바람을 막아준다.

5 impune tutum per nemus arbutos	여기 걱정 없이 숲을 뚫으며 숨은 딸기와
quaerunt latentis et thyma deviae	백리향 덩굴을 찾아 길 없는 길을 헤매는,
olentis uxores mariti,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수컷의 아내들,
nec viridis metuunt colubras	힘 넘치는 뱀도 두려워 않는

---

46) Epicurus, *KD* XXVII “ὥν ἡ σοφία παρασκευάζεται εἰς τὴν τοῦ ὅλου βίου μακαριότητα, πολὺ μέγιστόν ἐστιν ἡ τῆς φιλίας κτήσις.”

nec Martialis haediliae lupos,	포악한 늑대도 두려워 않는 암컷들.
10 utcumque dulci, Tyndaris, fistula	그때마다, 툰다리스, 달콤한 피리 소리가
valles et Usticae cubantis	계곡 깊은 곳에, 길게 누운 우스티카의
levia personuere saxa.	부드러운 바위에 울려 퍼진다.

di me tuentur. dis pietas mea	신들이 날 돌보시니, 신들께 난 충직하며
et Musa cordi est. hic tibi copia	무사 여신을 모신다. 여기서 네게 풍요가
15 manabit ad plenum benigno	가득 넘쳐흐를 것이고, 넉넉한 인심의
ruris honorum opulenta cornu.	뿔에서 쏟아지는 대지의 결실도.

hic in reducta valle Caniculae	여기 후미진 계곡에서 천랑성이 가져온
vitabis aestus et fide Teia	더위를 너는 피하며 테오스의 현악기로
dices laborantis in uno	한 사내 때문에 시름하는 페넬로페와
20 Penelopen vitreamque Circen.	빛나는 키르케를 노래하라.

hic innocentis pocula Lesbii	여기서 세멜레의 아드님 튀오네우스는
duces sub umbra, nec Semeleius	전쟁 신과 다투지 않으리니, 너는
cum Marte confundet Thyoneus	레스보스 포도주의 소박한 술잔을
proelia, nec metues protervum	그들 아래 들어라. 의심 많은

25 suspecta Cyrum, ne male dispari	퀴루스가 절제치 못하는 손을 어린 네게
incontinentis iniciat manus	휘두르지는 않을까, 머리에 올린 화관을
et scindat haerentem coronam	망가뜨리고 죄 없는 옷을 찢지는
crinibus immeritamque vestem.	않을까 걱정치 않으리라.

『서정시』 I 17은 사비눔 계곡에서 열리게 될 술잔치에 튜다리스를 부르는 초대시다. 튜다리스는 가수이며 누군가의 애인이다. 튜다리스 초대시는 외형적으로 사비눔 술잔 치로의 초대라는 틀을 가지면서 동시에,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농촌 삶과 그 삶의 원리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삶을 받아들이도록 튜다리스를 설득하는 노래이다. 이 초대시의 중심이 되는 농촌 삶을 통해, 튜다리스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가운데 노래하고 사랑하며, 완전한 안전과 완벽한 향유의 삶을 누리기 된다고 시인은 튜다리스에게 설득한다. 시인은 폭력을 행사하는 애인 퀴루스(25행)가 없을 것을 약속하는 한편, 사랑의 행복을 누릴 것을 보장한다.

『서정시』 I 17은 시인의 매우 정교한 솜씨로 두 개의 상이한 시를 하나로 합쳐놓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 일곱 개의 연 가운데 전반 세 개의 연은 마치 애초 후반 세 개의 연을 위한 전주로 덧붙여 있는 것 같다. 목동 신의 현현(顯現)과 튜다리스의 초대로 구분된 병렬은 의도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깊은 상호 유사성을 가진다.<sup>47)</sup> 그리고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네 번째 연에서 밝혀지는바, 시인의 영역은 신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이 어울려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곳이며, 안녕과 행복이 보장된 곳이다.<sup>48)</sup>

시인은 도입부에서 “신들의 평화 *pax deorum*”<sup>49)</sup>를 이야기한다. 시인은 독자에게 신들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농촌 삶을 제시하는바,<sup>50)</sup> 목동의 “달콤한 피리 소리”가 산 꼭대기 높은 곳에서 산아래 계곡 깊은 곳까지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진다(10~12행). 희랍의 목동 신이 로마의 목동 신 파우누스로 변신하여<sup>51)</sup> 사비눔 농촌(*Lucretilem*, 1

---

47) Fraenkel(1957) 205쪽 이하는 이 시의 양분 구성에 대해, 전반부를 “*the praise of Pan's presence*”로, 후반부를 “*the invitation to a banquet*”으로 이해한다.

48) Fraenkel(1957) 207쪽.

49) Klingner(1935) 290쪽, Fraenkel(1957) 207쪽.

50) Klingner(1935) 289쪽, “*Gefahrlose Sicherheit in göttlichem Schutze, das ist es, was vor allem in den drei ersten Strophen an diesem Bereich gepriesen wird.*”

행)을 방문한다. 외딴 시골의 가난한 사비눔은 목동 신의 방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기  
가 아르카디아(Lycaeo, 2행)에 버금가는 곳이 된다.

시인의 사비눔은 신들이 축복하는 낙원으로 격상된다. 길에서 벗어난 곳에서 자라  
는 백리향(thyma, 6행)은 사비눔 공기를 향기롭게 만들며, 숲 속에 숨어 있는 산딸기  
(arbutos, 5행)는 방문객의 축복이 된다. “아내들 uxores”(7행)은 산딸기를 찾고 백리  
향을 쫓아 멀리 떨어진 사비눔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렇게 본인들도 “길에서 벗  
어나 deviae”(6행) 은둔의 땅(latentis, 6행)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곳은 인간들의 세상  
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의 땅이다. 그곳은 여름의 태양이 내뿜는 위험한  
열기(igneae aestas, 2~3행)도 침범하지 못하며, 모두를 근심케 하는 홍수를 일으킬 폭  
풍(pluvii venti, 4행)도 지나가지 못한다. 사비눔이 시인의 삶(meis, 4행)을 지켜주며  
(defendit, 3행), 시인은 평온하고(impune, 5행) 안전하며(tutum, 5행) 뱀이나 늑대에  
제조차 두려움이 없다(nec metuunt, 8행). 마치 베누스 여신의 장난인 듯<sup>52)</sup> 냄새나는  
수컷들을 배우자로 둔 아내 염소들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고 즐겁고 아늑한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쫓는다(8~9행).<sup>53)</sup>

튀다리스 초대시의 중심인 네 번째 연은, 균형을 이룬 양분 형식의 내용 중심이기도

---

51) 희랍의 신이 로마의 신으로 변신한다는 주제는 시인의 자의식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서정시』 III 30, 10행 이하, “사나운 아우피두스가 요란히 울어대는 곳, 가뭄에 시달린  
다우누스 왕이 시골 백성을 다스리던 곳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아이올리아 노래를  
처음 이탈리아 운율에 맞추어 불렀다 나를 얘기하리라.” 희랍 신 “판과 튀오네우스”, 희랍  
이름 “튀다리스와 퀴루스”, 희랍의 악기 “테오스의 현악기”, 희랍 신화 “페넬로페와 키르  
케”, 희랍의 포도주 “레스보스 포도주” 등은 이런 해석을 강화한다.

52) 『서정시』 I 33, 10행 이하, “베누스는 장난을 즐기사 어울리지 않는 짝, 생김도 생각도 맞지  
않는 짝을 청동 명에에 함께 묶는다. 얼마나 잔인한 조롱인가!”

53) Klingner(1935) 289쪽, “Pan und die launige Umschreibung des Begriffes ‚Ziegen‘...sorgen  
dafür, dass ein leichtes Lächeln gespürt wird.”

하다. 초대시의 한가운데 시인이 무게를 두는 내용이 표현되었는바, 여기서 시인과 튜다리스는 함께 만나야 한다(*me...mea...tibi*, 13~14행).<sup>54)</sup> 시인은 튜다리스를 부르며 튜다리스에게 간청하고 있다.

사비누의 농촌 삶은 시인에게 무사 여신들이 부여하는 시적 역량을 보태어주었다. 모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위험한 것들에서 벗어난, 안전하고 평화로운 농촌 삶에서 시인의 가슴에는 시가 넘쳐흐른다(*Musa*, 14행). 노래하고 사랑하는 삶이<sup>55)</sup> 시인에게 주어진 것을 시인은 신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pietas*, 13행). 이런 시인에게 “대지의 결실 *uris honorum*”(16행)은 농촌 삶에서 놀라울 정도로 가득하다. 이것 이상은 풍요로울 수 없을 만큼 풍요롭다. 무사 여신들이 돌보는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앞서 『서정시』 II 16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난하고 자그마한 시골(*parva rura*, 37행)에 지나지 않는 사비누 농촌은, 권력과 재산의 획득을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풍요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무사 여신들에게 충실한 사람에게 누리도록 허락한다.

튜다리스와의 동행은 환영할 만한 화합이다. 튜다리스도 무사 여신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인바, 그녀는 세상과 떨어져 무사 여신들에게 충실한 삶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이해할 수 있다. 신적인 선물, 넉넉한 인심의 뿔에서 쏟아지는 대지의 결실(16행)은, 냄새나는 남편을 버려두고 떠난 곳에서 누리는 딸기(5행)와 백리향(6행)

---

54) Troxler-Keller(1964) 113쪽과 각주 36번을 보라.

55) Troxler-Keller(1964) 114쪽, “Die Idee von v. 14-16 ist auf die epikureische Lebenseinstellung der Autarkie, bzw. die horazische Idee der Armut zurückzuführen. Die dichterische Lebensform des singenden und liebenden Menschen, die Horaz hoch geschätzt hat, ist aber weder eine Nachwirkung der autarkischen Lebenseinstellung, noch ein Geschenk der Götter für den musischen, frommen Menschen und seine geliebte Tyndaris, sondern die einfache Zusammengehörigkeit in der horazischen Lebensideal.”

처럼 향기롭다.

튀다리스는 이렇게 지금 시인이 머무는 “여기 *hic*”(17행)에서 환영받으며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계곡 *in reducta valle*”(17행)에 은둔하며 살게 된다. 그녀는 상처를 입은,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19~20행)이다. 은둔의 세계인 여기에서 그녀는 당연히 세상의 열기, 싸움과 갈등, 고통과 시련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vitabis aestus*, 18행).<sup>56)</sup>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녀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남편의 폭력이었다(25~26행).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한 장소(*tutum per nemus*, 5행)가 있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생명력을 다시 불리울 공간, “그늘 아래 *sub umbra*”(22행)다.

튀다리스는 무사 여신들의 보호를 받는 이곳에서라면 테오스의 현악기로 노래하게 될 것이고(*fide Teia dices*, 18~19행), 이것은 이곳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던 주민이 그녀에게 명하는 바이다.<sup>57)</sup> 그녀가 노래하게 될 것, 혹은 시인이 그녀에게 노래하라 명하는 것<sup>58)</sup>은, 페넬로페<sup>59)</sup>와 키르케다. 신화 속의 여인들은 똑같이,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한 남자 때문에 시름해야 하였다(*laborantis*, 19행). 이런 신화적 이야기는 튀다리스가 겪어야 하였던 지난날 사랑의 경험을 반영한다.

퀴루스(25행)에게 고통받고 떠난 튀다리스는 이 순간 오뒷세우스에게 버려져 고통받는 여인들을 노래한다. 튀다리스가 ‘버려진 여인들’을 노래하지만, 그럼에도 청중

---

56) Schmidt(1997) 92쪽 각주 212번에 언급된바, 여기서 “더위 *aestus*”는 인간의 삶에 닥친 시

련, “*civilis belli aestus*”(『서간시』 II 2, 47행)과 “*stultorum regum et populorum continet aestus*”(『서간시』 I 2, 8행) 등에서 보듯, 전쟁 등 세상의 갈등과 분쟁을 상징한다.

57) 미래 시제인 “*dices*”를 명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서정시』 II 10, 1행 “*rectius vives*”를 보라.

58) Mackay(1962) 299쪽, “*fide dicere, especially when fide is qualified by a particularising adjective, as Teia here, can quite as well refer to the composition of verse as to singing verses of someone else’s composition.*”

59) Pucci(1975) 267쪽, “*the Penelope who painfully awaited the return of the hero.*”



을 포함하여 노래하는 가수 본인까지 누구도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시인이 튜다리스를 초대하면서 바라마지 않는바, 그녀가 슬퍼하지 않는다. 천랑성(*Canicula*, 17행)이 맹위를 떨치는 세계를 떠난 이상, 방종과 욕망이 함부로 날뛰며 절제가 사라진 세계(*incontinetis manus*, 26행)를 떠난 이상, 튜다리스에게 이제 더는 사랑의 부정적 측면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튜다리스가 노래하는 ‘버려짐’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 버려진 여인들이 느꼈을 버려짐의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페넬로페의 정숙함과 신의, 키르케의 여리고 아름다운 광채(*vitrea*, 20행)가 전면에 드러난다.<sup>60)</sup> 튜다리스의 사랑은 평화와 조화 가운데 꽃피며(9~10행), 사비눔 계곡의 농촌 삶에는 풍요가 넘쳐흐른다(14~16행). 사랑에 상처 입는 가수가 버림받은 사랑을 노래하는 어찌면 우울하고 어두울 것 같은 장면은, 걱정거리가 사라진 술자리, 포도주의 신이 허락한 즐거움이 펼쳐진다. 도시의 삶을 멀리 두고 떠난 그녀에게 노래하고 마시는 즐거운 삶을 허락하는 사비눔의 그늘(*sub umbra*, 22행)은 에피쿠로스적 의미에서 고요와 안식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의미한다.<sup>61)</sup>

---

60) Syndikus(1972) 196쪽. 형용사 “*vitrea*”은 황홀한 빛으로 남을 현혹하는 광채가 아니라, 유리알처럼 아름답게 빛나지만, 다른 한편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는 키르케의 모습을 가리킨다. Edinger(1970/71) 310쪽, “*I suggest that the Homeric adjectives applied here to Circe’s dress, argupheon, lepton, charien, describe the aspect of that strange creature that is described also by the word vitrea in Horace’s poem.*” 많은 연구자는 형용사 “*vitrea*”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였다 Klingner(1935) 293쪽, “*Im Spiegelbild des Liedes von der treuen Penelope und der tückisch unzuverlässigen Circe ist still auf die Beständigkeit Horazens und die Unzuverlässigkeit und Gefährlichkeit des anderen Liebhabers hingedeutet.*” Pucci(1975) 264쪽의 견해에 따르면, 매우 선명한 경쟁 관계를 부각하는바, 충실한 남자 호라티우스와 폭력적인 남편 퀴루스의 경쟁 관계는 충실한 페넬로페와 신뢰할 수 없는 키르케의 경쟁 관계에 대응한다.

술잔치가 펼쳐지는 “여기 *Hic*”(21행) 사비눔에서 튜다리스는 평화롭고 여유롭게 레스보스 포도주를 즐기지만, 호라티우스와 함께 마시는 포도주는 그녀에게 해롭지 않으며 상처를 주지 않는다(*innocentis*, 21행). 여기서 묘사된 포도주의 신은 전쟁의 신과 싸움을 벌여(*nec confundit proelia*, 23~24행)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다. 튜다리스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까 전혀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nec metues*, 24행). 천랑성이 물고 온 뜨거운 태양이나 무서운 폭풍이 사비눔의 농촌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에는 폭력과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은 야만의 세계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다.<sup>62)</sup> 시인은 포도주의 신을 “튀오네우스”(23행)이라고 부르며, 광폭한 행동과 고함지르는 모습의 디오니소스를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여기”에는 디오니소스의 난폭함과 괴성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야만스러운 만행과 소란스러운 다툼은 남편 퀴루스가 머무는 곳,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25~28행). 퀴루스의 질투(25행)와 야만적 폭력(26행)은 이에 전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약한(*male dispari*, 25행) 튜다리스의 화관과 옷을 망가뜨리고 파괴한다(*scindat*, 27행).<sup>63)</sup> 이상이 우리가 시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

---

61) Lieberg(1965) 411쪽, “*Die zentrale Stellung der Trinkszene soll darauf verweisen, wie gerade im festlichen Beisammensein des Symposions jede leidentrückte Welt vollkommener Harmonie zur vollen Entfaltung kommt, in der sich das Dasein des frommen Dichters erfüllt.*”

62) 『서정시』 I 27, 1~8행, “즐겁자고 태어난 술잔에 대취하여 싸우는 건 트라키아풍. 야만의 습속을 거두라. 조심스레 마시는 박쿠스를 피 흘리는 싸움에서 구하라. 포도주를 밝힌 등불과 메디아 단검은 대단한 상극이 아니던가? 불경한 광란과 소음을 멈추어라. 친구들아! 베개에 기대어 누워라.” 『서정시』 I 18, 8~11행, “하나 리베르의 선물을 과하게 탐하지 않도록, 라피타이와 켄타우로스의 처참한 싸움이 과음을, 이를 성난 에우히우스도 시톤인들에게 경고하였다.”

다. 어떤 이유에서 틴다리스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 절망 상태에서 남편이 머무는 도시를 떠나 사비눔 시골로 내려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로써 호라티우스는 틴다리스가 퀴루스에게서 경험하였음이 분명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특징짓는바, 그것은 욕망과 걱정이었다. 그래서 앞서 제시되었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수컷”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가 여기서 올바로 이해된다. 아름다운 틴다리스가 누려야 마땅한 사랑은 이런 종류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랑은 아니었어야 하였다. 시인은 틴다리스에게 그런 사랑을 떠나라고 명하면서, 시인이 그녀에게 보여줄 사랑은 퀴루스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임을 선포한다.

시인은 가수 틴다리스를 사랑하여, 그녀를 부르고 요청하여, 노래하고 사랑하는 농촌 삶의 공간<sup>64)</sup>으로 그녀를 초대하면서, 위로자의 역할을 한다.<sup>65)</sup> 그리하여 이 시는 폭력과는 거리가 먼, 충실한 사랑을 약속하는 구애의 시일 수도 있겠지만,<sup>66)</sup> 문제의 핵심은 이때의 사랑이 평화와 조화의 모습을 갖춘 사랑, 애욕(愛慾)과는 무관한 사랑이라는 점이다. 시인과 가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화합과 폭력, 배신과 신의, 욕망과 애정을 오락가락하는 인간적 관계의 긴장과 대립을 나타내지 않는다. 틴다리스는 시인의 보고에 의하면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시인은 이런 사랑의 치료와 처방이 될 다른 종류의 사랑을 약속한다.

시인은 아름다운 피리를 연주하는데(*dulci fistula*, 10행), 그의 피리 소리가 틴다리

---

63) Pucci(1975) 265쪽, “*she is in pain only as the object of desire.*”

64) Schmidt(1997) 95쪽, “*Segensraum, der durch Maß und Milde, Gewaltlosigkeit und Frieden, Schönheit und Erotik geprägt ist.*”

65) Klingner(1935) 293쪽을 보라.

66) Schmidt(1997) 99쪽, “*Der Dichter liebt Tyndaris und lädt sie mit diesem an sie gerichteten Gedicht ein. Seine Einladung ist eine Liebeswerbung.*”

스를 감싸는 메아리치는 것처럼 배치된 시어를(*dulci, Tyndari, fistula*) 볼 때 시인의 연주는 아름다운 튜다리스를 위한 연주임을 알 수 있다. 튜다리스는 여기에 화합하듯 이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다. 이렇게 시인과 튜다리스는 서로에게 진정한 상호 호의를 보여주며, 시인과 튜다리스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기를 발견한다.<sup>67)</sup>

우리는 여기서 튜다리스가 사비누를 찾아온다는 사건이 왜 목신(牧神) 파우누스가 사비누에 나타난 일처럼 대단한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가난하고 후미진 시골 사비누가 튜다리스의 방문으로 왜 목신(牧神) 파우누스의 아름다운 아르카디아로 변모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곳에서 튜다리스가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시인도 튜다리스를 초대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아줄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또 궁벽한 농촌 삶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함께함으로써 이렇게 행복한 것은, 이들이 서로에게 우정의 덕목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 4.3.2 마에케나스의 초대시 I : 『서정시』 I 20

튜다리스라는 가상 인물과의 초대와 우정을 다루었고, 이제 마에케나스라는 실존 인물과 호라티우스의 초대와 우정을 다룰 차례다. 가상 인물의 초대시만을 다룬다면, 튜다리스를 로마 귀족의 대표로 이해하고, 튜다리스를 농촌 삶으로 부르는 초대를 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삶을 구하라는 촉구와 설득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이제 다루게

---

67) Edinger(1970/71) 311쪽, “Thus the Tyndaris ode is as much about the place of poetry in the world as anything else. Far from being a declaration of Love for Tyndaris, it is rather an oblique praise of her art and a warning to the girl to seek the proper place for her art: the countryside and the protection of Faunus, as opposed to the city and the ambiguous attention of Cyrus.”

될 실존 인물 마에케나스의 초대시들도 이런 상징적 해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로마 정치가를 사비눔의 농촌 삶으로 초대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유적 해석이 더 타당해 보인다. 다만 호라티우스가 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삶을 사비눔의 농촌 삶에서 구하는 것과 이런 행복과 건강의 정점이 우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정은 매우 작은 공동체에서만 실천 가능한 덕목이다. 각자가 각자의 농촌 삶과 각자의 우정을 찾도록, 호라티우스는 자신의 농촌 삶과 자신의 우정이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었음을 보여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호라티우스가 초기 서정시를 출판할 즈음 시인이 얼마나 마에케나스를 시인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는지는 마에케나스 헌정시(『서정시』 I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에케나스 헌정시는 ‘선호 목록시 選好 目錄詩’(Priamel)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인은 3~28행에서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 대상을 나열하고, 29행 이하에서 시인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언급한다. 3~28행에 열거된 것은 통속적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대상들이다. 세속적 목록이 정리되고 목록에 열거된 것들과 대조되는바, 29~36행은 호라티우스의 관심(*me*, 29행)을 보여준다. 나무 그늘과 맑은 시냇물(21~22행)와 포도주를 마시며 보낸 즐거운 하루(20행)와도 연결되는 “그늘진 숲 *gelidum nemus*”(30행)과 “담쟁이 화관”(29행)를 비롯하여, 박쿠스를 모시는 여인들과 사튀로스(31행), 무사 여신들(33행), 레스보스의 비파(34행) 등으로 인해 시인은, 올림포스의 승자처럼(6행) “신들과 함께 있게”(30행) 된다. 그리하여 더없는 행복과 환희를 맛보게 되는데, 호라티우스에게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하는 시인의 세계는 앞서 언급한 모든 세속적 관심을 넘어서는(*secernunt populo*, 32행) 무엇보다 큰 가치를 지닌다. 35~36행에서 ‘선호 목록시’는 마무리되고 최정점에 이른다. “당신이”(inseres, 35행)라고 호라티우스가 말할 때 2인칭 단수는 마에케나스 말고 다른 누구를 지시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호라티우스는 다른 누구도 아닌 마에케나스가 자신

을 “뤼라의 시인 *Lyricus Vates*”(35행)이라고 불러주길 바란다. 희랍의 서정 시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시인임을 마에케나스가 인정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마에케나스여! 당신이 나를 서정시인으로 인정해준다면 황홀한 기쁨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지막에 덧붙여진 목록은 마에케나스 혹은 마에케나스의 “인정”이다. 그것은 호라티우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sup>68)</sup>

우선 『서정시』 I 20이 마에케나스를 초대하려는 뜻에 쓰인 시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고대 주석가들은 이 시의 제목을 ‘호라티우스가 마에케나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다 *Maecenatem ad cenam invitat*’라고 붙여놓았는데,<sup>69)</sup> 이런 제목은 시인이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가정을 전제할 때만 가능해 보인다. 시의 본문은 다만, 언급된 많은 종류의 진귀하고 값비싼 포도주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싸구려 포도주처럼 보이는, 하지만 저녁 식사에서 소중한 친구에게 제공될 시인의 포도주를 그 포도주에 얹힌 사연과 함께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명시적으로 초대 의 말을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70)</sup>

vile potabis modicis Sabinum      누추한 사비눔 포도주를 소박한 잔에

68) Meister(1950)을 보라. 호라티우스와 마에케나스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들의 관계는 이들이 같은 해에 죽을 때까지 무렵 30년 이상 이어졌다. 아니 죽음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 묻힘으로써 계속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마에케나스와 호라티우스의 관계가 시작되던 초기, 그러니까 『풍자시』와 『비방시』의 시기에 둘의 관계는 두호인과 피호민의 관계였음이 분명하다. 호라티우스가 그를 “*rexque paterque*”라는 용어로 지칭한 것은 가장 분명한 증거다. 하지만 초기 서정시를 발표할 무렵, 분명히 둘의 관계는 피호관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69) Fraenkel(1957) 214쪽.

70) Fraenkel(1957) 221쪽 이하. Syndikus(1972) 214쪽, “*In unserem Gedichte vertritt die Vorausschau auf den gebotenen Trunk geradezu eine ausdrückliche Einladung.*”

cantharis, Graeca quod ego ipse testa 받아 대접할 겁니다. 극장을 찾은 그대가  
 conditum levi, datus in theatro 갈채 받던 날 제가 직접 희랍 술 동이에  
 cum tibi plausus, 담아 봉해두었던 술.

5 care, Maecenas, eques, ut paterni 소중한 마에케나스, 기사여, 그대 고향을  
 fluminis ripae simul et iocosa 흘러온 강과 어울려 함께 바티카누스 산에  
 redderet laudes tibi Vaticani 사는 즐거운 메아리가 그대를 기려  
 montis imago. 칭송을 주고받던 날 담근 술.

Caecubum et prelo domitam Caleno 그대가 마시는 카이쿠뚨 포도주, 칼레스  
 10 tu bibas uvam: mea nec Falerni 압착기로 짜낸 포도주, 팔레르눔 포도주  
 temperant vites neque Formiani 포르미아 언덕에 나는 포도주를  
 pocula collis. 섞지 않은 제 술병.

분명한 것은 주연(酒宴)을 전제로 이 시가 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농촌 삶의 행복을 상징하는 술잔치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어 보인다.<sup>71)</sup> 사비눔 포도주 하나만이 이 시에서 유일하게 농촌 삶을 나타낼 뿐이며, 농촌 삶을 달리 상징하는 어떤 것도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 언급이 없는 것은 “*mali labores*”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앞서 키타리스가 도시를 떠나 농촌 삶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와 흡사한

---

71) ‘사비눔 포도주’를 문학 장르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Putnam(1968/69) 156쪽, “*His lyric vintage is the opposite of the city’s epic praise. It is cheap instead of dear; modest instead of overwrought; underplayed, not broadcast.*” Race(1978) 182쪽, “*You deserve a grand-style encomium; I can only offer you cheap wine, but it is Sabine and it is special;*”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받는 손님을 이곳으로 오게끔 할 것, 예를 들어 농촌 삶의 매력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단순하게 시인의 농촌 삶은 마에케나스가 누리는 도시 생활과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그 배후에서 어른거리고 있을 뿐이다.

시인은 이 시를 노래할 시점에 수도 로마를 떠나 누추한 사비눔 시골집(*vile potabis*, 1행)에 머물며 포도주를 담고 있었다(*conditum levi*, 3행). 같은 시점에 수도 로마와 로마의 극장은 마에케나스를 맞이하는 기쁨의 환호와 환영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필이면 바로 그때 호라티우스는 농부의 일로 매우 바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ego ipse*, 2행) 희랍 술동이(*Graeca testa*, 2행)에, 그가 사는 사비눔에서 키운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담고 보관을 위해 술동이를 밀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적 공간에서(*in theatro*, 3행) 대중적 환영을 누리는 마에케나스를 위해 시인은 사적 공간에서 개인적 술잔치를 준비한다. 군중의 환영은 로마 시내와 강 건너 언덕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커다란 규모와 크기를 가지지만(*montis imago*, 8행), 이에 비하자면 시인의 환영은 이름 없는 포도주를 담은 술잔만큼 소박하기만 한다(*modicis*, 1행). 하지만 환영의 마음만은 도시의 규모에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사비눔을 방문하는 마에케나스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함을 먼저,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희랍 술동이”가 말해주고, ‘희랍식 술잔 *catharus*’는 환영의 마음이 크음을 알려준다. ‘칸타로스 *cantharus*’(2행)는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려 두 손으로 잡아야 하는 커다란 잔이다.<sup>72)</sup> 그렇다면 형용 모순처럼 보이는바 ‘소박한 큰 잔’은 규모는 작지만, 더없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sup>73)</sup>

우리는 시인이 담은 포도주를 누가 마시게 될지, 시인이 말한 “그대”(*potabis*, 1행)가 누구인지를 시의 중심이 되는 두 번째 연에 이르기까지 알지 못한다. 중심에 이르러,

---

72) Nisbet-Hubbard(1970) 247쪽. West(1995) 96쪽.

73) Kiessling-Heinze(1917) 117쪽은 “*modicis*”를 양이 아니라 질로 이해했으나, 우리는 오히려 규모 등의 양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시인은 에트루리아 왕가의 혈통(*atavis edite regibus*, 『서정시』 I 1, 1행)을 이어받았다는 마에케나스의 이름을 외친다. “소중한 마에케나스, 기사여!”(5행). 이것은, 로마 시민 모두가 자리를 가득 메운 극장에서 울리던 칭송과 환영의 함성이 티베리스 강을 건너 바티카누스 산에 부딪혀 메아리칠 때의 목소리였다. 마에케나스의 명성과 시민들의 애정(*care*, 5행)<sup>74)</sup>이 이렇게 메아리치는 순간, 다시 말해 로마 전체를 가득 메우며 명성과 애정이 울려 퍼지는 순간은, 흔히 그리하듯 정치가에게 정치 인생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에케나스가 놀랍고 감격스러운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던 때에 시인의 부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에케나스가 기쁨과 감격을 누리던 날, 그 순간에 대한 시인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되짚어보아야 한다. 이 순간 시인은 마에케나스를 생각하며 포도주를 채우고 있었고, 이 순간 시인이 담은 포도주는 장차 시인이 맞을 손님에게 감격과 기쁨을 상기시켜 줄 소중한 준비물로 보인다.<sup>75)</sup> 하지만 실제로 시인이 소위 기쁜 날을 과연 기쁘게 기억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런 날에 발생한 시인의 부재를 설명할 방법이 매우 궁색하다. 과연 “누추한” 포도주를 담기 위해 그

---

74) 일부 사본 전승은 ‘*clare*’로 읽기도 하며, 이는 West(1995) 97쪽의 설명처럼 원로위 위원에 서 붙여지는 호칭이고 아마도 마에케나스의 명성을 반영하는 호칭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부르는 소리는 시민들의 목소리인 동시에 호라티우스가 마에케나스를 부르는 소리로 해석하고자 하므로 ‘*care*’를 택한다. 또 Nisbet-Hubbard(1970) 248쪽의 설명처럼 ‘*clare*’는 Bentley가 받아들인 전승이지만, 그럼에도 무시할 수 있는 사본에만 등장한다.

75) Fraenkel(1957) 216쪽, “Primarily Horace wanted to cheer his friend by reminding him of the scene in the theater, but in doing so he produced a lasting picture of his own affectionate care.” Syndikus(1973) 216쪽, “Der an diesem Tage abgefüllte Wein sollte eine Erinnerung an den denkwürdigen Augenblick sein.” Hiltbrunner(1972) 177쪽, “Horaz hat den Wein selbst abgezogen, und dies an einem der glücklichsten Tage im Leben seines Freundes; die Erinnerung lebt wieder auf mit dem Öffnen dieses Kruges.”

런 날과 맞바꾸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용인될만한 핑계가 될까? 그래서 오히려 시인이 소위 ‘기쁜 날’을 매우 유감스러운 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이에 대해 유력한 근거는, 시인이 현재의 기쁨과 감격을 미래의 다른 날(*potabis*, 1행)로 유보하였다는 점이다. 또 병석을 털고<sup>76)</sup> 일어나 다시 대중 앞에서 나선 마에케나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칭송과 환호성은 오히려 시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 사람들의 귀한 대접을 받는 카이쿠뭉 포도주, 칼레스 포도주, 팔레르눔 포도주, 포르마아 포도주 등 값비싼 포도주들만큼이나 시민들의 호의적 평가와 환영을 누리는 마에케나스를 지켜보며, 시인은 기쁜 마음으로 이를 같이 즐길 수 없었다. 유명한 포도주들을 사양하는 시인의 태도에서(*mea nec temperant pocula*, 11~12행)<sup>77)</sup>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마에케나스 본인이 보기에든 기쁜 날이 시인이 보기에겐 친구 마에케나스에게 실제로 행복한 날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칼레스 포도주(9행)에 붙어있는 “압착기로 짜낸”(*prole dominatam*, 9행)이라는 수식어도 시인의 근심과 격정을 반영한다.<sup>78)</sup> 그래서 시인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흥분과 감격의 위대한 순간을 누리는 결정적인 날, 멀리 떠나 시골 농부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

76) 이는 『서정시』 II 17, 22행 이하에 언급된바, 운집한 관객들이 마에케나스를 환영하며 연호하는 장면이 여기 『서정시』 I 20의 장면과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신을 유피테르의 빛나는 가호가 패륜의 사투르누스에게서 되찾아왔고, 운명의 재빠른 날개를 저지하였으며 운집한 관객들은 세 번의 환호성으로 극장을 채웠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 내용은 마에케나스가 죽음의 위기를 무사히 넘긴 사건을 계기로 한다.

77) 『서정시』 III 29, 57행 “내 할 일이 아니니 *non est meum*”라고 말하여 시인이 “퀴프로스와 튀리아의 보화”를 거절하고 “이단노의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는 시인의 모습은 “누추한 사비눔 포도주”를 해석하는 단서가 된다.

78) Putnam(1968/69) 157쪽, “*The choice draughts of Caecuban and Calenian, drunk by Maecenas, and elsewhere in Horace synonymous with good fortune and rejoicing, are actually ‘tamed’(domitam) and ‘suppressed’(prelo, root prem-)*”

마에케나스가 찾아오는 어느 기쁜 날에 시인은 희랍 항아리에 담가두었던 사비눔 포도주를 꺼내놓겠다고 말한다. “누추한” 포도주라고 시인이 말하였지만, 실은 커다란 자부심을 보이는바 자랑스럽기 때문에 손님에게 내놓을 수 있다.<sup>79)</sup> 시인이 자랑스럽게 꺼내놓은 포도주를 언급하는 시작 부분은, 풍미를 더욱 좋게 하려고 혹은 술의 강도를 조절하려고 값비싼 포도주를 사비눔 포도주에 섞어 넣는 일(*temperant*, 11행)<sup>80)</sup>을 거부하는 모습에 상응한다. 서로 다른 두 포도주가 섞을 수는 없듯이, 나란히 병치된 “그대……나는”(10행)은 마에케나스와 시인이 처한 현실적 거리와 커다란 차이를 알려준다.

시인이 피력하는 초대 뜻은 첫 행의 “대접할 겁니다 *potabis*”에서 읽어낼 수 있다. 물론 초대를 위해 필요한 나머지 사항들, 어디에서 언제 왜 등의 언급이 빠져 있다.<sup>81)</sup> 대중적 사랑을 받는 위대한 정치가를 시인이 언제 어떤 계기로 초대한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의 본문 밖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것은 마에케나스와 미리 합의된 모임이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결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도 있는바,<sup>82)</sup> 시인 자신이 마에케나스를 찾아가려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가 사비눔에서 담근 포도주를 가지고 갈 테니. 같이 마 십시다.’ 혹은 마에케나스가 사비눔을 방문하겠다고 시인에게 알렸고 이에 시인이 이렇게 대답하여 사비눔 포도주밖에 준비할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정치가를 초대한다는 해석은 시인의 로마

---

79) 뒤에서 다룰 『서정시』 III 29, 1행 이하에서도 이런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마에케나스를 초대하며, 그를 위해 시인은 소박한 포도주와 작은 집을 마련한다.

80) Fraenkel(1957) 344쪽은 “*temperare*”를 “*to moderate, to render less violent, intense, rigorous, or burdensome*”로 해석한다.

81) Nisbet-Hubbard (1970) 246쪽.

82) Fraenkel(1957) 214쪽 각주 2번, Syndikus (1972) 214쪽 각주 2번.

이탈과 사비눔 안주(安住), 사치 거부와 가난 선택에 근거한다. 도시와 농촌은 섞일 수 없는 서로 다른 둘이고, 마에케나스가 머무는 도시와 호라티우스가 머무는 시골이 그러하고, 도시의 사치와 시골의 가난도 서로 섞일 수 없는 둘이다. 선택해야 한다면 둘 중의 하나다. 그리고 시인이 로마를 떠난 것은 의지에 따른 선택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평에 따라 마에케나스에게 영광스러운 날에 시인의 로마 부재를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사비눔에 안주한 것도 의지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후로도 시인이 로마를 방문하려 하지 않을 것은 그가 일부러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환호와 칭송이 메아리치는 즐겁고 호사스러운 도시를 마에케나스는 떠나올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인은 외쳐 마에케나스를 부르고 초대하고 있다. “소중한 마에케나스, 기사여”(5행). 이 외침은 앞서 로마 시민들의 환호와 칭송으로서 마에케나스에게 명예를 부여하던 바로 그 목소리다. 이제 로마를 가득 메운 메아리가 울려오던 곳을 향해 사비눔의 호라티우스가 똑같이 외친다. 똑같은 외침이지만, 시인의 목소리는 앞서 로마 시민의 환영 소리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시인에게 “소중한” 친구가 도시의 환호성과 도시의 호사스러운 삶에 붙들려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가능한 누추하지만 소박한 사비눔으로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 4.3.3 마에케나스의 초대시 II : 『서정시』 III 8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가 있었던 날이 다시 돌아왔고 이를 기념하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잔칫날에 호라티우스는 그의 친구 “소중한 마에케나스”를 다시 한 번 초대했다. 『서정시』 II 20보다 여기서 농촌 삶으로의 초대와 그 의미가 선명하다. 시인은 정확하게 초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마에케나스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지적함으로써

초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해준다. 삶과 생명을 구한 것을 기리는 술잔치는 이제 동시에 마에케나스의 삶과 생명을 구하는 잔치가 될 것이다. 이 시가 시작되면 우리는 사비눔의 술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곧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순간 마에케나스가 도착했다.

Martiis caelebs quid agam Kalendis,	삼월 초하루 독신의 몸으로 뭘 하느냐,
quid velint flores et acerra turis	뭘 하기에 꽃이며, 향을 채운 향갑이며,
plena miraris positusque carbo in	갓 뜯어와 숯불에 올려놓은 향초는
caespite vivo,	무어냐, 놀라시겠지요?

5 docte sermones utriusque linguae?	당신, 두 가지 말을 배운 당신이여,
voveram dulcis epulas et album	근사하게 차린 음식과 정결하게 마련한
Libero caprum prope funeratus	염소를 酒神께 드립니다. 나무에 맞아
arboris ictu.	저승을 보았을 것이나,

hic dies anno redeunte festus	한 해가 지나 돌아온 그 날에, 잔치를 열고
10 corticem adstrictum pice dimovebit	역청으로 메워 막았던 마개를 뜯어내어
amphorae fumum bibere institutae	톨루스가 집정관을 지낼 적에 담갔던
consule Tullo.	술병의 바닥을 보겠습니다.

sume, Maecenas, cyathos amici	마에케나스여, 생명을 구한 친구를 위해
sospitis centum et vigiles lucernas	백 잔의 술을 드시고, 밤을 지새울 등잔을
15 perfer in lucem: procul omnis esto	새벽까지 밝히십시오. 온갖 원성과 분노를
clamor et ira.	멀리에 떨쳐 잊으십시오.

mitte civilis super urbe curas:	수도 로마의 국가적 걱정은 버려두십시오.
occidit Daci Cotisonis agmen,	다키아 왕 코티소의 군대는 전몰하였으며
Medus infestus sibi luctuosis	불온한 메디아는 서로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20 dissidet armis,	전쟁으로 반목하였고,

servit Hispanae vetus hostis orae,	히스파니아 해안에 사는 오랜 숙적, 굴복한
Cantaber, sera domitus catena,	칸타브리아는 늦게나마 사슬에 묶였으며,
iam Scythae laxo meditantur arcu	이미 스쿼티아는 활시위를 늦추고 초원으로
cedere campis.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25 neglegens ne qua populus laboret	시민들이 무엇으로 근심하는지를 잊고,
parce privatus nimium cavere et	정무관도 아닌데 너무 꽤념치 마시고
dona praesentis cape laetus horae,	다만 지금 이 시간이 주는 선물을 즐기며
linque severa.	심각한 일들은 털어내십시오.

시인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보이도록 이야기를 시작한다.<sup>83)</sup> 시인은 첫 세 개의 연(1~12행)에서 그가 주관하는 기이한 잔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른 봄날, 좀 더 정확하게는 3월 1일(*Martiis Kalendiis*, 1행)에 시인이 주관하는 이 잔치가 더욱 기이한 것은 바로 이날이 출산 여신 유노를 모시기 위해 여인들이 주관하는 축제가 열리는

---

83) Syndikus(1973) 104쪽, “*Der Dichter beginnt mit einem Scherz.*” 시인의 이런 장난스러운 태도에 대비하여, 초대 손님 마에케나스는 심각하고 진지한, 마음을 무겁게 압박하는 세상 걱정을 안고 있다.

날(*Matronalia*)이기 때문이다.<sup>84)</sup> 더군다나 “독신의 몸”(caelebs, 1행)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출산 여신의 축제를 차리는 듯한 움직임은 기이한 생각을 더욱 키운다. 특히 잔치에 초대 손님으로 모신 마에케나스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것(*miraris*, 3행)을 예상한 시인은 잔치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다. 잔치 초대 손님 마에케나스를 이름을 불러 직접 호명하는 것은 13행까지 늦추어져 있다. 도입부 세 개의 연에서 “두 가지 말을 배운”(5행) 사람이고 학식도 겸비한 사람(*docte*, 행)으로 불리는 초대 손님조차 박학 다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제를 처음 볼 것이기 때문에(*miraris*, 3행) 시인의 부연은 반드시 필요하였다.<sup>85)</sup>

시인은 꽃을 준비하고 향초를 태우고 향초를 태울 숯불을 준비한다(2~3행). 그리고 많은 음식은 근사하게 장만 되었고(*dulcis*, 6행), 희생 제물로 바칠 염소는 정갈하게 치장하여 마련되어 있다(*album*, 6행). 또 오래 보관해두었던 귀한 포도주를<sup>86)</sup> 꺼내놓는다(10~11행). 이렇게 준비한 잔치는, 시인의 설명을 따르면, 출산의 여신 유노에게 바치는 희생제가 아니라 포도주의 신 박쿠스(*Liber*, 7행)에게 드리는 희생제다. 잔치가

---

84) 오비디우스 『로마의 축제일』(천병희 역, 2005) 132쪽 이하는 “부인들의 축제 *Matronalia*”를 다루는데, 로마인들이 아내로 삼아 납치한 사비니 여인들의 아버지들이 봄에 날씨가 풀리자 전쟁을 벌여 딸들을 구출하려는 위기의 순간, 사비니 여인들이 유노 여신의 신전에 모여 과부가 되거나 아버지를 잃을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 줄 것을 기원하였다.

85) West(2002) 83쪽.

86) Kiessling-Heinze(1917) 313쪽. “툴루스가 집정관을 지낼 적 담갔던 포도주”(11행)는 아마도 기원전 66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호라티우스가 태어나기 한 해전에 담근, 따라서 오래되고 귀한 술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또 다른 툴루스가 집정관이던 기원전 33년인데, Kiessling-Heinze(1917)은 이때 담근 포도주는 오래되고 귀한 포도주라고 할 수 없다. 『서정시』 III 8은 18~24행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 대략 기원전 28년경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West(2002) 84쪽에 따르면, 기원전 33년이 호라티우스가 마에케나스에게서 사비눔 영지를 선물 받을 즈음으로 호라티우스에게 매우 의미가 깊다.

열리는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의 3월 1일에 시인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였다(*prope funeratus*, 7행).<sup>87)</sup> 시인은 쓰러지는 나무 아래 서 있다가 나무에 머리를 얻어맞을 뻔 하였다. 그는 죽을 뻔한 생명의 위기에서 그를 구한 박쿠스를<sup>88)</sup> 위해 1년이 지난 3월 1일에 염소를 희생물로 바치는 감사의 잔치를 열게 되었다(*hic dies anno redeunte festus*, 9행).

호라티우스는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바(II 13, II 17, III 4), 우선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익살스러운 태도로 사건을 묘사하는 『서정시』 II 13의 언급을 토대로 요약하면, 쓰러진 나무는 이제는 시인의 소유가 된 사비눔 영지(*agro meo*, 10행)에 예전부터 서 있던 나무였고, 아마도 저주받은 불경한 짓을 저지른 자에 의해 심어져, 불경하게도 주인의 머리 위로 쓰러져 주인에게 죽음의 위기를 초래한 “몹쓸 나무”(*triste lignum*, 11행)다. 또 『서정시』 III 8에서는 그를 구해준 박쿠스 신을 위해 감사의 희생제가 개최되지만, 앞서 『서정시』 II 17에서는 그를 구해준 신으로 파우누스(28행)가 지목되고, 같은 사건을 언급하는 『서정시』 III 4에서는 무사여신들(*Camenae*, 21행)이 지목된다. 한편 『서정시』 II 13에서는 특별히 지목된 신은 없다. 다만 호라티우스가 너스레를 떨어,<sup>89)</sup> 만약 그가 저승에 갔다면

---

87) 『서정시』 II 13, 1~12행 “예전 저주받은 날에 너를 심은 자가 누구든, 그는 일찍이 불경한 손으로, 나무여, 너를 키워 자손들의 파멸과 시골 마을의 수치가 되었다. 믿거니와, 그는 제 부모의 머리를 박살 냈으며, 집안 여기저기에 손님들이 저녁에 흘린 피를 뿌렸을 게다. 그는 콜키스 독약을, 누구나 불경하다고 여기는 것을 들여와 내 땅에 너를 심었나 보다. 너를, 몹쓸 나무여, 너를, 죄 없는 주인의 머리 위로 쓰러진 너를.”

88) 『서정시』 II 19, 29~32행을 보면, 호라티우스는 박쿠스 찬가를 노래하면서 박쿠스를 저승을 제압한 영웅으로 묘사한다. 박쿠스 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저승에서 돌아올 때에 저승의 문지기 케르베로스는 박쿠스 신에게 덤벼들지 않았다. 디오뉘소스의 저승여행이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박쿠스를 죽음을 극복한 불멸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시인은 여기서 박쿠스를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구해준 구원자로 제시한다.



저승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사포와 알카이오스를 보았을 것인데, 저승의 괴물들도 시인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있을 것이고, 저승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고통을 잊을 것이라며, 호라티우스가 레스보스의 옛 시인들을 죽음의 거처마저 제압하는 존재로 부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시인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짐작할 뿐이다.<sup>90)</sup> 따라서 지금 논의할 『서정시』 III 8의 박쿠스로 호라티우스가 이 사건에서 그를 구해준 수호신을 하나로 한정하였다고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수호신은 복합적일 수 있다. 도시를 멀리하고 농촌의 사비눔에 정착한 시인에게 목동을 돌보는 파우누스가, 또 노래하고 춤추는 행복한 삶을 보호하는 무사여신들이, 또 세상의 시름을 잊은 시인을 보호하는 박쿠스와 베누스가 쓰러지던 나무에서 구사일생 목숨을 구한 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함께하였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전반부의 잔치 준비는 파우누스와 박쿠스와 무사여신들의 영원한 가호 아래 펼쳐지는 사비눔의 농촌 삶이 가진 노래하고 사랑하는 즐거움,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가진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곳에 곧 도착할 마에케나스를 위해 시인이 준비한 잔치의 의미일 것이다.

네 번째 연(13~16행)을 중간에 두고 이어지는 후반부의 세 연(17~28행)은, 시인의 관점에서 시인이 느끼는 대로, 마에케나스가 살아가는 수로 로마의 삶을 보여준다. 앞서 『서정시』 I 20에서 호라티우스가 마에케나스를 포도주 잔치에 초대하였을 때 드러내지 않은, 아니 화려하고 웅장한 대중적 인기와 명예의 찬란한 빛에 시인이 그런 말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던바, 이제 마에케나스의 삶에 대한 시인의 인상이 좀 더 선명하게 표현된다. 그것은 바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에케나스다. 수도 로마에서 명성을 누리는 위대한 사내는 공공장소에서 대중의 환영과 환호 때문에 행복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시인의 관점에서 겉모습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89) Fraenkel(1957) 166쪽, “*These wild exaggerations are delivered in a tone of light mockery.*”

90) Fraenkel(1957) 168쪽은 『서정시』 III 4, 21 행에 비추어 “*Camenae*”라고 특정한다.

정치가로서 누리는 마에케나스의 이런 명예로운 삶은 사실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그가 쏟은 끊임없는 노고와 고민의 결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고와 수고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에케나스가 정치가로 군사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업무에 개입하게 된 이래, 그의 삶은 더는 그런 과업과 과제에서 풀려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수고와 걱정이 쏟아질 수 없는 일에 더욱 깊이 휘말리게 되었다. 로마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근심과 염려(*civilis curas*, 17행)는 마에케나스를 족쇄처럼 움아매고 있었고, 사람들의 원성과 분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clamor et ira*, 16행). 제국의 동쪽 끝에서 다키아의 군대가 로마 국경을 위협하는가 하면(18행), 언제가 쳐들어올지 모르는(*infestus*, 19행) 파르티아의 내전이 발생하여 로마 제국에 까지 걱정거리가 된다(19~20행). 그리고 근심과 걱정은 다시 제국의 서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동쪽 끝으로 옮겨간다. 제국의 서쪽 끝에 로마에 굴복하지 않으려 하는 칸타브리아가 위치하고(22행), 동쪽 끝에는 활쏘기에 능한 스키타아가 준동한다(23행).

물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들이 더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은 괴멸되었거나(*occidit*, 18행), 로마의 패권에 굴복하여(*domitus*, 22행) 마침내 복종하게 되었다(*servit*, 21행). 또는 이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반목하느라 당장 로마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며(*dissidet armis*, 20행), 아니면 활을 내려놓고 스스로 물러나려고 준비하고 있다(*meditantur cedere*, 23~24행). 당장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없어지고 저절로 사라졌지만, 마에케나스의 근심은 그를 떠나지 않는바, 그의 염려는 이미 도를 지나쳤다 싶을 정도다(*nimum cavere*, 26행). 따라서 이런 염려와 근심은 어떤 사실적인 사태 때문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시인이 보는 한에서, 근심과 걱정을 보태고는 것은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다. 마에케나스의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서 근심과 염려를 키우고 있었다.

네 번째 연은 초대하는 시인과 초대받은 손님이 서로 만나고 인사할 곳을 마련하는데, 밤늦게까지, 아니 새벽까지 밤을 지새며(*vigiles in lucem*, 14~15행)<sup>91)</sup> 이어질 술잔

치가 준비된다. 시인을 방문할 사람, 앞서 그저 “두 가지 언어를 배운 당신”(5행)이라고 호명되던 손님이 이곳에서 드디어 이름으로 고지되는데, 그는 마에케나스(13행)였다. 손님의 실명(實名)이 공표되는 네 번째 연은 시 전체의 중심이다.<sup>92)</sup>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는 마음은 간절하고 맞이하는 마음은 따뜻하다. 찾아오는 마에케나스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centum*, 14행) 많은 술을 권하고 있고, 그것도 날이 셀 때까지 밤새 아주 늦도록 말이다. 지난날 멀리 외국 원정을 떠났다고 돌아온 젊은 날의 친구 폼페이우스가 돌아왔을 때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자고 하였던 것처럼,<sup>93)</sup> 일상적인 한도를 벗어난 특별한 과도함이 나타나는데, 이는 시인이 두호인 마에케나스가 아닌 ‘친구’ 마에케나스를 맞이하는 각별한 태도와 마음의 특별한 따뜻함을 의미한다.<sup>94)</sup> 이번 잔치를 위해 마련된 포도주가 담겼던 술병(*amphorae*, 11행)도 호라티우스가 태어나기 전에 저장고에 넣었던 것으로 환영과 환대의 ‘과도함’을 강조하는데 일조하였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축구와 권고는 이런 마음을 반영한다. “들라”(sume, 13행), “밝혀라”(perfer, 15행), “버려두라”(mitte, 17행), “괘념치 말라”(parce, 26행), “즐거라”(cape, 27행), “떨어내라”(linque, 28행) 등 친구를 향한 시인의 명령은 간절하다.

시골 사비눔의 시인 초대자가 도시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 손님과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 있고, 둘은 함께 포도주의 신에게 올리는 감사의 희생제를 올린다. 포도주 신과

---

91) Kiessling-Heinze(1917) 313쪽. 『서정시』 III 21, 25행 이하 “박쿠스와, 만약 즐거이 함께 한다면 베누스와, 춤체 춤추길 멈추지 않는 그라티아 여신들과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 너와 더 불어 놀겠다. 포에보스가 돌아와 별을 쫓을 때까지.”

92) Fraenkel(1957) 222쪽 이하는 이런 지연을 『서정시』 I 20, 『서정시』 III 29와 『서간시』 I 1에 서 관찰되는 것으로, 희랍의 찬가에서 나타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문체라고 설명한다.

93) 『서정시』 II 7, 26행 이하 “정신을 잃고 에도니인처럼 대취하겠다. 친구가 돌아오니 미치는 것도 달콤하겠다.”

94) West(2002) 84쪽은 이런 과도함이 허용되는 것은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친구’일 때뿐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더불어 두 친구는 유쾌하고 따뜻한 회합의 세계로 들어선다. 그렇게 포도주 신의 보호 아래 정치가는 시인의 세계로 더욱 깊이 발을 들여놓는다. 정치가의 몸과 마음에, 세상을 위해 그가 감당해야 하였던 근심과 걱정은 멀리에 있고 유쾌한 한가로움이 찾아온다. 시끄러운 소리와 분노는 멀리 물러나고 고요한 평온이 깃든다. 박쿠스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구한”(sospitis, 15행) 시인과 함께 “온갖 원성과 분노”(clamor et ira, 16행)를 “멀리”(procul, 15행) 떼어놓고 찾아온 손님은 새롭게 밝아오는 날(in lucem, 15행)을 맞이한다.

새로운 날에 마에케나스는 로마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가에서 특별한 관직과 임무를 맡지 않은 개인(privatus, 26행)으로 돌아와, 공공의 안녕과 안위를 염려하는 자리에서 그런 심각한 일들은 잊을 수 있는 곳으로(neglegens, 25행) 옮겨와 농촌에 은거하며, 지금 이 순간이 주는 선물(dona praesentis, 27행), 다시 말해 국사(國事)를 벗어난 농촌 삶의 여유와 한가함, 다른 무엇보다 따뜻하게 환대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laetus, 27행)을 맞본다.<sup>95)</sup>

#### 4.3.4 마에케나스의 초대시 III : 『서정시』 III 29

기원전 23년에 출간된 초기 서정시집은 “청동보다 영원한 위업을 나는 이루었노라”로 시작하는 『서정시』 III 30으로 끝을 맺는데, 『서정시』 III 30은 일종의 출판 관행으로 호라티우스의 시집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초기 서정시집의 마지막 시는 『서정시』 III 29 “그대를 위하여”이며, 이런 배치는 초기 서정시집에서 시인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사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호라티우스는 마지막 시를 다시 한 번 친구 마

95) Syndikus(1973) 109쪽, “Carpe diem”의 변주.

에케나스에게 헌정하였으며, 그를 사비눔의 농촌 삶으로, 가난한 은거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호라티우스는 사비눔을 찾아온 마에케나스와 함께 “작은 배”(62행)를 나누어 타고 행복의 항해를 상상한다.

Tyrrhena regum progenies, tibi  
non ante verso lene merum cado  
cum flore, Maecenas, rosarum et  
pressa tuis balanūs capillis

그대를 위하여, 튀레니아 왕족이여,  
전에 쓴 적 없는 술잔에 담은 소박한  
포도주와 장미꽃을, 마에케나스여,  
당신 머리에 바를 향유를 짜서

5 iamdudum apud me est. eripe morae,  
ne semper udum Tibur et Aefulae  
declive contempleris arvum et  
Telegoni iuga parricidae.

벌써 내 우거에 마련하였다. 지체치  
마오. 늘 젖은 티부르, 아이폴라의  
경사지, 제 아버지를 죽인 텔레고노스의  
산등을 그저 쳐다보지만 마오.

fastidiosam desere copiam et  
10 molem propinquam nubibus arduis;  
omitte mirari beatae  
fumum et opes strepitumque Romae.

지겨울 만큼 넘쳐나는 과도한 재물과  
구름에 닿을 높은 저택일랑 버리오.  
행복한 수도 로마에 서린 자욱한 연기,  
화려함과 번잡함을 잊으오.

plerumque gratae divitibus vices  
mundaeque parvo sub Lare pauperum  
15 cenae sine aulacis et ostro  
sollicitam explicuere frontem.

부자에게도 삶의 변화는 큰 즐거움.  
빈자의 작은 화덕에 마련된 정갈한  
저녁에 휘장이나 다홍 깔개는 없으나  
시름 그득한 이맛살은 펴게 되겠다.

iam clarus occultum Andromedae Pater  
ostendit ignem, iam Procyon furit  
et stella vesani Leonis,  
20 sole dies referente siccos;

밝은 안드로메다의 아버가 벌써 어둔  
불을 밝히고, 프로키온은 광분하고  
사자좌는 제정신을 잃으니, 태양이  
메마르고 가문 날들을 몰고 온다.

iam pastor umbras cum grege languido  
rivumque fessus quaerit et horridi  
dumeta Silvani, caretque  
ripa vagis taciturna ventis.

벌써 지친 목동은 늘어진 가축들과  
그늘을, 물가를, 섬뜩한 실바누스의  
숲을 찾아가는데, 물소리조차 숨죽인  
강둑에는 떠도는 바람조차 없다.

25 tu civitatem quis deceat status  
curas et urbi sollicitus times  
quid Seres et regnata Cyro  
Bactra parent Tanaisque discors.

그대는 국가를 어찌 지탱해야 할지  
근심하고, 수도를 위해 염려하며  
세레스인들과 퀴로스의 박트리아를,  
혼란의 타나이스 강을 걱정하나,

prudens futuri temporis exitum  
30 caliginosa nocte premit deus  
ridetque si mortalis ultra  
fas trepidat. quod adest memento

현명한 신은 드러나게 될 결말을  
칠혹 어둠 깊이 감추어 버렸으며,  
합당치를 넘어서는 인간의 걱정을  
조롱한다. 지금 있는 것을 차분하게

componere aequus; cetera fluminis  
ritu feruntur, nunc medio alveo  
35 cum pace delabentis Etruscum  
in mare, nunc lapides adesos

꾸러갈 생각을 하오. 나머지는 강물에  
흘려 맡겨두오. 때로 강줄기를 따라  
평화롭게 강은 에트루리아 바다로  
내려가고, 때로 물에 깎인 바위들을,

stirpisque raptas et pecus et domos  
volventis una non sine monitum  
clamore vicinaeque silvae,  
40 cum fera diluvies quietos

뿌리 뽑힌 나무들을, 가축과 가옥을  
휩쓸며, 이웃한 산들과 숲들의 비명,  
사나운 급류가 조용한 강물을  
흔들어 깨운다. 자신을 이겨내고

irritat amnis. ille potens sui  
laetusque deget, cui licet in diem  
dixisse ‘vixi. cras vel atra  
nube polum Pater occupato

매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오. ‘난 하루를 마쳤다.  
내일은 어찌면 검은 구름으로,  
어찌면 맑은 태양으로 아버지께서

45 vel sole puro: non tamen irritum  
quodcumque retro est efficiet, neque  
diffinget infectumque reddet  
quod fugiens semel hora vexit.’

하늘을 채우시라. 허나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분도 되돌릴 수 없고,  
달아나는 시간이 가져간 것은 그분도  
돌이켜 없이 하지 못하는 법이로다.’

Fortuna saevo laeta negotio et  
50 ludum insolentem ludere pertinax  
transmutat incertos honores,  
nunc mihi, nunc alii benigna.

운명은 잔인한 사건에 즐거워하며  
우왕좌왕 장난을 멈추지 않으며 때로  
나에게, 때로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  
명예를 이리저리 옮겨놓는다.

laudo manentem; si celeris quatit  
pennas, resigno quae dedit et mea  
55 virtute me involvo probamque

나는 한결같음을 칭송한다. 운명이  
날개를 펴면, 내게 허락되었던 것을  
도로 내주고, 용기로 나를 단속하여

pauperiem sine dote quaero.

지참금 없는 가난을 받아들이겠다.

non est meum, si mugiat Africis  
malus procellis, ad miseras preces  
decurrere et votis pacisci  
60 ne Cypriae Tyriaeque merces

아프리카 폭풍에 돛대가 신음하면  
가련한 소원을 빌러 가고, 간절히  
빌어 퀴프로스와 튀리아의 보화가  
욕심 사나운 바다를 배 불리지 않게

addant avaro divitias mari.  
tunc me biremis praesidio scaphae  
tutum per Aegaeos tumultus  
aura ferat geminusque Pollux.

해달라 비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니,  
그때 나는 二段 노의 작은 배를 타고  
에게 해를 건너겠고, 미풍과 쌍둥이  
폴룩스가 나를 무사히 이끌어주겠다.

『서정시』 III 29는 — 물론 언급된 술잔치가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sup>96)</sup> — 시인이 머무는 시골에서 열리는 술잔치에 마에케나스를 초대하는 시다. 시인은 먼저 네 번째 연에서 여덟 번째 연까지 초대의 일환으로, 손님 마에케나스에게 생활 영역을 공간적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공간을 바꿀 것을 권하며, 이어 아홉 번째 연부터 열세 번째 연까지 더

96) Kiessling-Heinze(1917) 385쪽과 Fraenkel(1957) 227쪽은 이 시를 운문으로 쓰인 초대편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Pöschl(1961=1991) 205쪽, Lefèvre (1981) 2011쪽, Vogt(1983) 37쪽 등은 겉모습만 초대일 뿐 실제로는 세계관의 비판적 대립이 본래의 목적이었다고 본다. 가상의 잔치인가 아니면 실제로 잔치가 열렸는가의 논쟁에서 논의 핵심은 손님과 주인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이든 실제로든 인생관의 커다란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시인의 노력을 고려할 때 이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시인이 마에케나스에 대한 우정을 크게 돋보이려 한다면, 공간적 거리든 정신적 태도든 격차가 더욱 커야 한다.



불어 초대 손님 마에케나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생각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이는 마치 근심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것인바, 시인은 초대 손님이 다리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도록 권고하고 간절한 마음을 손님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초대 손님이 바야흐로 초대에 응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락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향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서정시』 III 29에서 다시 한 번 호라티우스와 마에케나스의 생활 영역과 생활 철학은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시인이 시의 전개 과정에서 마에케나스의 생활 세계와 그 태도에 비판적으로 접근할수록 양자의 차이와 대립은 더욱더 뚜렷해지며, 마침내 서로 대립적으로 묘사되는 두 세계는 멀리 떨어져 서로에게 전혀 접근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고 넘어설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양자 사이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위대한 정치가의 세계는 첫 번째 연에서 세 번째 연에 이르는 시의 도입부에 배치되었으며, 반면 시인의 세계는 열네 번째 연에서 열여섯 번째 연에 이르는 시의 마지막에 배치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대립적 극단적 배치는 시인의 초대가 더욱 간곡하고 간절한 것임을 표현하며, 더 나아가 초대 손님에 대해 시인이 가지는 우정이 더욱 깊은 곳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첫 번째 연은 마에케나스를 향한 시인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다. “튀레니아 왕족”(Tyrrhena regum progenies, 1행)은 과도한 호칭과 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어지는 “행복한”(beatae, 11행)의 반어적 용례에 비추어 역설일 수도 있다.<sup>97)</sup> 하지만 마에케나스 헌정시(『서정시』 I 1)에서 “왕가의 자손이여”라고 마에케나스의 왕족 혈통을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튀레니아 왕족” 또한 시인의 사랑과 숭모를 더욱 강

---

97) Fraenkel(1957) 225쪽, “The pomp of the opening phrase is of a piece with slightly mocking tone of the third and fourth stanzas and especially with the exaggerated contrast between the mundae parvo sub lare pauperum cenae and the luxury of the rich.” Hornsby(1958/9) 129쪽, “an ironic intention lies behind the invitation to the bucolic life.”

조하는바 이어 언급되는 정성 들인 마련한 잔치 준비물들도 이를 나타낸다. 시인은 마에케나스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도 개봉한 적 없는 술병(*cado*, 2행)을 준비하였고, 장미꽃(*flore rosarum*, 3행), 머리에 바를 향유(*balanus*, 4행)도 마련하였다. “소박한”(*lene*, 2행) 포도주는 앞서 『서정시』 I 20의 봉하여 보관하던 “누추한 사비눔 포도주”(*vile Sabinum*, 1행)처럼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시인이 마에케나스를 생각하며 어느 행복한 날에 담가놓은 포도주일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준비물들이 “향유”를 포함하여 값비싸고 귀한 것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sup>98)</sup> 분명 손님을 맞는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술잔치 시점은 분명 따뜻한 봄날이다. 아니 늦어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늦봄에 개최될 술잔치다. 그래서 장미꽃이 아직 남아 있을 때일 것이다.<sup>99)</sup> 첫 번째 연은 전체적으로 흔히 술잔치를 묘사한 노래에서 언급되던 것들을 열거한다. 그런데 이번 술잔치의 중심은 마에케나스다. 우리는 모든 아름다운 준비물들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장미꽃들에 둘러싸인 마에케나스(*flore Maecenas rosarum*, 3행)의 위치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

98) Kiessling-Heinze(1917) 386쪽.

99) 많은 학자는 술잔치 초대 시점을 한여름으로 잡고 있으며, “장미꽃”(3행)이 한여름까지 아직 남아있느냐의 문제를 호라티우스가 머무는 시골집의 기후로 해결하고자 한다. Syndikus(1973) 250쪽 각주 7번, “Die damaligen Rosensorten blühten im Frühling...Wenn sie in Horazens Landgut noch im Hochsommer blühen, ist das ein Zeichen für das angenehme Sommerklima.” 또는 “장미꽃”(3행)을 은유적으로 읽어보려고 시도한다. 한여름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17~19행에서 언급된 안드로메다의 아버지, 프로퀴온, 사자좌 등이 나타나는 시점 때문이다. 안드로메다의 아버지는 케페우스 별자리로 가리키고 7월 중순에 나타난다. 프로퀴온은 7월 15일경에 나타나는 별자리로, 천랑성이 뜨기 7일 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7월 21일경에 나타나는 태양은 사자좌에 이르며, 7월 30일경에는 사자좌에 속한 레굴루스가 나타난다. 하지만 별자리와 관련하여 “쌍둥이 폴룩스”(64행)는 겨울과 봄에 볼 수 있는 별자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초대는 두 번째 연의 첫 행에서 강조된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마에케나스에게 고지되었다. “벌써 내 우거에 마련하였다”(iamdudum apud me est, 5행). 하지만 마에케나스는 아직도 초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인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슬슬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으며,<sup>100)</sup> 그래서 지체하는 마에케나스에게 결단을 촉구한다(eripe te morae, 5행). ‘마에케나스여, 언제까지 망설이고만 있을 것인가?’ 위대한 정치가 마에케나스의 결단을 막아서는 것은 다른 아닌 국가에 대한 걱정(curae, 25행)이고 수도 로마에 대한 염려(times, 25행) 때문이다.<sup>101)</sup> 그리고 그에게 그런 염려와 걱정은 실제적 위협과 걱정이 있어서라기보다, 『서정시』 III 8에서 보았듯이, 정치가라면 의례 그러하듯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위협을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다(sollicitus, 25행).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는 시인의 거듭된 촉구는 네 번에 걸쳐 반복되는 명령에 강력하게 반영된다. “지체치 마오”(5행), “쳐다보지만 마오”(7행), “버리오”(9행), 마지막으로 “잇으오”(11행). 마에케나스도 시인의 초대에 응하려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sup>102)</sup>

로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마에케나스의 눈에 들어오는(contempleris, 7행), 그래서 마음만은 간절한 아름다운 비경들이 언급된다. 제일 먼저 언급된 지명은 티부르(Tibur, 6행)인데, “늘 젖은”(semper udum, 6행)<sup>103)</sup>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시인은 티부르를 『서정시』 I 7에서 희랍의 유명한 지명들과<sup>104)</sup> 비교하였으며 시인에게

---

100) Syndikus(1973) 251쪽.

101) Kiessling-Heinze(1917) 387쪽.

102) Pöschl(1961=1991) 208쪽은 “contemplari”에서 “sehnsuchtvoll”을 읽어낸다.

103) “Semper”를 “nec semper comtempleris”로 연결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쳐다보지만 말라”의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투스쿨룸의 별칭과 더불어 부정적 의미를 부각하려면 “젖은”과 연결하여 읽을 수 있다.

는 희랍의 어떤 아름다운 곳을 내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곳이라 하였는데, 이때 티부르는 샘에 사는 요정 알부네아, 안니오 강, 굽이치는 강물로 젖은 언덕이 있는 땅, 다시 말해 더위가 침범하지 못하는 시원하고 상쾌한 물의 고장으로 묘사되었다. 숲이 우거져<sup>105)</sup>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고운 토질의 티부르는<sup>106)</sup> 기후 또한 온화하여 지친 영혼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안락한 안식처로 안성맞춤이었다.<sup>107)</sup> 또 티부르 근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는 아이폴라(7행)는 티부르와 마찬가지로 사비눔 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이어 로마에서 멀리 보이는 알바롱가 지역의 한 부분, “텔레고노스의 언덕”(Telegoni iuga, 8행)이라고 불린 투스쿨룸이 언급되는데, 이곳은 티부르와 함께 로마인들에게 사랑받던, 로마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하지만 투스쿨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불길하고 어두운 별칭 “제 아버를 죽인 텔레고노스의 언덕”(Telegoni iuga parricidae, 8행)으로 부르며 옛 신화를 상기시키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뒷세우스와 키르케의 아들 텔레고노스가 아버를 죽이고 도망쳐와 나라를 세운 곳이라는 끔찍하고 무서운 신화를 초대시에 굳이 언급해야 하였을까?<sup>108)</sup> 일부 연구자는 희랍적 명칭과 고장 건립자의 이름을 로마적 문맥에 덧붙임으

---

104) 『서정시』 I 7, 1~11행에서 희랍의 유명한 지명으로, 로도스, 뮈틸레네, 에페소스, 코린토스, 테베, 델포이, 테살리아의 템페, 아테네, 아르고스, 뮈케네, 라케다이몬, 라리사 등이 열거된다. 『서정시』 IV 2, 30행 이하에서 “서늘한 숲 속을 거닐고 촉촉한 티부르 강둑을 따라 걸으며”라고 하였고, IV 3, 10행 이하에서 “풍요로운 티부르를 흘러 지나가는 강물과 숲의 뽕뽕한 나무들”이라고 하였다.

105) 『서정시』 I 7, 20행.

106) 『서정시』 I 18, 2행.

107) 서정시 II 6, 5행 이하 “아르고스 사람이 세웠다는 티부르가 내 노년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고, 바다 항해와 행군의 여로에 지친 이에게 휴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17행 이하 “유피테르가 긴 봄날과 포근한 겨울날을 선물하며, 풍성한 박쿠스에게 사랑스러운 아올론이 팔레르눔 포도에 버금가는 포도를 키워내는 곳”.

로써, 이미 충분히 손님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그림에 전체적으로 일종의 화려함과 광채를 추가한다고 보았다.<sup>109)</sup> 하지만 수도 로마를 떠나 그렇게 아름다운 고장을 찾지 않고, 시인의 초대에도 망설이고 주저하는 마에케나스가 덧붙이는 우유부단과 지체의 이유일지도 모른다. “늘 젖은” 티부르는 초대자의 입장에서 서늘하고 시원한 농촌 풍광을 연상시키겠지만, 내키지 않는 마음에 무언가 핑계를 찾으려는 마에케나스에게는 부정적이며, 아이폴라의 경사지(*declive*, 7행)도 행차에 불편한 여행길이며, 특히 투스쿨룸은 섬뜩하고 무서운 신화 때문에 피하고 싶은 곳일 수도 있다.

수도 로마의 ‘행복’(*beatae Romae*, 11~12행)은 역설적이다. 마에케나스의 눈으로 보면 매혹적인 수도 로마의 광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유쾌한 술잔치와 치유의 시골 풍경으로 찾아오라는 시인의 초대는 로마의 유혹에 비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수도 로마는 풍요와 부유함이 넘치고(*copiam*, 9행), 웅장한 저택이 즐비하다(*molem*, 10행).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 닿을 정도로 대단하다(*propinquam nubibus arduis*, 10행). 여기에 시인은 로마의 풍요와 부유함이 “지겨울”(*fastidiosam*, 9행) 정도라고 말함으로써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 아마도 이는 대단한 겉모습과 달리, 겉모습에 매료되어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편과 염증을 불러일으킨다는 시인의 주장이다.<sup>110)</sup> 또 아시아의 군왕들이나 누릴 만한 거대하고 웅장한 마천루들은 시인의 눈에는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다.<sup>111)</sup> 그리

---

108) Pöschl(1961=1991) 209쪽.

109) Syndikus(1973) 252쪽과 각주 21번, “*Die Vorstellung, die schon in sich verlockend genug ist, erhöht Horaz noch durch den Glanz des dichterischen Wortes : Der berühmte Namen und das Nennen des mythisch-griechischen Gründers der Stadt Tusculum.*”

110) Syndikus(1973) 254쪽은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도 호라티우스 풍자시 II 6, 100~115행에 언급된 시골 쥐와 서울 쥐의 우화를 지적하였다. “*die Stadt ein Bereich des äußeren Glanzes, aber auch der Mühen, und Unannehmlichkeit und Gefahren.*”

하여 수도 로마의 도취와 흥분에서, 그러니까 과도한 열광에서 깨어나도록, 호라티우스는 마에케나스의 눈에는 “행복한 수도 로마”의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매캐한 정체를 폭로한다.<sup>112)</sup>

두 번째 연에서 시인의 눈에 아름다운 고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런 아름다운 고장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측면을 마에케나스 입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다시 세 번째 연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마에케나스의 눈에 행복한 수도 로마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런 행복한 대도시의 삶이 가진 어두운 측면을 호라티우스의 시각에서 덧붙이고 있다. 호라티우스와 마에케나스의 생활 세계와 인생관을 대조하면서 팽팽한 긴장과 대립이 확인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시인은 초대와 발언과 촉구에 이어 좀 더 분명하게 초대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시인은 네 번째 연을 기점으로 초대의 뜻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다.<sup>113)</sup> 새로운 시작에 앞서 시인은 첫 번째 연부터 세 번째 연까지 이어 이야기된 초대를 “변화”(vices, 13행)라는 말로 정리하고, 이어 이런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

111) Pöschl(1961=1991) 210쪽, “moles, mit molestus zusammenhängend, die Last der Macht und des Reichtum andeutet.” Vogt(1983) 42쪽, “moles ist nicht weit von molestum”.

112) Vogt(1983) 42쪽, “der bittere Kern des beata Roma, nämlich fumus und strepitus, die opes umgeben”.

113) 우리는 이 전체 16개의 연을 3-5-5-3 체제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단위는 4-4-4-4 체제다. 이런 일반적 견해와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은, 일단 앞의 세 연에서 반복되는 명령형의 촉구가 세 번째 연의 11행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Pöschl(1961=1991) 242쪽, “vier Vierstrophen Gruppen”. Drexler(1969) 67쪽, “Die vier ersten Strophen bilden in der Tat eine Einheit”. Büchner(1979) 557쪽, “die ersten sieben Strophen bilden eine Einheit. Sie sind ein fest geschlossenes Einladungsgedicht”. Vogt(1983) 37쪽, “Es beginnt mit der Fiktion einer Einladung, die für die ersten vier Strophen eine kohärente Situation herstellt”.

다. “변화”는 우선 생활 장소와 생활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네 번째 연에서 여덟 번째에서 다루어진다. 시인은 이 부분에서 그가 바라마지 않는 변화, 도시에서 시골의 공간 이동, 풍요에서 가난으로의 생활방식의 전환을 아우르며, 도시 거주민 친구에게 가난한 삶의 의미를 가르치고 설득한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그것이 실은 시골에서 누리는 소박한 삶으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말해준다.

시인은 설득을 시작하면서 친구에게 농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바, 만약 마에케나스가 시인이 충심으로 가르치는 대로 이런 변화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큰 즐거움”(plerumque gratae, 13행)을 줄 것이다. 가난한 시골 삶(parvo sun Lare, 14행)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박한 저녁(mundae cenae, 14~15행)뿐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름 가득한 이맛살”(sollicitam frontem, 16행)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한다. “시름 가득한”은 다시 일곱 번째 연에서 비슷한 뜻의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며 반복된다(26행). 이것은 나중에 반복을 통해 마침내 마에케나스가 분명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는 이제까지의 자기 삶이 “시름 가득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음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dives, 13행)와 부자가 누리는 풍요의 거대한 도시가 가득 찬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외관(aulaeis et ostro, 15행)을 뽐내지만, 부자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시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가난은 그와 반대로 정갈함(mundae, 14행)이고 즐거움(gratae, 13행)이라는 생각을 엿볼 수도 있다.

농촌 삶은 근심에서 벗어난 소박한 삶,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으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시골 목동(pastor, 21행)은 계절의 변화와 절기의 흐름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sup>114)</sup> 곧 여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안드로메다의 아버지”(Andromedae

114) Pöschl(1961=1991) 214쪽 각주 22번.

*Pater*, 17행) 케페우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겼던 불”(occultum, 17행)<sup>115)</sup>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7월 중순이면 프로퀴온은 “광분”하기(furit, 18행) 시작할 것이며, 7월 하순이면 사자좌의 레굴루스도 “제정신을 잃을 것이다”(vesani, 19행).<sup>116)</sup> 뜨거운 태양이 메마르고 가문 날들(dies siccos, 20행)을 가져오면 한여름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때에 지친 목동(fessus, 22행)은 더위에 기진맥진 걸음이 느려진 가축들(grege languido, 21행)을 데리고 더위를 피해 그늘(umbras, 21행)과 시냇물(rivum, 22행)과 숲(dumeta, 23행)을 찾아 숨어든다. 그곳에서 목동은 지친 자신과 가축들은 휴식을 취하고, 더위를 식힌다. 고요한 강가(taciturna ripa, 24행)에는 바람 소리도 물 소리도 숨을 죽인다. 그리하여 목동의 마음에도 고요한 평온과 휴식이 깃든다. 멀리에서 그리고 먼 훗날에 무엇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염려하지 않는 평화(otium)가 농촌 삶의 목동에게 깃든다.<sup>117)</sup>

---

115) Kiessling-Heinze(1917) 388쪽에 따르면 케페우스 별자리는 로마에서 늘 관찰되는 별자리이므로 “보이지 않던”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것은 호라티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의 관측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Pöschl(1961=1991) 212쪽 각주 18번도 같은 추측을 한다. Syndikus(1973) 256쪽 각주 41번에서 호라티우스가 케페우스가 계속 관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까지 한다. 하지만 너무나 뻔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케페우스가 다른 계절에는 감추던 열기를 뿔어내면서 여름이 시작된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6) Columella, xi. 2, “Regulus Leonis in pectore clara stella”(Kidd, 1949, 9쪽에서 재인용).

117) 이러한 안식을 많은 학자는 에피쿠로스의 고요(γαλήνη)와 연관시킨다. Pöschl(1961=1991) 228쪽 각주 47번. Epicurus, *Ep. I* 83, 13 “πρὸς γαληνισμόν.” *Ep. III* 128, 7 “ὁ τῆς ψυχῆς χειμῶν.” 이와 달리 이런 고요와 정적을 한여름의 더위와 연관하여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Kiessling-Heinze(1917) 388쪽과 Lefèvre(1981) 2010쪽과 각주 58번은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더위를 나타낸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연과 여섯 번째 연의 대조인데, 한쪽에는 뜨거운 여름, 다른 한쪽에



하지만 농촌에서 가축을 돌보는 목동과 대조적으로 도시에서 나라를 돌보는 마에케나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는 나랏일을 염려하며 (*sollicitus*, 26행) 늘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먼 미래를 걱정하느라 여념이 없다. 설 새도 없이 그는 시간을 다투는 절박한 정치 현안도 아닌데 “국가를 어찌 지탱해야 할지”를 근심한다(*curas*, 26행). 또 박트리아에서 어떤 불온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도나우 강 유역은 안전한지, 그리고 심지어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중국땅에서 무슨 일이 생겨날지(27~28행) 두려워한다(*times*, 26행). 다시 말해 그는 당장 벌어지지도 않은, 당장 절박하지도 않은 먼 미래에, “멀리 훗날의 근심”<sup>118)</sup>에, “합당치를 넘어서는 인간의 걱정”(ultra fas trepidat, 31~32행)에 빠져있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마에케나스의 삶에서 행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시인의 시각에서 오로지 긴장과 노고가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멀리 로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타나이스 강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이 “혼란”(discors, 28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시인은 마에케나스가 인간적 불가능성에 대한 각성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바란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다름 아니라 인간 이성의 한계밖에 놓여 있는 것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caliginosa nocte*, 30행) 깊이 감추어진 것을, 멀리 그리고 먼 미래(*quod ultra est*, 『서정시』 II 16, 25행)를, 인간에게 합당한 것 이상(*ultra fas*)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다. 현명한 것은 “아버지”(Pater, 44행)가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quod est*, 32행)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미래(*tempus futurum*, 29행)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

는 뜨거운 여름날에 나타나는 예를 들어 목동의 한가로움이라고 본다. 우리는 여섯 번째 연의 한가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정적과 고요라고 생각한다.

118) 『서정시』 II 16, 25~26행, “quod ultra est oderit curare”.

시인은 이어지는 다섯 개의 연에서 도시에서 시골로 향하길 바라는 “변화”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마에케나스에게 설득한다. 호라티우스가 마에케나스에게 촉구하는 변화는 에피쿠로스가 남긴 말로 요약될 수 있다.<sup>119)</sup> “당은 내일 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행복을 내일로 미룹니다. 삶은 이렇게 우물쭈물 사이에 지나가며, 우리는 모두는 불안 가운데 생을 마감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마에케나스에게 촉구한다.

도시에서 시골로 오라는 첫 번째 권고(4~8연)가 시작되는 네 번째 연의 첫 문장에 경구(警句)를 배치하였던 것처럼,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바꾸라는 두 번째 권고(9~13연)의 시작에, 시인은 “지금 있는 것을 차분하게 꾸려갈 생각을 하오. 나머지는 강물에 흘러 맡겨두오”(32~34행)라는 경구를 배치하였다. 시인은 앞서 도시 삶과 시골 삶의 차이를 정치가와 목동의 대립과 비교로 나타냈다면, 이제 이런 차이와 차이를 현재(*quod est*, 32행)와 미래(*cetera*, 33행)의 대비로 나타낸다.<sup>120)</sup> 위대한 정치가의 삶은 멀리 다른 세상과 미래의 다른 시간 속에 몰두하는 삶이며(25~28행), 지금 여기의 삶에서 점차 멀어지는 삶이다. 그런 삶은 어찌면 사람에게 권력과 재산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을 근심과 걱정의 삶으로 이끌며, 마침내 공연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sup>121)</sup>

119) Kiessling-Heinze(1917) 39쪽을 보라. Epicurus, *GV* 14 “σὺ δὲ οὐκ ὦν τῆς αὐριον κύριος ἀναβάλλῃ τὸ χαῖρον. ὁ δὲ βίος μελλησμῶ παραπόλλυται καὶ εἰς ἕκαστος ἡμῶν ἀσχολούμενος ἀποθνῄσκει.”

120) 『서정시』 I 9, 9~13행 “나머진(*cetera*) 신들의 처분에 맡겨라. 신들이 성난 바다에 맞붙은 폭풍을 멈추려 할 때면, 측백나무도 늙은 물푸레도 쉬게 될 것이다. 내일 무슨 일(*quod sit futurum cras*)이 닥칠지 묻지 마라.”

121) 『서정시』 II 16, 17~20행 “짧은 삶을 사는 우리는 어찌하여 애써 많은 것을 추구할까? 어찌 낯선 태양이 끓는 땅을 찾아갈까? 고향을 떠난다고 자신마저 떠날 수 있을까? 악습에 찌든 근심(*vitiosa Cura*)은 청동 무장의 함선에 동행하며, 기병 무리를 떠나지 않으며, 사슴떼보

호라티우스는 인간의 운명을 로마 시내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티베리스 강에 비유하는데, 로마에 머무는 마에케나스에게 친숙한 비유일 것이다.<sup>122)</sup> 강은 때로 평화롭게(*cum pace*, 35행) 바다에 이르지만, 조용하게 흘러가던 강(*quiestos amnis*, 40~41행)도 때로 급류가 되어 쏟아지면 엄청난 힘으로 바위를 깎아내고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가옥과 가축을 휩쓸어버린다. 무시무시한 괴력 앞에서 산천초목도 겁에 질린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non sine montium clamore*, 38~39행). 또 시인은 인간의 운명을 하늘과 날씨에 비유하기도 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피테르(*Pater*, 44행)의 뜻에 따라 때로 “검은 구름”(*atra nube*, 43~44행)이 몰려와 폭우를 쏟아부을 듯이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며, 때로 맑은 하늘에 “따사로운 태양”(*sole puro*, 45행)이 밝게 빛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와 바람은 “완강하기 그지없는 운명”(*Fortuna petinax*, 49행) 앞에 무기력하다.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장난”(*ludum insolentem*, 50행)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잔인한 사건”(*saevo negotio*, 49행)을 벌이며 즐거워하며, 인간의 삶은 불확실성과 위험과 마주하여, 도저히 어떻게든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힘에 이끌려 때로 이리로, 때로 저리로, 때로 위로, 때로 아래로 부침을 거듭하는바, 모든 것이 유피테르 혹은 운명이 변덕스럽게 그리고 신뢰할 수 없게 임의로 결정하는 것에 따라 때로 운명의 호의를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뿐이다(*nunc mihi, nunc alii benigna*, 52행). 그리하여 우리는 명예를 얻는다 싶을 때 곧 다시 명예를 잃는다(*incertos honores*, 51행).

이런 운명 앞에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의 방법을 에피쿠로스의 현자가 일인칭 화자로 등장하여 우리에게 말해준다. 첫 번째 권고의 여섯 번째 연에 등장하였던 목동과 마찬가지로의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인물이며 다만 목동과 다른 점은

---

다 빠르고, 구름을 몰고 오는 동풍보다 빠르다.”

122) Fraenkel(1957) 223쪽, “the happy symbolism which pictures the changeability of man’s fortune by describing the extreme changes in appearance and behaviour of the great river.”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의식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이다.<sup>123)</sup> 현자는 현재를 살아가며 자신이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potens sui, 41행)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와 달리 미래에 있을지 무엇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간다. 위대한 정치가가 먼 미래와 멀리 다른 고장에서 벌어지는 일로 근심하고 마침내 그런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말겠지만, 현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며, 미래와 먼 곳을 향하는 근심과 걱정, 그런 욕망과 마음을 자제할 줄 안다.

매일 충실한 하루를 현자는 “나는 하루를 마쳤다”(vixi, 43행)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의 하루는 온전히 그의 것이며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potens sui, 41행)이 된다. 운명은 그의 하루를 위기로 몰아가거나 위협할 수 없으며, 그에게서 무엇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운명은 이미 과거가 된 시간(quod hora vexit, 48행)을 없었던 일로 되돌린다거나(irritum efficiet, 45~46행) 없애버린다거나(infectum reddet, 47행) 할 수 없다. 심지어 세계를 지배하는 유피테르(Pater, 44행)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차분하게 꾸려가는”(quod adest componere aequus, 32~33행)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내일은 믿지 마라”(quam minimum credula postero)<sup>124)</sup>하였던 것처럼 내일을 사는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잔혹한 운명의 장난에 삶이 휘둘리고 운명의 예측 불가능한 기복에 삶이 부침을 같이하지 않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뿐이다. 그랬을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laetus deget, 42행).

시인은 53행 이하의 마지막 단락에서 갑작스럽게 시인 본인의 생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sup>125)</sup> “운명”(Fortuna, 49행)이라는 주요 동기가 열세 번째 연과 열네 번째 연

---

123) Hornsby(1958/9) 132쪽, “The Ille potens sui closely approximates the shepherd, yet he differs in that he possesses self-consciousness, ...To underline this point, Horace makes the third figure speak in the first person.”

124) 『서정시』 I 11, 8행.

125) Pöschl(1961=1991) 231쪽, “Überraschend biegt hier Horaz ins Persönliche um und

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행복한 삶에 대해 시인의 개인적 생각을 진술한다는 의미에서 단락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의미 단락을 구분한다고 할 때, 이 시는 “그대”(tibi, 1행)로 시작하여, “나”로 끝을 맺는 대칭적 구조가 드러난다. 그렇게 “그대”와 “나”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그대” 마에케나스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실제로는 행복할 것 없지만, 정반대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난이라고 부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역설<sup>126)</sup>을 마에케나스에게 밝혀 강조하며 “변화”(vices, 13행)를 촉구하는 시인의 권고는 “나”의 세계로 “그대”가 찾아올 것과 “그대”와 “나”가 어울려 함께 살아갈 것을 친구에게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다. 친구에게 살아갈 만한 삶을 제시하고,<sup>127)</sup> 주저하고 있는 친구에게 “용기”(virtute, 55행)를 불어넣어 준다.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를, 그렇게 살고 있음과 그런 삶이 행복을 주고 있음을 “나”의 삶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대”와 “나”가 같은 공간에 같은 행복 철학을 공유하며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달리 볼릴 수 없는바, 그것은 바로 우정이다. 시인은 초기 서정시집의 마지막 시에 더욱 분명하게 우정을 이야기한다.

호라티우스는 현자의 지혜를 칭송하며 현자의 삶을 지지한다. “나는 한결같음을 칭송한다”(laudo manentem, 53행). 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는 운명(celeris

---

*persönlich bleibt das Gedicht bis zum Ende.”*

126) Hornsby(1958/9) 135쪽, “The irony”. Lefèvre(1981) 2014쪽 이하, “Horaz ist der Reiche, Maecenas der Arme”.

127) Fraenkel(1957) 228쪽, “Calm and warmhearted, he attempts to disentangle his ever-worrying friends from some of his many cares and at the same time outlines, without slightest ostentation, his personal ideal of a life worth living.”

*quatit pennas*, 53~54행)에 휘말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지하는 동시에, 운명의 변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 대한 칭송이다. 호라티우스가 흔히 사용하는 부와 권력을 향한 상인과 항해의 비유가 등장한다.<sup>128)</sup> “아프리카”(57행), “퀴프로스”(60행), “튀리아”(60행)에서 “보화”(divitias, 61행)를 가져다 큰 부를 얻기 바란다면, 누구든 그 대가로 “가련한 소망”(miseras preces, 58행)을 비는 근심과 걱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폭풍의 기미라도 멀리 보인다면 신음하는 돛대처럼(*mugiat malus*, 57~58행) 시름과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시인은 단호하게 말하되, “나”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non est meum*, 57행). 그래서 먼 미래의 풍요와 부를 위해 멀리 타향을 떠돌며 바다의 폭풍과 운명의 변화에 몸을 맡길 수는 없다.

호라티우스는 “작은 배”의 비유로 시를 끝맺는다. 폭풍 속에서 배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을 인도한다고 알려진 폴룩스와 카스토르, 쌍둥이 신(*geminus Pollux*, 64행)이 작은 배의 항해를 보호한다.<sup>129)</sup> 신들의 보호 아래 “나”(me, 62행)는 이단 노선의 “작은 배”(bimeris scaphae, 62행)를 타고 폭풍 치는 큰 바다(per Aegeos tumultus, 63행)를 건너간다.<sup>130)</sup> 53행부터 확인되는 ‘나’와 ‘너’의 극명한 대조적 배치를 근거로 많은 학자는 마지막 연의 “나”가 특히 강조된 것이며, 이는 시인이 피호민과 두호인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초대시에서 호라티우스가 마에케나스에 대해 가지는 애정과 호의에 배치된다.<sup>131)</sup>

128) 예를 들어 『서정시』 II 16에서도 “가난으로 행복하나니”라고 선언하면서 1~12행까지 금은보화와 부를 쫓아 바다를 여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

129) 『서정시』 I 12, 27~32행 이하, “별이 된 그들이 선원들에게 밝은 빛을 보낼 때면 바위를 바술 듯하던 물은 물러나 잔잔하고 바람은 잦아들고, 구름은 멀리 달아나며, 그들이 원하면, 위협하던 파도는 바다 위에 몸을 누입니다.”

130) Pöschl(1961=1991) 234쪽.

131) West(2002) 255쪽 등.

우리는 “작은 배”를 작고 소박한 사비눔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57~60행의 항해가 부와 권력을 찾는 도시 삶의 일부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조되는 작은 배의 항해는 사비눔의 농촌 삶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가난하고 힘겨울 것(56행)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사비눔은 안전하다(*tutum*, 63행). 현자처럼 현재를 살아가며 운명의 변전에 시달리지 않는다. 현자처럼 차분하게(*aequus*, 33행) 현재를 꾸려가며 근심도 걱정도 시름도 없이 하루를 마감한다(*vixi*, 43행). 현자처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자신의 주인(*potens sui*, 41행)으로 운명 앞에 당당하고 용감하게(*mea virtute me involvo*, 55행) 살아간다. 그래서 근심도 걱정도 시름도 없는 삶은 이미 행복한 삶에 이르렀다.

『서정시』 III 29는 초대시이며, 이런 초대로써 시인은 마에케나스를 도시로부터 시골로 불러내어, 도시 삶에서 농촌 삶으로 초대하여, 마에케나스도 자신처럼 진정한 자신을 찾도록 권하여, 근심도 걱정도 시름도 없는 행복한 삶에 이르기를 청한다. 호라티우스의 마지막 비유를 가지고 말하자면, 작은 배에 함께 오를 것을 설득한다. ‘작은 배’는 겨우 한 사람이나 태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작다고 말하지만,<sup>132)</sup> 이것은 시인의 장난스러운 자기 비하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오히려 ‘작은 배’라는 공간적 친밀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호라티우스와 마에케나스가 함께할 사비눔의 항해, 사비눔의 농촌 삶이 가져올 행복을 보호하는 신성이 쌍둥이 신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것은 호라티우스의 마지막 항해 장면에서 호라티우스가 부각하려 했던 것이, 함께함(*synousia*)과 우정임을 말해준다.

---

132) West(2002) 255쪽은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배에서 ‘독립’의 선언을 읽으려고 하였을 뿐, 이것이 호라티우스 특유의 장난스러운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 5. 결론

우리는 초기 서정시들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으로서 농촌 삶과 농촌의 주연(酒宴), 그리고 주연에서의 우정이라는 주제를 검토하였다. 소위 ‘초대시’를 중심으로 주연에서의 우정을 다루었다.

초기 서정시 이전에 발표된 서사시 운율의 작품들에서 행복한 삶으로서 농촌 삶이 발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풍자시』Ⅱ와 『비방시』를 거쳐 초기 서정시에 이르기까지 내전(內戰)의 격동기를 살았던 호라티우스의 초기 작품에는 무엇보다 행복한 삶에 대한 철학적 물음이 매우 깊게 각인되어 있다. 호라티우스는 행복한 삶의 원리로 농촌 삶을 제시하였고,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농촌 삶이 실현되는 사비눔을 노래하였다. 행복한 삶을 향한 도시의 ‘노동’이 결국 ‘불행한 노동’으로 귀결될 때, 사람들은 무노동의 행복이라는 몽상의 섬을 꿈꾸지만, 호라티우스는 건강한 노동이 생명을 제공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농촌 삶을 제시한다. 사비눔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촌, 도시의 화려함이 보이지 않아 가난하게 보이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잔치를 베풀며 노래하는 쾌활함이 넘치는 농촌 삶의 행복을 상징한다.

또한, 서정시 이후 호라티우스가 서정시를 더는 쓰지 않고 철학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그의 문학론과 시인론에서 호라티우스가 표방하는 ‘훌륭한 시인’의 이념을 검토하였는바, 호라티우스는 초기 서정시 88편을 발표하였을 때 즐거움에 유익함을 더해야 한다는 문학론을 표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나중에 발표된 그의 문학론이 초기 서정시를 비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서정시 이전에 발견된 행복한 농촌 삶이 유익함을 보태고자 했던 초기 서정시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어 초기 서정시에 나타난 행복한 농촌 삶의 원리는 크게 가난과 은둔과 우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리는 소위 로마 송가(『서정시』 III 1~6)를 중심으로 농촌 삶을 검토하였는바, 로마 송가는 농촌을 아우구스투스의 ‘조상들의 모범’이 요구하는 덕목이 실현되는 공간임을 보았다. 그런데 ‘조상들의 모범’과 관련된 덕목들을 아우르는 농촌 삶의 덕목은 다시 ‘가난’과 ‘은둔’의 덕으로 집약되었다. “가난으로 행복하나니”(『서정시』 II 16)과 “죄는 티끌만큼도 없는 삶”(『서정시』 I 22)을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농촌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평온과 고요 가운데 자족을 누리는 삶이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궁벽해 보이지만, 그래서 다행히도 세상의 욕망과 갈등에서 벗어난 삶이었다.

또한, 우리는 ‘가난’과 ‘은둔’의 농촌 삶에서 행복이 실현되는 순간을 호라티우스가 주연(酒宴) 혹은 술잔치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가난’과 ‘은둔’의 행복을 상징하는 주연(酒宴)을 우리는 “세상 멀리 나무그늘 아래”(『서정시』 I 32)와 “아이야, 페르시아산”(『서정시』 I 38)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런 농촌의 주연(酒宴)은 구분하여 도시의 주연이 발견되는바, 시인은 “뤼디아야, 네가”(『서정시』 I 13)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는바, 도시의 주연, 도시에서 벌어지는 술잔치의 애욕과 욕망에 작별인사를 고하였다.

호라티우스는 사비눔의 행복한 삶, 다시 말해 행복한 농촌 삶으로 친구들을 초대한다. “날랜 걸음의 파우누스가”(『서정시』 I 17), “누추한 사비눔”(『서정시』 I 20), “삼월 초하루”(『서정시』 III 8), “그대를 위하여”(『서정시』 III 29)는 호라티우스의 대표적 초대시이며, 전체적으로 농촌 삶으로 친구를 초대하는 틀을 가진다. 삶의 온갖 슬픔과 시련에 흔들리거나 온갖 쾌락에 취하는 일 없이,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일 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조화와 균형의 농촌 삶이 누리는 주연(酒宴)의 순간, 호라티우스는 친구들을 초대한다. 그곳으로 사랑에 상처 입고 시름 많은 여인, 혹은 나랏일 때문에 근심하는 권력가를 초대한 뜻은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가르치고 설득하려는 우정에 기인하는데, 친구와 함께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촌 삶이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된

다. 술잔치는 쾌락의 정점이 되는 아름답고 찬란한 삶의 한순간이고, 초대시는 술잔치로 친구를 초대하는 노래인바, 이런 쾌락의 순간에 친구들과 함께함의 우정이 빠질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초대시들은 마에케나스에게 보내는 초대였지만, 사실 이런 초대는 마에케나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대시(招待詩)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행복한 삶을 찾는 이들에게 보내는 시인의 충고이고, 진정한 자아를 돌볼 기회를 얻도록 권하는 시인의 촉구이고,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교류와 화합이라는 우정을 일구도록 알리는 시인의 설득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 정치적 정의(正義)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축이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국가가 사회 정치적 정의의 실현을 통해 개인의 삶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율한다고 할 때, 그것만으로 개인의 행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사회적 통제와 규율과는 별개로 행복한 삶의 실현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좌우되고 결정된다. 호라티우스는 행복한 삶을, 개인적 사적 영역에서 우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농촌 삶의 모습에서 발견하였다.

아우구스투스에게 의해 이룩된 새로운 질서와 평화라는 시대적 역사적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그것은 시인 호라티우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호라티우스의 초기 서정시는 분명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거기에서 이탈리아의 평온과 안정이 찾아오리라는 낙관적 전망과 미래의 희망을 읽을 수 있다. 20세기 이후의 호라티우스 연구는 이런 역사적 시대적 변화와 시인의 관계를 찾아내고 정치적 맥락에서 초기 서정시의 위치를 정립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 아우구스투스와 관계에 집중하는 연구는 초기 서정시에서 호라티우스 자신이 큰 자부심으로 자신에게 부여한 명예, 다시 말해 ‘현자-시인 *vates*’의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호라티우스가 초기 서정시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원리로 가난과 은둔과 우정을 조명하였는바,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주도하는 평화와 안정과 질서라는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인들에게 행복한 삶의 원

리와 우정의 의미를 가르치고 설득하려 하였던 ‘현자-시인’으로서 호라티우스의 면모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흔히 철학자와 시인을 아울러 현자들이 도덕적 타락과 물질적 사치를 경계하였던 것은 개인과 민족의 도덕적 문란과 물질적 유약함이 궁극적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몰락과 소멸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호라티우스는 도시를 불행한 노동으로 규정하였는바, ‘현자-시인’은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찬란한 영광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간파하였고, 이것이 로마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는 도덕적 탁월함을 닦으며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삶, 우정의 농촌 삶을 보여주며, 이를 가르치고 설득하였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에게 지혜와 사려를 권하고 영혼을 돌보며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소박하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고 풍성한 농촌을 배우도록 권고하였다.

## 참고 문헌

### I. 원전과 번역

단테, 『신곡』(上), 최민순 역, 을유문화사, 1987.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철학자들의 생애』, 김주일 외 옮김, 미출간 원고.

루크레티우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강대진 역, 아카넷, 2011.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천병희 역, 숲, 2007.

세네카, 『세네카의 대화: 인생에 관하여』, 김남우 외 2명 옮김, 까치, 2016.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 김재홍, 이창우 옮김, 길, 2011.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1~2』, 천병희 역, 숲, 2010.

오비디우스, 『로마의 축제일』, 천병희, 숲, 2005.

키케로, 『설득의 정치』, 김남우 외 옮김, 민음사, 2015.

키케로, 『우정론』, 천병희 역, 숲, 2011.

플라톤, 『뤼시스』, 이제이북스, 강철웅 옮김, 2014.

헤시오도스, 『신통기』, 천병희 역, 한길사, 2004.

호라티우스, 『소박함의 지혜』, 김남우 역, 민음사, 2016.

호라티우스, 『카르페 디엠』, 김남우 역, 민음사, 2016.

Augustus, *Res gestae Divi Augusti*, ed. A. E. Coo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Catullus, *Catulli Veronensis liber*, Ed. W. Eisenhut. Leipzig, 1983.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ed. L. D. Reynolds, Oxford, 1998.

Cicero, *De oratore I~III*, ed. A. S. Wilkins. Hildesheim, 1990.

Cicero, *Laelius de amicitia*, rec. K. Simbeck, Stuttgart, 1917.

- Epicurus, *Epicurea*, ed. H. Usen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Epicurus, *Epicurus, The extant remains*, ed. C. Bailey, Oxford, 1926.
- Horace, *Epistles book II and Epistle to the Pisones(Ars poetica)*, ed. N. Rudd, Cambridge, 1989.
- Horatius, *Q. Horati Flacci Opera*, ed. D. R. Shackleton Bailey, Stuttgart, 1985(2001).
- Isocrates, *Isocrates II: On the Peace. Areopagiticus. Against the Sophists. Antidosis. Panathenaicus*, Harvard University Press, 1929.
- Ovidius, *Carmina Amatoria*, ed. A. R. de Verger, München/Leipzig, 2003.
- Pindaros, *Pindari Carmina cum Fragmentis*, ed. C. M. Bowra, Oxford, 1935.
- Platon, “Apologia Sokratous”, *Platonis Opera* I, Tetralogias I, Oxford, 1995.
- Porphyrius, *Pompini Porfyronis commentum in Horatium Flaccum*, ed. Alfred Holder, New York, 1979.
- Quintilianus, *Institvtionis oratoriae libri dvodecim*, ed. M. Winterbottom, Oxford, 1970.
- Seneca, *Epistulae ad Lucilium*, rec. L.D.Reynolds, Oxford, 1965.
- Suetonius, *Suetonio De Poetis e Biografi minori*, ed. Di Augusto Rostagni, New York, 1979.
- Vergilius, *Aeneis*, ed. G.B. Conte, Berlin, 2009.
- Vergilius, *Bucolica et Georgica*, ed. G. B. Conte, Berlin, 2013.

## II. 2차 문헌

강상진,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리아(philia)”, 『인간연구』 4, 2003, 105~123.

김기영,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형상화된 로마의 이상적인 지도자 아이네아스”, 『서양고전학 연구』 55, 2016, 177~209.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혼인법들과 프린킵스 정치(principatus)”, 『서양고전학 연구』 11, 1997, 295~324.

김덕수, “‘로마혁명’에서 신흥 엘리트의 등장과 역할 — 아그리파와 마이케나스를 중심으로 —”, 『서양사론』 78, 2003, 33~59.

김덕수, “‘로마공화정의 교사’ 리비우스와 역사의 모범사례(exemplum) — 브루투스와 아우구스투스를 중심으로 —”, 『역사교육』 123, 2012, 217~244.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 로마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도서출판 길, 2013.

김덕수, “팍스 로마나 시대 수사학과 아동교육론”, 『서양고대사연구』 45, 2016, 113~147.

김진식, “호라티우스의 마에케나스 헌정시”, 『인문과학』 90, 2009, 153~172쪽.

김현,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파이테이아에서의 의견(doxa)”, 『서양고전학 연구』 50, 2013, 73~99.

김현, “이소크라테스와 시민 교육”, 『서양고전학 연구』 54, 2015, 35~64.

성염, “베르길리우스 〈목가집〉의 에피쿠로스적 주제”, 『서양고전학 연구』 8, 1994, 63~100.

안희돈, “무사 여신들의 로마 입성 과정과 그 특징 — 로마 당국의 수용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서양사론』 124, 2015, 126~150.

안재원, “고대 로마의 이상적 연설가(perfectus orator)”, 『서양고전학연구』 20, 2003, 119~140.

이종숙, “역사와 문학 : Shakespeare 역사극의 “역사성””, 『중세 르네상스 영문학』 2, 1994, 143~164.

이종숙, “분노, 복수, 복수 비극의 역사”, 『서양고전학 연구』 45, 2011, 183~220.

이지은, “아우구스투스와의 에페리타 아우구스타의 건설”, 『아우구스투스 연구』,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엮음, 책과함께, 2016, 345~386.

로널드 사임, 『로마혁명사 1, 2』, 허승일, 김덕수 옮김, 한길사, 2006.

조대호, “아니무스와 아니마 —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3, 136~176을 중심으로 —”, 중세 철학 17, 2011, 5~36.

최병조, 로마法研究(I),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헤르만 프랭켈, 『초기 희랍의 문학과 철학』, 김남우 홍사현 번역, 아카넷, 2011.

프리츠 하이켈 / 세드릭 요, 『로마사』, 김덕수 옮김, 현대지성사, 1999.

Ableitinger-Grünberger, D., *Der junge Horaz und die Politik, Studien zur 7. und 16. Epoden*, Heidelberg, 1971.

Albrecht, M. von, *A History of Roman literature*, Brill, 1997.

Amundsen, L., “Die Römeroden des Horaz”, H. Oppermann(Hg.), *Wege zu Horaz*, Darmstadt, 1972, 111~138.

Bailey, S., “Vindiciae Horatianae”, *HSPH* 89(1985), 153~170.

Bees, R., “Die Einheit von Redekunst und Philosophie : Poseidonios bei Cicero, De oratore, 3.19~24?”, *Hermes* 138(2010), 196~215.

Bowditch, P. L., “Horace and Imperial patronage”, *A companion to Horace*, G. Davis(ed), Blackwell, 2010, 53~74.

Brink, C. O., *Horace on Poetry : Prolegomena to the literary epist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Brink, C. O., “Cicero’s orator and Horace’s Ars poetica”, *Ciceroniana* 2(1975), 97~106.

Brittain, C., *Philo of Larissa*, Oxford, 2001.

Büchner, K., “Altrömische und horazische Virtus”, *Antike* 15(1939), 145~164

=*Römische Wertbegriffe*, Darmstadt, 1967, 376~401.

Büchner, K., "P. Vergilius Maro," *RE* VIII A, I(1955) 1021~1264, VIII A, 2(1958) 1265~1486.

Büchner, K., "Horaz über die Gelassenheit, c. II. 16", *Humanitas Romana, Studien über Werke und Wesen der Römer*, Heidelberg, 1957, 176~202.

Büchner, K., "Dienst der Freundschaft. Horaz c. 3, 29", *Studi di poesi Latina, Festschr. A. Traglia*, Rom 1979, 553~571.

Büchner, K., "Die Epoden des Horaz", *Studien zur römischen Literatur, Bd. 8, Werkanalysen*, Wiesbaden, 1970, 50~96.

Burck, E., "Drei Grundwerte der römische Lebensordnung(labor, moderatio, pietas)", *Gymnasium* 58(1951), 161~183.

Burck, E., "Drei Liebesgedichte des Horaz(c. I 19; I 30; II 8)", *Gymnasium* 67(1960), 161~176. = H. Einsenhut(Hrsg.), *Antike Lyrik*, Darmstadt, 1970, 271~294.

Burck, E., "Die Rolle des Dichtes und der Gesellschaft in der Augusteischen Dichtung", *A&A* 21(1975), 12~35.

Christes, J., "Beatus ille. Eine Konjektur und ihr Ertrag", *Pholologus* 142(1998), 279~292.

Conte, G. B., *Latin Literature: a Histo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Dahlmann, H., "Horatius, c. I. 38", *Interpretationen, Gymnasium Beih. 4*, Heidelberg, 1964, 47~55.

Dang, K., "Rome and the Sabine "farm" : aestheticism, topography, and the landscape of productions", *Phoenix* 64, 2001, 102~127.

Doblhofer, E., "Eine wundersame Errettung des Horaz. Versuch einer



Modellinterpretation von c. 1. 22", *AU* 20/4(1977), 29~44.

Doblhofer, E., "Horaz und Augustus", *ANRW* II 31, 3, 1981, 1922~1986.

Doblhofer, E., *Horaz in der Forschung nach 1957*, Darmstadt, 1992.

Drexler, H., "Nochmals zur Epistel I, 7 des Horaz", *Romanitas* 8(1967), 52~66.

Edinger, H. G., "Horace, c. I, 17", *CJ* 66(1970/71), 306~311.

Eigler, U., "Urbanität und Ländlichkeit als Thema und Problem der augusteischen Literatur", *Hermes* 130(2002), 288~298.

Forschner, M., "Epikurs Theorie des Glücks", *ZPhF* 36(1982), 169~188.

Fraenkel, Ed., *Horace*, Oxford, 1957.

Friis-Jensen, K., the reception of Horace in the middle age, In: S. Harrison(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r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91~304.

Galinsky, K., *Augustan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Georges, K. E., *Ausführliches lateinisch-deutsches Handwörterbuch*, Darmstadt, 1998.

Gold, B. K., "Mitte sectari, rosa quo locorum sera moretur: time and nature in Horace's odes", *CPh* 88(1993), 16~31.

Grant, A.- Fiske, G. C., "Cicero's orator and Horace's Ars poetica", *HSPH* 35(1924), 1~74.

Gunning, J. H., "Der Siebente Brief des Horaz und sein Verhältnis zu Maecanas", *Mnemosyne* 10(1941/42), 303~320.

Günther, H. C., *Brill's companion to Horace*, Leiden/Boston, 2013.

Harrison, S., "The reception of Horace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S. Harrison(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r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34~346.

- Hiltbrunner, O., "Einladung zum epikureischen Freundesmahl", *Antidosis, Festschr. W. Kraus*, Vienna, 1972, 168~182.
- Holzberg, N., "Horaz: Dichter in Spannungsfeld zwischen Welt und Ich", *Anregung* 40(1994), 24~37.
- Hornsby, R. A., "Horace, Ode III, 29", *CJ* 54(1958/9), 129~136.
- Jaeger, W. *Paideia. Die Formung des griechischen Menschen*, 3 Bde., Berlin 1934~1947.
- Kaus, E., "rapidus morantem fluminum lapsus. Dichter und Staat in Hor. c. I 12", *Gymnasium* 104(1997), 203~225.
- Kidd, D. A., "Two notes on Horace", *CR* 63(1949), 7~9.
- Kienast, D., *Augustus*, Darmstadt, 1982.
- Kiessling, A. – Heinz, R., *Q. Horatius Flaccus, Oden und Epoden*, 1917, 1968.
- Kiessling, A. – Heinz, R., *Q. Horatius Flaccus, Satiren*, 1967.
- Kiessling, A. – Heinz, R., *Q. Horatius Flaccus, Briefe*, 1957.
- Kogelschatz, H. D., *Die Idee der Armut bei Horaz*, Freiburg, 1975.
- Latte, K. "eine Ode des Horaz(II. 16)", *Philologus* 90(1935), 294~304.
- Lefèvre, E., "Epikur und der Wolf im sabinerwald. Gedanken zu Horaz carm. 1. 22", *GIF* 29(1977), 156~171.
- Lefèvre, E., "Horaz und Maecenas", *ANRW* II 31, 3, 1981, 1987~2079.
- Lefèvre, E., *Horaz : Dichter im Augusteischen Rom*, München, 1993.
- Lieberg, G., "Die Bedeutung des Festes bei Horaz", *Synusia, Festschr. W. Schadewaldt*, Pfullingen, 1965, 403~427.
- Liebermann, W.- L., "Die Otium-Ode des Horaz(c. II. 16)", *Latomus* 30(1971), 294~316.

- Lowrie, M., *Horace's narrative odes*, Oxford, 1997.
- Lowrie, M., "Horace and Augustus", S. Harrison(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r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77~89.
- Mackay, L. A., "Odes, I, 16 and 17: O matre pulchr, Velox amoenum", *AJPh* 83(1962), 298~300.
- Mankin, D., *Horace Epodes*, Cambridge Uni. Press, 1995.
- Martindale, Ch., "Green politics : the *Eclogues*", Ch. Martindale(ed), *The companion to Vergi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107~124.
- McGann, M., "the reception of Horace in the Renaissance", S. Harrison(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r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05~317.
- Meban, D., "Vergil's *Eclogues* and social memory", *AJPh* 130(2009), 99~130.
- Meister, K., "Die Freundschaft zwischen Horaz und Maecenas", *Gymnasium* 57(1950), 3~38.
- Money, D., "the reception of Horace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S. Harrison(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r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18~333.
- Muecke, F., *Horace, Satires II*, Warminster-England, 1993.
- Murray, O., "Symposium and Genre in the poetry of Horace", *JRS* 75(1985), 39~50.
- Nisbet, R. G. M., "Horace: life and chronology", S. Harrison(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r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7~21.
- Nisbet, R. G. M. – Hubbard, M., *A Commentary on Horace: Odes, Book 1*, Oxford, 1970.
- Nisbet, R. G. M. – Hubbard, M., *A Commentary on Horace: Odes, Book 2*,

Oxford, 1978.

Nisbet, R. G. M. – Rudd, N., *A Commentary on Horace: Odes, Book 3*, Oxford, 2004.

Norden, E., *Die Römische Literatur, Mit Anhang: Die lateinische Literatur im Übergang vom Altertum zum Mittelalter*, B. Kytzler(hrsg.), Teubner, 1998.

Oppermann(hrg.), H., *Wege zu Horaz*, Darmstadt, 1972.

Pavlock, B., “Horace’s invitation poems to Maecenas. Gifts to a Patron”, *Ramus* 11(1982), 79~98.

Poiss, Th., “Plenum opus aleae. Zum Verhältnis von Dichtung und Geschichte in Horaz *carm.* 2, 1”, *WS* 105(1992), 129~153.

Pöschl, V., “Die Curastrophe der Otiumode des Horaz(c. 2, 16, 21~24)”, *Hermes* 84(1956), 74~90. = *Horazische Lyrik. Interpretationen*, Heidelberg, 1991, 118~143.

Pöschl, V., “Die grosse Maecenasode des Horaz(c. 3, 29)” *SHAW* 1961, 5~42. = *Horazische Lyrik. Interpretationen*, Heidelberg, 1991, 198~245.

Pöschl, V., “Dichtung und Philosophie bei Horaz”, *Kunst und Wirklichkeitserfahrung in der Dichtung*, Heidelberg, 1979, 178~191.

Pöschl, V., “Horaz und die Politik”, *SHAW* 4(1956), Heidelberg, 1956, 1963 = *Kunst und Wirklichkeitserfahrung in der Dichtung*, Heidelberg, 1979, 145~177.

Pöschl, V., “Horazische Liebeslyrik”, *Symposium Sühnel*, Heidelberg, 1984, 19~33. = *Horazische Lyrik. Interpretationen*, Heidelberg, 1991, 366~380.

Ps.-Acro, *Scholia in Horatium vetustiora*, ed. O. Keller, Leipzig, 1902.

Pucci, P., “Horace’s banquet in Odes 1, 17”, *TAPhA* 105(1975), 259~281.

Putnam, M. C. J., “Horace, c. 1, 20”, *CJ* 64(1968/69), 153~157.

Quint, M.-B., *Untersuchungen zur mittelalterlichen Horaz-Reception*, Peter

Lang, 1988.

Race, W. H., "Odes I 20, An Horatian Recusatio", *CSCA* 11(1978), 179~196.

Reckford, K. J., "Horace and Maecenas", *TAPhA* 90(1959), 195~208.

Richardson, L. J. D., "Horace, Odes I, 38", *Hermathena* 59 (1942), 129~133.

Rudd, N., *The Satires of Hor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Rudd, N., "Pope and Horace on not Writing poetry : a study of epistle II 2", *the yearbook of English studies*, 1984, 167~182.

Rudd, N., *Horace, Epistules Book II and Epistle to the Pisones(Ars Poet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Sallmann, K. "De libertate Horatiana", *quid antiqua Roma ad novos vivendi mores apud Francgallos instituendos saeculo XVIII exeunte contulerit*, academia Latinitati Fovendae, commentarii XIII, 1989, 26~37.

Santirocco, M., "The Maecenas Odes", *TAPhA* 114(1984), 241~253.

Schmidt, E. A., "Das horazens Sabinum als Dichterlandschaft", *A & A*(23), 1977, 97~112.

Schmidt, E. A., "Vornehm par excellence, über Noblesse und Takt in Horazens Philippi-Gedichten(Epode 13-Ode 2,7-Ode 3, 14)", *WS* 108(1995), 377~396.

Schmidt, E. A., *Sabinum. Horaz und sein Landgut im Lizenzatal*, Heidelberg, 1997.

Schröder, R. A., "Horaz als politischer Dichter", *Europ. Revue*, 1935, 311~331.  
=H. Oppermann(Hg.), *Wege zu Horaz*, Darmstadt, 1972, 37~61.

Schulze, Ch., "Zur Sonderstellung von Horazens "carmen" 3.1 innerhalb des "Römeroden" Zyklus", *Hermes* 129(2001), 377~385.

Snell, B., *Die Entdeckung des Geistes*, Göttingen, 1993.

Spencer, D., "Horace's garden thought: rural retreats and the urban imagination", R. Rosen and I. Sluiter(ed), *City, countryside, and the spatial organization of value in classical antiquity*, Brill, 2006, 239~274.

Spies, A., *Militat omnis amans. Ein Beitrag zur Bildersprache der antiken Erotik*, Tübingen, 1930.

Solmsen, F., "Horace's first Roman ode", *AJPh* 68(1947), 377~352.

Stemplinger, E. "Qu. Horatius Flaccus", *RE* 8(1912), 2336~2399.

Stoecklein, A., "Ehrenvolle Ruhe", *Festschr. Mohammed Rassem*, Berlin, 1982, 199~218.

Syndikus, H. P., *Die Lyrik des Horaz, Bd. 1*, Darmstadt, 1972.

Syndikus, H. P., *Die Lyrik des Horaz, Bd. 2*, Darmstadt, 1973.

Tyrrant, R., "Ancient receptions of Horace", S. Harrison(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r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77~290.

Troxler-Keller, I., *Die Dichterlandschaft des Horaz*, Heidelberg, 1964.

Vischer, R., *Das einfache Leben*, Göttingen, 1965.

Vogt, G., "Einladung ins Rettungsboot, der Zusammenhang von poetischer Struktur, philosophischer Konzeption und biographischer Bedeutung in Carm. III 29 des Horaz", *AU* 26, 3(1983), 36~60.

Voit, L., "Das Sabinum im 16. Brief des Horaz", *Gymnasium* 82(1975), 412~426.

Wallace-Hadrill, A., "Mutatas formas : the Augustan transformation of Roman knowledge", K. Galinsky(ed), *age of August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55~84.

West, D., *Horace, Ode I, Carpe diem*, Oxford, 1995.

West, D., *Horace, Ode II, Vatis amici*, Oxford, 1998.

- West, D., *Horace, Ode III, Dulce periculum*, Oxford, 2002.
- Wildberger, J., “Die Überhöhung der Geliebten bei Tibull, Properz und Ovid”, *Gymnasium* 105(1998), 39~64.
- Wili, Walter, “Fundus Sabinus”, *Horaz und die augusteische Kultur*, Basel, 1948, 38~44.=H. Oppermann(Hg.), *Wege zu Horaz*, Darmstadt, 1972, 159~165.
- Wilkins, A. S., *The epistles of Horace*, New York, 1885. 1958.
- Wlosok, A., “Freiheit und Gebundenheit der augusteischen Dichter”, *RhM* 143(2000), 75~88.
- Zumwalt, N. K., “Horace, c. 1.22: Poetic and Political Integrity”, *TAPhA* 105(1975), 417~431.

## Abstract

# *Vita Beata* and *Amicitia* in Rural Life: A Study of Horace's Early Lyrics, *Carmina* I-III

Jin Sik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Classic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amines Horace's representation of rural life as *vita beata* in his early lyrics, *Carmina* I-III. In these early lyrics, Horace maintains that rural life is the best way available to attain *vita beata*, identifying at the same time the three elements of rural life most conducive to that as poverty, retreat from city life, and friendship.

Having lived through the turbulent times of the Civil War, Horace was profoundly interested in the philosophical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a happy life, and his early works such as satires and epodes are his poetic reformulations of that question. In his satires and epodes, Horace criticizes that the *labor* of city life towards *vita beata* only produces *mali labores* such as wars and civil wars, while the effort to avoid this evil consequence only creates the illusion that a life without labour is happy. Against this illusion, Horace proposes a rural life of good *labor*. For the poet, *Sabinum*, the village given by his patron and friend Maecenas, is the ideal



place for such a good life. Life in *Sabinum* away from the splendor of Rome, the archetypal City, might seem poor, but its very seclusion from the great City affords the poet a happy life filled with cheer and pleasure. Precisely because it is poor and far from the City, his life in *Sabinum* can be free from the deadly strifes of city life.

Horace reformulates the same principle of rural life as *vita beata* as presented in the satires and epodes in the genre of lyric, i.e. in *Carmina* I-III. In Epistles, Book 2 and the *Ars Poetica*, Horace has advanced the idea that the genre of lyric should be ethical and educative as well as artistic, and that the poet a bearer and teacher of the moral values of the community he belongs to.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his early lyrics *Carmina* I-III are the illustrations of that idea of lyric as means of communal education, and the moral he teaches through the medium of lyric is the same principle of *vita beata* as rural life.

The so-called Roman odes(*Carmina* III. 1-6), where Horace expresses his hopes for the progress of Roman society into a healthy community, are also praises of rural life, the life where healthy labour leads people to an enjoyment of *vita beata*, and where future generations of Rome could learn the principles of happiness of poverty and retreat from city life.

In the convivial poems of his early lyrics, Horace invites his friends to a rural banquet. The banquet embodies the climactic moment of happy rural life liberated from *mali labores* of city life, and perfect with convivial spirit and friendship (*amicitia*). To be able to commune with friends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rural life that makes *vita beata* possible. In praising and teaching the three principles of *vita beata*—poverty, retreat from city life and friendship, Horace invites his friends to share with him the happiness he finds in rural life.

In view of the hope for a restoration of peace and order in the Roman society that they reveal, it might be safe to say that Horace's early lyric poems are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directives of the Augustan leadership. The ruler of the new Rome tried to regulate individual lives within the boundary of what it regarded as right and correct. But, for Horace, true happiness can not be gained by means of public regulations alone. As a poetic response to such political effort on the part of the leadership, Horace's early lyric poems uphold the idea that happy life is to be found in the private realm of rural life. Horace as a *sapientis-vates* praises and in praising teaches the essential principle of happiness, i.e. the rural life of poverty and retreat lived with friends.

keywords : Horatius, rural life, *paupertas*, retreat, *amicitia*, *poeta bonus*

Student Number : 97131-801